

발간등록번호

11-1140237-0000015-10

인상 속 청렴을 찾습니다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CONTENTS

시나리오

- 008 대상 |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 026 우수상 | 높은 분이 또 오신다고요?
- 036 최우수상 | 어느 교무실
- 050 우수상 | 111,100원
- 060 우수상 | 나비 효과
- 070 우수상 | 그 해 여름
- 082 장려상 |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 098 장려상 |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
- 108 장려상 |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 120 장려상 | 티끌의 가치

시

- 136 대상 | 내 마음의 목소리
- 137 최우수상 | 편하게 봐요, 우리
- 138 최우수상 | 어느덧 고향의 밤
- 139 우수상 | 길
- 140 우수상 | 검은 손
- 141 우수상 | 허기가 지난 자리
- 142 장려상 | 쇠똥구리
- 143 장려상 | 그때가 맞다
- 144 장려상 | 거울
- 145 장려상 | 물가에 내리는 비

웹툰·포스터 일러스트

- 148 대상 | 지워야 할 청탁문화, 써 내려갈 청렴문화
148 최우수상 | 깨끗한 사회를 위해 부패 뜯어내세요.
149 최우수상 | 딸에게 배운 날
152 우수상 | 당신은 지금 on-air
152 우수상 | 불평등사회는 평등사회가 됩니다.
153 우수상 |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153 장려상 | 갑질, 참고 삼키는 독약입니다.
154 장려상 | 청렴, 맑은 세상으로 통하는 마스터키
154 장려상 | 함께 만드는 청렴의 길
155 장려상 | 부릉바이크

영상

- 160 대상 | 상호존중 있다, 있다
162 최우수상 | 무울이와 함께하는 나를 바로 세우는 힘
162 최우수상 | 동네 슈퍼의 교훈
162 우수상 | 기생촌
162 우수상 | 은쪽같은 내 친구
162 우수상 | 따주임의 하루
163 장려상 | 청렴 오피스(Oh peace)
163 장려상 | 잘 부탁드립니다!
163 장려상 | 학교에서도 배우는 청렴문화와 6대 덕목
163 장려상 | 청렴시물레이션의 명문화

노래

- 166 대상 | 사랑도, 미래도, 청렴도
168 최우수상 | 우린 알고 있었아
168 최우수상 | 청렴한 세상 (Mayday)
168 우수상 | Good bye
168 우수상 | 좋은 세상 만들어요
168 우수상 | 청춘 리더스
169 장려상 | Triangle
169 장려상 | 마음을 물들이는 약속
169 장려상 | 포천교육지원청 청렴송(푸른속삭임)
169 장려상 |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01 시나리오 분야



대상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최우수상

높은 분이 또 오신다고요?

어느 교무실

우수상

111,100원

나비 효과

그 해 여름

장려상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티끌의 가치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 홍유기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영주<39세(남) 공직생활 9년 차 무주택 공무원> / 수민<41세(여) 영주의 2년 된 여자친구> / 어머니<영주의 어머니, 영주에게 깨달음을 주는 인물> / 청년주택<영주가 지원한 청년주택 심사담당자> / 동료A<영주의 직장동료> / 주민센터<영주의 거주지 주민센터 직원> / 동료B<영주의 직장동료> / 총무과<영주가 근무하는 곳의 총무과 수당 담당자> / 민원인<취득세 신고를 위해 영주를 찾아온 민원인> / 콜센터<영주가 지원한 청년주택 콜센터 상담사> / 팀장<영주의 팀장> / 실태조사<영주의 거주지 주민센터 실제거주 조사담당자> / 감사과<영주가 근무하는 곳의 감사부서 재산신고 담당자> / 최계장<51세(남), 영주의 선배 과거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있음>

시놉시스

【기】공직생활 9년 차, 고시원 생활도 9년 차로 접어든다. 상경하여 서울 도심권에서 생활하는 영주에게 집은 늘 아픈 손가락이었다. 집을 사는 것은 애당초 여건이 되지 않았고 남들 다 하는 전세라도 구하려고 하면 영주에겐 전세보증금 마련도 여의찮았다. 그런 영주는 공직 초기부터 고시원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동료, 연인 심지어 민원인에게 받았던 설움은 영주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있었다.

【승】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청년주택 모집공고에 희망을 엿보게 된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무주택, 무차량 요건은 성립되었지만, 건강보험 보수월액 소득요건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된 영주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린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옮겨 놓아 소득요건을 맞추려는 계획이었다. 1인 소득이 아닌 2인 소득으로 지원하려는 것이었다.

【전】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어머니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청년주택에 지원하여 당연히 심사대상자로 선정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과는 달리 ‘낙첨’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 지원자가 많아 추천에서 밀려난 것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끝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부모 봉양 목적으로 근무지에서 받게 되는 가족수당, 복지포인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것으로 그나마 위안으로 삼으려 하는 영주였다.

【결】그러나 뉴스와 신문 기사의 위장전입과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내용을 접하며 본인이 계획했던 일들이 공직자로서 올바른 방향이 아님을 점차 깨달아간다. 고위 공직자만이 아닌 공공의 일을 하는 자라면, 나아가 모든 이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거나 거주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님을 당연히 인지하고 지켜야 함을 느껴가고 있었다. 영주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다시 고향으로 복귀시켜 놓고 받았던 수당은 기관에 자진 반납한다. 그렇게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는 영주에게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그 빛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장소(무대)

성인 남자 한 명이 누우면 더는 공간이 없어 보이는 1.5평짜리 고시원 방에 조명이 서서히 들어온다. 방 한편에는 노트북 한 대와 책 몇 권, 먹다 남은 라면 봉지가 놓여 있다. 반대편에는 일주일 치 빨래가 밀려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다. 영주는 오늘도 야근 후 밤 10시가 돼서야 퇴근하고 고시원에 도착해 방문을 연다. 유난히 오늘 더 적막하게 느껴지는 방의 스산한 기운이 영주를 눈물짓게 한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중 오랜만에 어머니에게서 걸려 온 번호가 영주의 눈물을 잠시 멈춘다.

S#1. 영주의 고시원 방(늦은 밤)

어머니 :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아직도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는 거지? 내가 미안하구나. 전셋집이라도 구해줘야 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영주 : (애써 담당한 표정으로) 아니에요. 제가 벌어서 해야죠. 근데 말처럼 쉽지 않네요. 10년 가까이 근무하면 될 것 같았는데.. 조금 더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죠. 그래서 자그마한 전셋집이라도 들어가야죠.. (통화가 끝나고) 서울에서의 공직생활이 10년이 다 되어가도 내 집 마련의 꿈은 고사하고 전셋집 얻기도 너무나 버겁네. 세상이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걸어가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으로 오늘 새벽을 또 지새워야겠네..

어머니와의 통화가 끝난 후 영주는 한참을 생각에 빠진다. 그리곤 억지로 잠을 청한다. 다음날 어느 때처럼 일찍 출근한 영주는 책상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고민을 떠올린다.

영주 : (독백) 어떻게 이 고시원만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마땅치가 않네. 동료들은 자꾸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나도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 같아 견디기 힘드네.

S#2. 영주의 사무실(오전)

그런 시름으로 하루하루 업무를 하던 중 영주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알아차린다.

동료A : (동료B를 향해) 영주씨 그 직원, 아직도 그 고시원에 산다며? 어쩐지 케케묵은 냄새가 난다더니, 홀아비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대체 언제까지 거기에 산다고 그러디?

동료B : 나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이사를 하라고 충고했는데도, 아직 저러고 있다니까? 저 사람은 여기하고 도통 어울리지 않아. 어느 정도는 기본은 돼야 동료들하고도 어울리지, 그거 알아? 간혹 민원인들도 저 친구 행색을 보고 가볍게 본다는 거, 괜히 우리까지 그렇게 보일까 봐 걱정돼, 저런 직원이 우리하고 같이 일한다니 참.... 사람이 착해서 대놓고 뭐라고 하면 상처받을까 싶어 그러지도 못하고....

영주는 요즘 부쩍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런 따사로움에 이제 적응이 된 듯 개의치 않고 일을 이어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의문스러운 한 민원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민원인 : (약간은 날카로운 음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한번 통화를 한 기억이 나십니까? 저 취득세 신고를 하겠다고 통화한 ○○○입니다. ○○○주무관님 맞으시죠?

영주 : 네, 제가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민원인 : (영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왜 전화로 문의했을 때 취득신고가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서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대체 세금을 낸다는 사람을 가로막는 이유가 뭡니까?

영주 : (민원인의 높은 언성에도 굴하지 않고)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고율의 세율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뜻인 낮은 세율로 신고납부를 하는 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전세계약서는 가족 간에 체결된 가공 채무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까?

민원인 : 자그마치 4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의 체결입니다. 가족 간에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민법상에도 자유계약 의지에 따라 허용되는 것을 왜 주무관님은 안 된다고 합니까?

민원인의 파상공세에 잠시 소강상태가 지속된다. 그리고 민원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이어간다.

민원인 : 혹시 주무관님?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계십니까? 보아하니 설마 월세로 사는 겁니까?

영주 : (굳이 대답할 이유도 없지만, 짐짓 놀라며) 저는 40만 원짜리 월세방에...

영주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이어나가다 아차 싶어 중도에 멈춘다.

민원인 : 아 월세 40만 원이요? 40억이나 되는 전세보증금 체결을 살면서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거였군요. 하하! 거래 잘못되면 주무관님이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40만 원짜리 월세방에 전전공금하면서 도대체 이 정도 규모의 거래에 왜 상관하냐고요!

영주는 더는 대항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민원인의 드센 공세에 홀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해 팀장님을 찾아간다. 그리고 팀장님과의 협의 후 납세자 보호 우선 원칙주의에 따라 일단 신고를 접수한다. 그리고 뒤이어 민원인이 사무실을 빠져나간 후 멀찍이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팀장 : 영주씨, 드센 민원인 응대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고생했어,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영주 :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괜히 제가 저렇게 큰 전세보증금 앞에서 괜히 움츠러들어 신고를 받아 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처리를 잘한 것이 맞는 거 같네요. 이제 제 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주는 자리에 돌아와 고개를 푹 숙인다. 민원인이 돌아간 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자신이 40만 원 월세 고시원에 산다는 것을 얼떨결에 답한 것과 민원인이 40억이나 하는 전세보증금의 주택에 산다는 현실이 자신과 너무나 대비돼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모습인 듯하다.

영주 : (독백) 민원인한테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되다니, 왜 난 그 순간에 40만 원 월세방에 산다고 얘기를 꺼낸 걸까, 바보같이, 그래서 날 더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언행을 보인 것일 수도 있어. 아, 하루빨리 고시원을 떠나든가 해야지. 동료, 민원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어..

그런 한숨이 가득해져 갈 때 감사부서에서 뜻밖의 전화가 수신되었다.

감사과 : ○○○주임님이시죠? 여쭙볼 게 있어서.. 이번에 재산신고 하신 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주 : 네 주임님, 혹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몇 번이고 확인했는데 틀린 부분이라도?

영주는 감사과의 전화를 받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감에 휩싸여 수화기에 귀를 더 가까이 댄다.

감사과 : 다름이 아니라 전세보증금 신고가 누락되었어요. 그 부분이 전산에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라고 판단하여 넘어가지만, 내년 신고부터는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영주 : (조금의 지체도 없이 허탈한 웃음을 보이며) 아 주임님,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그러니까..(순간 고시원이란 단어가 나올 뻔한 것을 힘껏 누르며) 그... 월세방에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보증금 신고를 안 한 것이 맞는 거죠.

영주는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웬지 모를 씁쓸함에 젖는다.

감사과 :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바쁘신데 죄송했어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재산신고 담당자는 대략 영주의 처지를 아는 듯했다. 그래도 애써 모른 체했다. 평소 성실하고 착실히 근무하는 영주에게 웬지 모를 서러움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영주는 재산신고 담당자와의 통화 후 자신의 처지를 더 비관하게 된다. 힘에 겨워 직장마저 그만두고 싶은 심정까지 다다른 영주는 연인 관계인 수민에게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전화를 건다.

S#3. 직원 휴게실

영주 : 퇴근은 했어? 저녁은 먹었고?

수민 : 지금 퇴근 중이야, 어 근데 영주야? 나 며칠 전에 얘기한 거 있잖아, 생각해봤어? 네 집에 한번 놀러 가고 싶다는 말, 넌 우리 집은 놀러 오면서 왜 네 집은 못 가게 하는 거야? 집에 꿀 숨겨 놓은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나눠 먹자!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영주 : (한참을 생각한 후) 아.. 집 정리를 안 해놓아서 어지러운 상태야. 남자 혼자 사는 집이 다 그렇잖아, 괜히 그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 거니 이해해줘..

수민 : (강한 의지를 다지며) 도대체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러는 거야,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야? 집 정리 안 되어도 괜찮아 다 이해해, 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도 안 돼? (농담 삼아) 너 나한테서 마음이 떠났구나.. 솔직히 말해봐?

자신이 고시원에 산다는 것을 수민이 알면 실망할 거라는 것을 알기에 어떻게든 막아보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는 버틸 수가 없음을 감지한 영주의 모습이다.

영주 : (조심스레 말문을 열며) 그래 알았어, 정 그렇다면 내일 퇴근 후에 와, 약속 하나만 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내도 이해 해 줄 거라는 약속 말이야..

수민 : (기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당연하지! 그럼 내일 퇴근하고 봐!

S#4. 영주의 고시원 건물 입구(저녁 무렵)

유난히 시간이 더 빨리 찾아온 건 같은 그날, 영주는 수민을 마중하러 나간다. 반갑게 달려오는 수민의 모습에 영주의 얼굴은 점점 상기되어간다. 그리고 4층에 있는 영주의 방에 같이 올라간다.

수민 : 꽤 높네, 아직 멀었어?

영주 : 이제 다 왔어, 여기야.. (방문을 열며) 여기야.. 여기

수민 :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며) 아.. 여기구나.. 음... 냉장고는 어디.. 아 여기 작은 냉장고..

영주 : 자, 이제 방 보여줬으니 됐지? 아직 저녁 전이지?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수민 : (무언가 떠오른 듯한 놀란 얼굴을 하며) 아.. 생각해보니 내가 급한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었네, 저녁은 다음에 하자, 나 먼저 갈게.. 연락할게..

영주는 수민의 그 말이 마지막이란 걸 직감했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전화를 한다.

S#5. 영주의 사무실 복도(오전)

영주 : (수화기를 몇 번 들었다 놓으며) 도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내가 사는 방을 보고 실망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수민이는 그런 거 이해해줄 사람이야, 괜히 의심하지 말자,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거의 온종일 전화해도 수민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자꾸 자리를 비운다는 동료들의 핀잔에도 영주는 연신 복도 끝에서 전화를 놓지 않는다. 그날 저녁 한 통의 문자가 영주를 허탈하게 한다.

수민 : (휴대전화의 문자를 보며) 영주야, 미안해, 사실 어제 네가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 사이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 물론 우리는 서로를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 그동안 고마웠어, 넌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잘 지내..

영주는 어떤 답장도 하지 못한다. 그 마음엔 부끄러움과 주책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책감이 이리저리 혼재된 복잡한 마음이었다. 그 후 영주는 부쩍 자주 술로 밤을 보내며 직장에 늦게 출근하거나 심지어 결근하는 적도 찾아졌다. 평소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동료들은 그런 영주가 게임에 빠졌거나, 주식에 손실을 많이 입었다는 이상한 소문으로 측은해한다. 그런 낙

은해한다. 그런 낙담으로 또다시 하루를 보내던 어느 순간이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영주는 인터넷에서 전셋집을 열람 알아보던 차 우연히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년주택 모집공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영주 : (독백) 아,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왜 난 여태껏 몰랐지? 나이 요건이 되니까 신청하면 되겠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군!

절망에서 환희로 그 모습이 변하게 된 영주는 기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다.

영주 : 어머니! 저 이제 고시원을 벗어나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 (놀란 표정으로) 아 그래? 급하게 구한 것을 보니 혹시 요새 전세 사기가 많다던데 그런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고 해야 할 텐데..

영주 :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거라서 전세보증금 떼일 염려도 없고 4년 정도는 낮은 월세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지금 내는 월세의 1/5 수준이에요. 그동안 월세 낸 것만 해도 너무 아깝네요.

어머니 : 국가에서 시행하는 거라고 하니 마음이 놓이는구나. 그래도 한 번 더 알아보고,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좀 더 넓은 방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니 참 흐뭇하구나.

어머니와의 감격스러운 통화가 끝난 다음 날, 영주는 인터넷으로 청년주택 모집공고에 응시하려고 한다. 그때 모집 요강 내용을 보고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영주 : (근심 섞인 표정으로) 음.. 나는 차도 없고, 주택도 없고, 주소지도 ○○시 ○○구로 되어 있으니 적합한데, 소득요건이 참 애매하네. 이걸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봐야겠다.

영주는 모집공고를 낸 ○○○기관 담당자 전화한다.

청년주택 :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영주 : 다름이 아니라 이번 청년주택 모집공고의 소득요건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1인 가구이고 소득은 ○○○원인데 혹시 대상이 되나요?

청년주택 : 1인 가구라면 세대주이신가요? 그렇다면 모집 요강의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말씀하신 소득은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본인께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하시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영주 : (풀 죽은 목소리로) 아.. 네... 감사합니다.

영주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진다. 급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본인의 보수월액을 확인하고 모집 요강의 소득요건과 비교해본다. 본인의 소득이 요건을 초과하는 것을 보고 털썩 주저앉는다.

영주 : (독백)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소득요건 때문에 안 되는 건가? 난 차도 없고 주택도 없는데, 다만 근무를 오래 해서 보수월액만 높은 것인데 왜 내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렇게 난 지원도 못 해보고 단념해야 하는 걸까...

영주는 절호의 기회가 사라졌다는 아쉬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불현듯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다시 공고의 모집 요강을 천천히 들여다본다.

영주 : (독백) 맞아! 1인 가구 소득은 총족이 안 되지만 2인 가구라면 얘기가 달라지지, 생각해 보면 고향에 계신 어머니 주소를 나한테 옮겨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하면 2인 가구 소득으로 볼 수 있으니 청년주택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 거지!

영주의 눈빛이 다시 새록새록 해진다. 들뜬 마음으로 다시 영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영주 : 어머니! 저 얼마 전에 청년주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원하려면 여러 요건이 있어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차도 없는데 다만, 1인 소득 기준이 초과하셔서 어머니가 주소지를 저한테로 옮겨 놓으셔야 할 거 같아요. 그러면 2인 가구 소득이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요건 자체가 어려우니까 신청만 하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 그래, 영주 네가 잘된다면야 주소지 옮기는 것쯤은 당연히 해야지, 무얼 준비하면 되는 거니? 내가 직접 서울로 가면 되는 거니?

영주 : (순간 다른 걱정이 깃든 모습으로) 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소를 옮기면 어머니께서 백신주사 맞는 것도 서울에서 받으셔야 하고 곧 있으면 선거인데 아버지하고 떨어져 서울에서 하셔야 하고 혈압약도 고향에서 처방을 못 받고 서울에서 받으셔야 하고...

영주는 이런저런 생각에 주소지를 옮기는 의지를 순간 멈칫하게 된다.

어머니 : 그런 건 염려 말려무나, 그거야 뭐 서울에서 다 하면 되지, 혹시 신경이 많이 쓰인다면 내가 한번 약 짓는 거 서울에서 가능한지 알아보마, 주사 맞고 투표하는 거야 서울에서 하는 거나 고향에서 하는 거나 매한가지지.

영주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듯 무척 고마워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대신해 전입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한다.

영주 : 어머니를 대신해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민센터 : 위임장, 본인의 신분증, 어머니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 : 네 감사합니다. 곧 방문하겠습니다.

S#6. 다음날 출근 후 사무실 근처 인쇄사, 주민센터(점심시간)

영주는 어머니의 도장을 만들기 위해 인근 인쇄사에 들린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10분간 접수처리를 한 후 활기찬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빠져나온다.

영주 : (독백) 어머니는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2인 가구에 내 소득만 확인되는 결과가 되어 소득요건도 충족되니 이제 신청만 남았구나!

S#7. 영주의 사무실(오후)

영주는 청년주택 모집공고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서로 접속한다. 다시 한번 중요한 소득요건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각 항목을 선택한 후 최종 지원 버튼을 마우스로 클릭한다.

영주 : (독백) 자 이제 신청했으니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발표는 다음 주네, 얼른 발표돼서 입주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기다림은 견딜 수 있지!

영주는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라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인다.

영주 : (독백) 아! 생각해보니 어머니 주소가 나와 같으면 부양가족으로 해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도 받을 수 있었지, 얼른 총무과에 문의해서 소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영주는 총무과 담당자의 다이얼을 세차게 누른다.

영주 : 아! 담당자님 저 ○○○주무관입니다. 여쭙볼 게 있어서, 제 어머니께서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셨는데 그럼 올해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죠?

총무과 : 주임님, 네 그렇습니다. 공문 보내주시면 확인 후 다음 달에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영주는 어머니의 주소지를 본인의 주소지로 옮긴 후 하나둘 금전적인 이득이 생기는 것을 보고 진작 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 일주일 후, 지원했던 청년주택의 심사대상자 공고 결과를 확인해본다.

영주 : (고개를 가우뚱거리며) 어? 이상하다. 심사대상자는 분명 안내 문자도 온다고 했는데, 난 왜 발표 시각인 17시가 되었는데도 아직 문자가 안 왔지? 혹시 누락되었나.. 하긴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이트에 올라온 명단을 보자..

한참을 심사대상자 명단을 보던 영주는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진다.

영주 : 아! 역시 이름이 있네! 어? 근데 이상해, 생년월일이 다르네, 동명이인인가? 대체 뭐지?

영주는 상담콜센터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 문의한다.

영주 : 안녕하세요? 이번 청년주택에 지원한 신청자입니다. 심사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 같은데 생년월일은 다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콜센터 : 아 혹시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죠?

영주 : xxxxxx-1xxxxxx입니다.

콜센터 : (전산을 확인한 후) 아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분입니다. 접수번호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선생님의 접수번호는 ○○○○인데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그 접수번호가 아닙니다.

영주 : (충격에 빠진 기색이 역력한 듯 말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주세요. 분명 제 이름이 있었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1순위 요건이 되니까 분명 심사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콜센터 : (영주를 진정시키며) 네 선생님 말씀대로 1순위 요건으로 신청하셨기에 맞습니다. 하지만 1순위 대상자가 워낙 많아서 모두가 다 심사대상자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접수번호로 확인하셔야 정확한 결과를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영주 : (상담사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주는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다른 상담사에게도 전화를 여러 차례 걸어 사실을 재확인한다. 상담사 모두 같은 답변에 영주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영주 : (독백)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거지? 분명 소득요건이 2인 가구라 요건이 되는데도 왜 심사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거지? 착오가 있었을 거야, 담당자를 직접 찾아가야겠다.

S#8. ○○○○공사 청년주택 부서(오전 9시경)

다음날 영주는 급히 연가를 내고 ○○○○기관의 심사담당자를 직접 찾아가간다. 기관의 업무가 시작되는 9시가 되자마자 허겁지겁 담당자를 찾는다.

영주 : ○○○○담당자를 찾습니다. 청년주택 심사담당자를 찾는다고요!

평소 영주에게서 보기 힘든 다급함과 약간의 무례함이 진하게 묻어 나온다.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은 영주를 담당자에게로 안내한다.

영주 : 저 이번 청년주택 지원자입니다. 저는 주택도 없고, 차도 없으며, 소득요건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심사대상자 명단에 제가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자격이 되는데 왜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건가요?

청년주택 : 아.. 저번에 통화 여러 번 했던 분 같은데.. 잠시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앉아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접수번호를 물어 전산으로 확인 후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말한다.

청년주택 : 선생님의 경우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산 무작위로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은 선정되지 않으신 겁니다.

영주는 분명 모집공고문을 몇 번이고 살펴보고 또 확인하였지만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만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였을 때 담당자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더는 말을 이어 나갈 수 없었다.

영주 : (어금니를 꼭 깨물며)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3배수 안의 심사대상자 중에서 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모집하는 거군요?

청년주택 :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합니다.

영주 : 그럼 요건이 되어도 지원자 수가 많으면 운이라는 부분이 작용하는군요...

청년주택 : (영주의 말이 맞지만, 그 어떤 답도 않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네..

S#9. 기관을 빠져나온 후 인근 식당(오전)

영주는 힘없이 기관을 빠져나온다. 아직 대낮이지만 술을 마시러 근처 식당으로 향한다. 혼술, 그것도 낮부터 시작된 광경은 영주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영주는 술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마셔대기 시작한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 씻지도 않은 채 잠들고 만다. 다음날 몸과 맘이 피곤했던 영주는 가까스로 출근한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조금 흐른 후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니였다.

S#10. 영주의 사무실(오전)

어머니 : 영주야, 지난번 신청한 청년주택은 어떻게 되었니? 잘 진행되었니?

영주 : (한참을 머뭇거리며) 아, 탈락했어요. 생각보다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추첨을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약간은 흐느끼는듯한 영주의 모습을 어머니는 훤히 알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 :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번만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닐 거야.

영주 : 그렇긴 하지만 지원자 수가 워낙 많으니 쉽지 않네요. 더군다나 신청을 위해 어머니 주소지까지 옮기는 고생을 했는데, 죄송하고 마음이 참 그렇네요.

영주는 어머니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업무에 임한다. 낮빛은 매일 어둠으로 채워져 간다.

영주 : (독백) 청년주택은 뭐 다음 기회에 또 신청을 해봐야겠고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는 꼭 받아야지, 그건 요건이 되는 거니까....

다음 달 통장으로 입금된 수당을 보며 1년 치료 계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되는 것을 보고 약간의 미소를 되찾는다. 그리고 다음 날 출근 후 오전 출장이 있어 현장으로 출동한다. 출장이 끝나고 복귀하려던 찰나 낯선 전화번호가 찍힌 것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던 영주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S#11. 출장지(사무실에서 약 30분 거리)

영주 : (독백) 평소 같으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는 당연히 안 받을 텐데, 요새 스팸 번호가 워낙 많아야 말이지, 근데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이네? 우리 사무실 직원의 번호일 수도 있잖아. 출장이라 긴급히 연락한 것일 수도 있고...

영주는 조심스레 수신 버튼을 눌러본다. 이윽고 낯선 목소리는 영주를 더욱 긴장케 한다.

실태조사 : 혹시 ○○○씨 아니세요?

영주 : 아닌데요. (멈칫한 후 무언가 떠오른 듯) 저희 어머니 존함이신데, 무슨 일이시죠?

영주는 본인의 휴대전화로 어머니를 찾는 사람이 몹시 궁금해졌다.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어간다.

실태조사 : 집 앞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서요. 어머니 안 계세요?

영주 : 저희 어머니를 왜 찾으시...(말이 끝나기도 전에 놀란 입을 틀어막으며) 아, 저희 어머니는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지방에 내려가 계십니다.

영주는 그제야 어머니가 본인의 주소로 전입 신고한 것을 떠올렸다. 상대의 신분을 다급히 묻는다.

영주 : 그런데 혹시 누구시죠?

실태조사 : 아 주민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하셔서 정기 점검차 실제 거주 여부 보고를 해야 해서 어머니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에 가 계시다니 별수 없군요.

영주 : (숨을 고르며)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대신 서명을 할 순 없나요? (무언가 떠오른 듯 다시 말을 바꾸며) 아니 저도 지금 업무차 외부에 있어서 집에 갈 시간이 안 됩니다. 이 통화로 그것을 갈음할 순 없나요?

실태조사 :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네 가능합니다. 통화 이력으로도 입증할 수 있으니 그럼 서명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게요. 어머니는 지방에 잠시 내려가 계신 거죠?

영주 : (약간은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반복하며)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태조사 :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다음 점검 때 또 찾아뵙죠. (전화를 끊으려다 멈칫하며)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요.. 요새 무단전출자가 많아서 직권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 이런 부분에 유의하시어 피해가 없으시도록..

영주 : (애써 태연한 척) 네, 말씀 감사합니다만.. 저하고는 상관없는... 감사합니다.

S#12. 영주의 사무실

영주는 통화가 끝나자마자 사무실로 얼른 복귀 후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그리고 '무단전출 직권말소'라는 용어를 끊임없이 찾아본다. 얼마 후 황급히 전입신고한 주민센터로 전화를 한다.

영주 : 담당자님, 저 여쭙볼 게 있어서요.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주택청약 때문에 부모님 주소지를 친구 주소지로 옮겨 놓고요. 실제 부모님께서 거주하지는 않고, 그러면 그..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되는 건가요?

주민센터 : 아, 주민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장전입신고를 하면 당연히 무단전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사유를 소명하면 되긴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니까요.. 주무관님이 아니라 친구분 얘기라고 하셨죠? 혹시 친구분 주소지가...? 관할 주민센터를 안내해 드릴게요.

영주 : (짐짓 놀라며) 아.. 아닙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통화가 끝나고 자신을 심하게 책망하며) 내가 지금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거야, 청년주택 지원을 위해 어머니가 무단전출 직권말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 그깟 주택이 뭐라고!

영주는 급히 통화를 종료하고 가까스로 마음을 추스른 후 평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자주 청했던 최계장을 찾아간다. 다짜고짜 여러 물음표를 던지는 영주와는 달리 침착한 최계장의 모습이다.

S#13. 감사부서(영주의 사무실 위층)

영주 : 최계장님, 저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해요? 주민센터는 왜 점검을 나오는 거죠? 오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요? 제 공직생활에 흠결이라도 생기는 건가요?

최계장 : 원래 전입신고를 하면 형식적으로 실제 거주 여부 조사를 해, 당연히 규정상으로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영주씨와 같은 경우처럼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지, 청약주택에 당첨되기 위한 절차로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해, 걱정할

거 없어, 그런 전화 올 때마다 오늘과 같이 그렇게 대응하면 그만이지.

영주 : (다소 안심이 되는 듯한 목소리로) 아, 그럼 다행이네요. 그 전화 받고 하마터면 사실 그대로 말할 뻔했어요. 다행히 지방에 잠시 내려가 계신다고 말해서 천만다행이네요.

최계장은 영주의 모습이 하찮게 보이는 듯 다시 사무실로 유유히 들어간다. 영주도 사무실로 복귀해 일과를 이어간다. 유난히 바쁜 시기인 요즘 그날은 더욱 늦은 시간에 퇴근하게 된다. 시원한 물로 샤워한 후 누워 잠들기 전 휴대폰의 인터넷 기사를 살펴본다. 그리고 평소엔 시선을 두지 않았던 사회면의 한 기사를 접하게 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현장에서 과거 위장전입 신고가 화두가 되어 임명되느냐, 안 되느냐로 갑론을박이 벌어진 기사였다. 평소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면 위장전입은 아무런 해(害)도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영주였지만 왠지 모를 묘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

S#14. 영주의 고시원 방(늦은 저녁)

영주 : (독백) 위장전입 때문에 장관 자리에 임명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게 무슨 돈을 훔친 거나, 누군가를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런 걸로 장관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지? (무언가가 떠오른 듯) 내가 이번에 어머니 주소를 나한테로 옮긴 것이 그 위장전입이란 건가? 아니, 난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별 상관도 없잖아, 고위공직자야 장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나 같은 공무원은 뭐 신경 쓸 이유도 없지.. 에이 괜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잠이나 자자..

S#15. 영주의 사무실(오전)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영주는 잠이 들다깨다를 반복하며 그 기사를 쉽게 잊지 못한다. 잠을 설친 탓인지 게슴츠레한 모습으로 출근한 영주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를 접한다. '청약주택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6세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 조치당함'이라는 기사는 큰 글씨로 표기를 굳이 하지 않았더라도 강렬한 인상을 영주에게 안겨준다. 우선 공급요건, 가점 이득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몇몇 자들이 징역형에 처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을 가져다준다.

영주 : (독백) 고발? 가족 간 전입 신고하는 거로 무슨 고발까지? 청약가점을 위해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 간 전입 신고하는 건 공공연히 암묵적으로 다들 하는 거잖아? 무슨 범죄도 아닌데 국가에서 고발까지? 그럼 그렇게 한 사람들 다 고발당해야 말이 맞는 거지, 일부만 운이 없게 적발돼서 그런 거 아니야? 이 기사가 맞긴 맞는 건가 나 참..

영주는 별것 아니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였지만, 급격히 불안증세를 느껴간다. 무언가 자신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듯한 심경이었다. 그리고 조금 후 총무과에서 걸려 온 전화가 영주의 마음을 더욱더 뒤흔들게 된다.

총무과 : 주무관님? 얼마 전에 통화했던 수당 담당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당 적정 수령 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번에 주무관님도 수당을 받으셔서 점검표를 드릴 테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주 :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괜히 큰소리를 내며) 아니... 왜 .. 제가 제출해야 하죠? 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잘못된 게 없다고요...

총무과 : (영주를 진정시키며) 아, 주임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임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의 실소를 보이며) 설마 주임님 같은 분이 위장전입 같은 걸로 수당을 타실 분도 아닌 거 제가 더 잘 하는데, 기분 나빠 마시고 간단히 작성해서 주시지만 하면 됩니다. 내일까지니까 시간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영주 : (조금 전의 언성을 후회하며) 주임님, 제가 오늘 민원 때문에 피곤해서 괜히 언성을 높였네요. 죄송합니다. 자료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영주는 서류를 작성하다 멈추고, 다시 작성하다 멈추고를 반복한다. 단 1분이면 작성할 수 있는 그 서류를 영주는 1시간 넘게 고민하고 있었다.

영주 : (억지로 침착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며) 난 관찮을 거야, 위장전입이라고 해두자, 그렇다고 그것으로 청년주택에 당첨이 된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겠어? 그걸 이용해 이득을 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순간 머리를 '탁' 치는 듯한 고통이 밀려온다.) 그런데, 혹시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는.. 괜히 신청했다가 어머니가 실제로 살지도 않는데 점검에서 적발되면 어찌지? (잠시 고민하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네,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괜한 오지랖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서류나 작성하자...

영주는 혼자 이리저리 고민에 휩싸였지만 결국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결정으로 마음을 억누르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의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그리고 커지는 것을 점점 알아차려 간다. 곧이어 점심을 먹으러 사무실 근처 모 식당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옆 테이블에서 뉴스를 접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동료들의 모습에 집중하게 된다.

S#16. 사무실 인근 식당(점심시간)

동료A : (동료B를 바라보며) 저 뉴스 봤어? ○○○ 지자체 공무원이 위장전입으로 주택청약이 되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다가 1년 후인가,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되어서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잖아, (혀를 꿀꿀 차며) 직원들한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더니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동료B : 아니에요. 그렇게 운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제 주변엔 잘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걸요? 보통은 다 부(富)가 생기고 좋은 거죠. 안 그래? 영주씨 생각은 어때?

영주 : 아 네... 그렇죠 뭐 주택에 청약되면 좋은 거죠... 뭐...

동료A : 영주씨? 왜 그리 말을 더듬어? 마치 주택청약을 위해 위장 전입신고 한 사람마냥.. 하하

동료B : (미소를 보이며) 영주씨가 배가 고파서 그런가 봐요. 얼른 밥이나 먹죠.

S#17. 영주의 사무실(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영주는 그날 점심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점심 후 차 한잔하자는 동료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사무실로 일찍이 들어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주택청약을 위한 위장전입’, ‘위장전입 공무원’, ‘위장전입 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위장전입에 연루된 공직자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

영주는 검색할 때마다 나오는 여러 기사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 검색을 이어갈수록 심호흡은 가빠지고 눈의 초점은 흐트러져 간다. 그런데도 영주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자기 일이라고 점차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의 업무가 종료된 저녁 6시가 훌쩍 넘은 시간,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하였지만, 영주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같이 저녁 식사나 하자는 팀장님의 권유에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하고 영주는 많은 것을 떠올린다.

영주 : (깊은 깨달음에 흐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입술을 꼭 다물며) 위장전입이란 것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옳지 못한 행동이었구나, 왜 난 이제껏 그 중요함을 모르고 지냈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연히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생각해 보니 청년주택에 당첨 안 되었다는 그 사실로 내가 한 행동들이 그저 과거의 일로만 묻히는 건 아닌 것 같아, 비록 그것으로 내가 청약된 건 아니지만 난 바르지 못한 과정을 선택하였고 그것으로 이득마저 볼 수 있었던 거잖아, (입술을 꼭 깨물며) 맞아, 나와 같은 상황에서 정정당당히 자신의 자격대로 지원한 사람과, 우회적·편법적 방법으로 지원한 나는 당연히 다른 것이었어,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더욱 선도적 위치에서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나의 이익을 위해 어떤 방법을 마다치 않았던 나의 그 방향이 가장 큰 문제였던 거지, (무언가 떠오른 듯) 이제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으니 우선 그것부터 하자!

영주 : (총무과에 보낸 수당 요청 공문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비록 형식적으로는 가족수당 요건에 맞긴 하지만, 부정수급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실제로 어머니가 거주하지도 않는데 나의 주소지로 옮겨놓고 수당을 얻게 된다면 국가가 진정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그 취지에도 어긋날뿐더러, 정작 수당을 받아야 할 직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거야.

다음날 영주는 얼마 전 찾았던 최계장에게 다시 향한다. 그리고 숨을 깊게 고르며 말을 꺼낸다.

S#18. 감사부서(영주의 사무실 위층)

영주 : 최계장님, 저 수당 신청한 거 다시 해지 신청하려고요. 청년주택 청약을 위해 어머니 주소지를 옮겨 놓은 건데, 그게 잘 안 되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신경이 계속 쓰여요. 차라리 그 수당 안 받아도 되니까 다시

예전처럼 어머니 주소지 복귀시켜 놓으려고요. 그래야 맘이 놓일 거 같아요.

최계장 : (영주의 맘을 이미 꿰뚫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래 네 맘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내 생각은 그냥 나중에 다시 주택청약 같은 걸 위해서 두면 좋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아니다. 네 맘 가는 대로 해.

영주 : 그런데 최계장님은 감사과에 근무하셨으니까 묻는 건데요. 제가 받은 한 달분 수당,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지 않을까요?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닌 위장 전입신고로 받은 수당, 그 수당 때문에 저 감사에 적발되는 게 아닐까요? 최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대답해 주세요.

최계장 : (영주가 귀엽다는 듯) 야 인마! 됐어,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잠이나 더 자라!

최계장은 다시 유유히 사무실로 복귀한다. 영주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해지 신청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는 전화를 한다.

S#19. 영주의 사무실(오전)

영주 : 총무과 ○○○주임님이시죠? 저 약 한 달 전에 신청한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해지하려고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가능할까요?

총무과 : 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받았던 수당 등은 다시 반납하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무슨 문제라도?

영주 : 아... 문제없습니다. 개인 사정상 그렇게 됐어요. 당연히 수당은 반납해야죠. 그럼 공문 작성하여 요청하겠습니다. 바쁘신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주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수당은 해지하지 말고 그냥 둘까? 라는 맘이 끝끝내 영주의 결정을 흔들고 있었지만, 영주의 맘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그리곤 어머니에게 전화한다.

영주 : 어머니 저 괜히 어머니 주소지 제 주소지로 옮겼나 봐요. 결국엔 청년주택도 안 되었고 수당 신청한 것도 있는데 맘이 쓰여 다시 취소했어요. 어머니 주소지를 왜 저한테 옮겨놓았나 싶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후회만 남네요. 그냥 그대로 둘걸.. (울먹이며) 그리고 저 때문에 어머니가 생전 겪어보지도 못한 무단전출 직권말소자라는 오명을 받을 뻔해서.. 자식으로서 참 불효가 막심했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런 영주의 맘을 다 안다는 듯 수화기 너머로 격려의 말을 건넨다.

어머니 : 난 다 알고 있었단다. 주소지를 옮기면 실태조사를 나오는 것도, 그리고 네 맘이 쓰일 것도 다 알고 있었단다.

영주 : (놀란 듯한 기색을 보이며)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머니 주소지 옮기는 일도 없었을 거고 이런 실망도 그리고 수당을 신청하고 반납하는 번거로움도 애초에 없었을 텐데....

영주는 어머니의 의중이 몹시 궁금해졌다.

어머니 : 비록 청년주택은 당첨이 안 되었고 이 과정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영주 네가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영주 네가 현재 고위공무원이 아니라서 위장 전입신고가 지금 당장 네 공직생활에 큰 흠결이 되지 않을 수는 있어, 하지만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다른 부분에서 착실한 과정을 밟아왔더라도 이러한 점 때문에 결격사유가 돼 결국 공직생활의 명운이 달라지는 경우를 너도 보아왔을 거야, 그런데 비단 이 문제는 고위공직자라는 부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란다. 공직자라면 누구나 청렴결백이 국민의 눈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해, 청렴은 일부 공직자에게 주어진 의무가 아닌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진 처음이자 마지막 사명감인 거지..

영주는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말에 답한다.

영주 :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어야 했어요. 이 과정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라도 청렴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것이 크든 작든 저 스스로 근절해야겠어요. 비록 눈앞의 이익 때문에 그것이 멀게 느껴지더라도 제가 자중하여 근신한다면 진정한 청렴의 모습은 제게도 나타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제가 공직자의 길을 가는 이유고, 또 가야만 하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 그래, 조금은 더디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를 헤쳐나가야 그 결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꼭 규정을 벗어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자중하여 형성된 청렴 의식이 공직자로서 영주 네가 늘 간직해야 할 덕목이란 것을 이번 기회에 더욱 깊게 새겨놓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의 불편함은 계속 남아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영주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큰 교훈이 될 것이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우스갯소리이지만 잠시 잠깐 영주 너의 주소로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니 아들하고 같이 서울에 살아 본 경험도 되지 않았니? 나한테도 참 특별한 경험이었단다.

어머니는 영주의 깨우침에 크게 흐뭇해하며 대견해한다. 영주는 어머니의 말씀 하나하나에 깊은 감명에 잠기기도 하고 마지막 말에는 약간의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어머니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등본에 단 한 줄의 이력만을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머니의 '특별한 전입신고' 그것은 어쩌면 영주가 진정한 공직자로 거듭나려는 새로운 출발선이었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영주에게는 청약주택의 당첨도, 가족수당의 수령도 가져오지 못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영주에게 안겨 주었다. 공정과 정의, 올바름을 바탕으로 한 과정만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로서 더욱 그것을 안고 나아가야 함을 절실히 깨달은 그 감정을 말이다. 영주의 얼굴에 묻어 나오는 환한 미소와 함께 커튼이 내려지며 조명이 점차 어두워진다.

<끝>



높은 분이 또 오신다고요?

| 이성재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비상대책 반장 <50대 초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성실한 공무원>

구청직원 1,2 <40대 초반, 상사의 지시에 생각없이 복종만 하려는 공무원>

비상대책반 직원들 <20~30대, 성실한 공무원들>

시놉시스

1. 기획의도

관행화된 갑질 문화와 권한의 과도한 행사로 조직이 겪는 부조리를 알리고자 한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겪어 보았을만한 내용을 약간 과장된 스토리 전개로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개되도록 노력하였다.

수해피해가 발생한 작은 마을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이 상급부서의 '구청 공무원들'이 행하는 부당한 갑질 행태와 불필요한 의전 때문에 겪는 부조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의 폐해를 알리고자 한다.

2. 줄거리

수해피해가 발생한 시골 작은 마을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이 수재민들을 돕고자 바쁘게 일하고 있다. 수재민들 수에 비해 이들을 지원하는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공무원들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잠자는 시간까지 즐기며 수재민들 지원에 여념이 없다.

어느날 구청장이 수해피해가 발생한 마을을 방문하고자 하고, 구청 공무원들은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의전을 요구한다.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직원 치하 행사와 현장 사진 찍기, 과도한 식사 대접 등 가뜩이나 일은 많고 일손은 부족한 상황에 더더욱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비상대책본부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구청 공무원들에게 반발도 해보지만 상급부서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구청장 방문 행사는 끝이 나고, 다시 수재민 지원에 나서려고 의기투합하던 공무원들에게 또 다시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진다.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 의원들도 수해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들 역시 구청장이 했던 대로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재민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인지, 보여주기식 행정에 열을 올리는 '높은 분'들을 위한 비상대책본부인지 모호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 된다.

S 1.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 넓은 창고 같은 건물에 사무실이 차려져 있다.
-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공무원들)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모두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받고, 컴퓨터에 뭔가를 분주히 입력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 사무실 밖에는 비가 쏟아지듯 오고 있다.
- 사무실 한쪽에 '대책반장' 명패가 보이고, 명패가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대책 반장이 서류를 보고 있다. 옆에는 부하직원(공무원) 두 명이 서있다.

대책반장 : 수재민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이 분들 머물 곳이 부족해 야단이군.

부하직원1 : 지금 학교 강당에 텐트를 더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교에서 협조적으로 나와 업무 진척이 빠릅니다.

부하직원2 : 여기저기서 구호품 지원도 원활합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고마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책반장 : 일기예보를 보니 비가 쉬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는군. 앞으로 수재민들이 더 생길거야. 미리미리 대비를 해놓도록. 그리고 비가 그치는 대로 수해현장 복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게.

부하직원1 : 네,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 정말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다 수해현장에 투입되어 일하고 있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하직원2 :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동네 수해피해가 방송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덕에 자원 봉사자들이 방송을 보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올 것 같습니다.

대책반장 : (반색을 하며) 그거 정말 다행이네. 수해 피해와 수재민은 계속 늘어나는데, 인력이 없어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라고.

- 계속 실새없이 전화벨이 울리는 대책본부
- 여전히 사무실 내 직원들은 전화를 받고 응대하기에 바쁘다.
- 한 직원이 전화를 받던 후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대책반장을 향해 말한다.

직원 1 : 반장님! 마을 양로원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김정례 할머니 집도 곧 물에 잠길 것 같아 직원들이 할머니 집에 급히 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책반장 : (혀를 차며) 그 할머니 자식들 다 외국가고 그 나이에 혼자 사시는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 그래, 빨리 가서 도와드리게. 일단 할머니는 마을 초등학교 강당 텐트에 모시도록 하고. 아직 자리는 있지?

직원 2 : (급히 전화를 끊으며) 반장님! 마을 입구 쪽에 있는 길 있죠? 산 아래 있는 길 말입니다. 지금 그 길가 옆 산에서 산사태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있는 직원이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대책반장 : (놀라며) 산사태? 이거 큰일이구만. 일단 그 도로 당장 통제토록하게! 직원을 보내 우회도로로 안내하도록 해! 절대 차들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면 안돼!

직원 2 : (우물쭈물하며) 그런데 지금 그곳에 통제하고 안내할 직원이 없어서……. 다들 수재민 구조하고 지원하는 현장에 가서 말이죠. 사실 수재민 구조와 지원하는데만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책반장 : (잠시 생각하다가) 그래도 어떻게든 인력 좀 뽑아서 산사태 우려 현장에 보내도록 해봐! 산사태 나서 인명피해라도 나면 이거 정말 큰일 아닌가?

S 2. 수해(水害) 현장

- 비가 쏟아지는 마을.
-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모습이 보인다.
- 산사태 예상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가서 차량 통제하는 모습이 보인다.

S 3. 초등학교 강당 (수재민 피난처)

- 강당에 질서정연하게 들어선 수재민 거주 텐트가 보인다.
- 수재민들에게 음식과 담요 등 생필품을 전달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인다.

공무원1 :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어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어쩔 뻔 했어?

공무원2 : 네, 수재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됐을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네요.

공무원1 : 그나저나 구청에서는 뭐하는 거야? 가뜩이나 바쁜데 상황보고 하라고 독촉이나 하고, 필요한 지원인력은 보내 줄 생 각은 하지 않고 말이야.

공무원2 : 그런 말씀 마세요. 지원인력 와도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지원해준다고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지시만 하지 도 움이 되질 않아요. 인원이 아무리 없어도 그냥 우리 군청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S 4.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안
- 전화 통화를 하던 부하직원1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한번 쉰 후 대책반장에게 다가간다.

부하직원1 : (매우 망설인다) 저…….

대책반장1 : 왜? 무슨 일이야?

부하직원1 :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일 모레 오전에 구청장님이 직접 이곳 대책본부를 방문하십니다.

대책반장 : (놀라면서도 짜증난다는 표정) 뭐? 구청장님이?

부하직원1 : …….

대책반장 : 이거 야단이구만. 안 그래도 현장이 바쁜데 구청장님이 온다면……. (답답한 마음에 한숨 한번 내쉰다)

부하직원2 : 구청장님 오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을텐데……. 수해현장은 어떡하죠? 우리 구청장님 의전에 엄청 민 감한 양반인데.

부하직원1 : 어찌겠어? 상급부서에서 하라면 해야지. 쟤장!

- 대책본부 안 직원들 모두 짜증스런 한숨을 쉰다.
-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밖의 모습이 보인다.

S 5. 수해(水害) 현장 대책 본부 (다음날 아침)

-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안.

-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구청 직원 2명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다. 구청직원1 : (거만한 태도)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대책반장님 있습니까?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어서 오십시오. 내가 대책반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 잠시 후 대책반장 자리 옆에 있는 탁자에 앉아 차를 마시는 대책반장, 부하직원1, 구청직원1,2

구청직원1 : (서류를 대책반장과 부하직원들에게 건넨다) 이미 통보해 드렸듯이, 내일 오전에 구청장님 이 여기 수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내일 구청장님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표입니다.

- 일정표를 보는 대책반장과 부하직원 얼굴에 근심과 짜증이 섞인 표정이 드리운다. 구청직원들은 그 표정을 보고서도 모른 척 한다.

대책반장 : 그럼 구청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일단 사무실을 방문한 후, 수해 피해 및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신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노고를 치하하겠다는 거군요.

구청직원1 : (거만한 태도) 네. 그렇습니다.

부하직원1 : (일부러 구청직원 들으라고 비아냥 거리는 목소리로) 이거 뭐, 내일 오전에 일하긴 틀렸구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난리인데. 수재민들 불쌍해서 어떡하나?

구청직원1, 2가 부하직원 1을 노려본다. 부하직원1은 모르는 척 탄전을 피운다.

구청직원2 : (냉정한 태도로 대책반장을 보며) 직원들과 악수를 하고 난 뒤에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대책반장 : 점심은?

구청직원2 : 당연히 대책반에서 준비하셔야죠. 인근에 음식 잘하는 식당을 섭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수행인원을 합치면 11명 정도 됩니다. 여기 대책반원들 한 5~6명 참석해 주시죠. 물론 대책반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셔야 하고요. 기자들도 한 6~7명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20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예약해야겠군요.

부하직원1 : (대책반장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구청직원들 들으라는 하는 말이다. 여전히 빈정대는 말투로) 반장님! 이 작은 동네에 그렇게 큰 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식당 알아보려면 직원들 동원해서 여기저기 알아봐야 하는데, 그럼 수재민들은 누가 돌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책반장 : (난감한 표정)

구청직원1 : 좀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자들도 같이 식사하는 자리니 구청장님 체면도 생각해 할 것입니다. 메뉴는 소고기가 적당할 듯 합니다.

부하직원1 : (구청직원을 향해 흥분한 말투로) 지금 수재민이 우선이지 구청장님 체면이 문제입니까? 수재민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구청장님은 소고기 먹겠다고요? 야! 정말 좋네. 그러니까 서로들 구청장 하려고 난리지, 난리야!

- 구청직원1이 발끈하자 구청직원2가 막는다.

- 구청직원2 화제를 바꾸려 사무실을 한번 둘러본다.

- 구청직원1은 부하직원1을 계속 노려보지만, 부하직원1은 스마트폰을 보는 등 탄정을 피우며 이를 무시한다.

구청직원2 : 그리고 오늘 중으로 사무실 대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시는데 이런 상태에서 맞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기자들도 오는데 말이죠. 내일 구청장님이 오실 때 모든 직원들 유니폼을 입도록 하세요.

부하직원1 : (황당해하며) 아니 지금 날도 덥고 비가 쏟아져 이렇게 후덥지근한데 긴팔 유니폼을 입으라고요? 더워서 일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 수재민들이 중요하지……

- 대책반장이 손을 들어 부하직원1을 말하는 것을 막는다.

대책반장 : (시름이 담긴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고) 내 솔직히 말하겠소.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 수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요. 여기 대책반은 부족한 일손을 최대한 움직이며 수재민들을 돕고 있어요. 그나마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과장된 표현이 아니요. 직원들 화장실 갈 시간도 부족할 정도요. 점심도 여기 대책반에 임시로 마련된 구내식당에서 대충 먹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수재현장에 나가서 수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구청직원1 : 하시고 싶은 말이 뭐니까?

대책반장 : 지금 구청장님을 의전할 여유가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 최대한 간소하게 합시다.

구청직원2 : 간소하게 라고요?

대책반장 : 그렇소!

구청직원1 : 어떻게 하자는 말씀인가요?

대책반장 : 의전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요. 일단 구청장님이 방문하시니 브리핑은 철저히 준비하겠소. 다만 지금 직원들이 수재민 지원에 너무 바빠 사무실 대청소할 여력이 없으니 대청소는 생략합니다.

구청직원1 : (빼딱한 시선으로 대책반장을 보며) 대청소를 생략하자…….

부하직원1 : 그리고 점심 식사도 구내식당에서 간단하게 하지요. 이 근처 비가 많이 와서 식당 대부분 이 문을 닫았어요. 식당을 알아보려면 직원들이 시간을 내서 멀리 나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골에 비싼 소고기 파는 식당을 찾는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대책반장 : 그리고 수해현장 방문은 생략합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수해현장을 복구하느라 직원들 정신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수해현장을 방문한다면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인력이 지금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청장님이 수해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소.

- 대책반장, 부하직원1, 구청직원1, 2 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 이윽고 구청직원1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말한다.

구청직원1 : (대책반장을 보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참 순진하시군요. 그래도 공무원 생활 저보다 10년은 더 하신 분이랴 뭘 좀 아실거라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부하직원1 :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 대책반장이 손을 들어 부하직원1을 저지한다.

구청직원1 : 우리 뚝 까놓고 얘기합니다.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어요. 구청장 선거가 있던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재선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솔직히 말해 지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해가 난 관할지역을 구청장이 일일이 방문하며 수재민들 챙기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알려져 봐요. 그 효과가 어떨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기자들도 어렵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손님 불러다 놓고 식사 대접 소홀히 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인심이 그렇진 않잖아요?

부하직원1 : 말은 참 잘 하십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지요. 지금 수재민이 우선입니까? 구청장님이 우선입니까?

- 구청직원1, 2 부하직원1을 노려보지만, 부하직원1도 그들의 눈빛을 피하지 않고 같이 노려본다.

대책반장 : (잠시 생각하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후 한숨을 쉰다) 알겠소.

구청직원1 : (아비한 미소를 지으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그만 가보겠습니다.

- 구청직원1, 2 대책본부 사무실을 나간다.

- 대책반 직원들 모두 한숨을 쉬고, 어떤 직원은 화가 나서 구청직원이 나간 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한다.

부하직원1 : 귀신은 뭐하나? 저런 인간들 데려가지 않고.

공무원1 : 비가 오니까 귀신도 쉬려나 보지. 요즘 귀신 팔자도 좋아. 우리 구청장보다 팔자가 더 좋은 것 같아.

- 대책반 공무원들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린다.

- 대책본부 창문을 통해 비가 쏟아지는 바깥 풍경 보여진다.

S 6. 수해(水害) 현장

- 쏟아지는 빗속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공무원들.

-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대피소로 향하는 차에 오르는 주민들.

S 7. 대피소

- 큰 강당에 수십개의 텐트가 보인다.

- 텐트를 돌아다니며 생필품들을 배달하는 공무원들

-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짓은 수재민들

S 8.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회의실

- 회의실에 대책본부 직원들이 모두 모여있다.

- 메인석에 대책반장이 앉아 있다.

부하직원1 : 공식석상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 구청장님 미친 거 아닙니까? 수재민들 지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우리는 일손이 모자라 잠을 줄여가며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다음 선거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요. 그런 사람이 우리 동네 구청장이라니……. 나 원 환장하겠구만.

- 대책반장을 비롯한 직원들 침통한 표정으로 말이 없다.

대책반장 : (짜증나는 표정을 애써 감추며) 뭐 어찌겠나. 속된 말로 까라면 까야지.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 직원들 모두 말이 없다.

공무원1 : 그래도 지금 우리 상황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재민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산사태 예상 도로 나가 통제하는 직원도 지금 최소한의 직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초등학교 강당에 텐트 치고 머물고 있는 수재민은 어떡하고요? 지금 거기 머무는 수재민들 식사 준비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조금씩 짜증을 내고 있어요. 당연하죠.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요.

공무원2 : 수해현장이 더 문제입니다. 산 아래 있는 집, 강 주변 집, 노약자들만 사는 집, 거기 사는 모든 주민들은 모두 우리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조 손길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제대로 구조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하니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구청장 의전하는데 또 신경을 써야 하니……. 나 정말 미치겠네.

- 회의실에 적막이 흐른다.
- 회의실내 직원들 모두 짜증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잠시 후 대책반장이 결심한 듯 말한다.

대책반장 : 자, 이렇게 하지. 광 주무관과 최 주무관이 식당을 좀 알아봐주게. 박 주사하고 김 주사는 수재민들이 대피한 강당에 가서 구청장 방문시 동선 계획 좀 잡고. 그리고 오 주무관은 전체 계획 좀 잡아주게. 시간별로 구청장 이동 계획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 잡아야 하네. 그리고 사진은 문미희 사원이 좀 찍어주고.

부하직원2 : (짜증난다)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정말! 할 일이 태산인데. 브리핑 준비하느라고 보고자료 준비해야지, 사무실 대청소 해야지. 대피소 가셔도 청소하고 생필품 보기 좋게 쌓아놓고 사진 잘 나오게 준비해야지. 나 원 참. 자원봉사자들 보기 꼭 팔립니다, 꼭 팔려!

직원 1 : 정말 안 오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두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할텐데. 그게 수재민들에게도 훨씬 도움이 돼요. 높은 사람 온다고 거기에 신경쓰다 보면 진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요.

직원 2 : 높은 사람도 높은 사람 나름이야. 그냥 와서 직원들 격려하고, 애로사항 듣고, 지원할 내용 파악해서 지원해주면 돼. 그렇게 현장 직원들을 도와주는게 높은 사람 할 일이라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은 문제야. 이거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수해현장 오겠다는 것 아냐?

- 직원들의 울바른 소리에 대책반장 아무말 없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만 있다.

S 9.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다음 날)

- 구청장과 수행원들이 대책본부를 방문한다.
- 구청장은 과장된 몸짓으로 직원들과 악수하고, 대책반장의 브리핑을 받는다. 대책반장 표정이 어둡다.
- 기자들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댄다.
- 대책반원 직원들은 짜증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S 10. 음식점

- 즐거운 표정으로 소고기를 먹는 구청장과 수행원, 기자들.
- 합석한 대책반장 및 직원들 무표정 또는 짜증스런 표정으로 식사를 한다.

공무원1 : 수재민들은 지금 제대로 잠도 못자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데 구청장은 소고기가 입에 넘어가나?

공무원2 : 잘만 먹고 있네, 뭐. 구청장도 구청장이지만, 같이 온 구청직원들이 더 맛있게 먹네. 오늘 예산 초과되겠어. 그리고 저 기자놈들 좀 보라. 아예 맥주까지 한잔 걸치고 있구만.

기자 : 어이, 아줌마! 여기 고기 좀 더 줘요. 그리고 육회 좀 없어요? 있으면 좀 줘요!

공무원3 : (들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좀 작작 처먹어라!

S 11. 수재민 대피소

- 강당 텐트 사이를 오가며 수재민들과 악수를 하는 구청장. 여전히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 구호물품 앞에서 사진을 찍는 구청장과 일행 등
- 구청장 일행이 대책반 직원들에게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하나 아무도 가지 않는다. 구청장과 일행 멀썩해한다.

S 12. 수해(水害) 현장 대책본부 회의실 (그날 저녁)

대책반장 L: 일단 골치 아팠던 일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수재현장 복구와 수재민들 지원을 위해 진짜로 일을 할 시간입니다.

부하직원1: 에이! 빌어먹을. 열심히 일 하는 놈 따로 있고, 그 옆에서 복치고 노는 놈 따로 있고 말이야.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그 공은 구청장이 다 가져가는 꼴이 되었어.

부하직원2: 참아! 우리가 뭐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

직원1: 정말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짜증도 났고요. 오늘 하루는 우리 모두 구청장을 위해 일한 하루였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하루가 아니었고요.

직원2: 저도 정말 짜증 났어요. 지금 내가 뭐하는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이에요. 내일부터는 제대로 일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직원3: 우리 구청장은 정말 안 오는게 도와주는 겁니다.

직원1: 아까 낮에 식당에서 소고기 먹는 꼴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고.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렇게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던지. 기자놈들이 한 술 더 뜨더라고. 술까지 마시며 아주 잔치 벌이는 분위기더라고.

대책반장: 자, 자! 이제 지나간 일은 잊자고. 지금부터는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만 생각하고 말이야. 자, 내일 할 일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고.

부하직원1: 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나간 일 생각해봤자 뭐하겠어요? 기분만 나쁘죠. 우리 반장님 말씀대로 툭툭 털고 앞으로 할 일만 생각하자고. 남이 뭐라던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돼!

- 회의실 내 직원들 밝은 표정으로 내일부터 해야 할 일을 의논하기 시작한다.

대책반장: 그러니까 박 주무관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초등학교에 기거하는 수재민들 식사 챙기고, 오 주무관은 의사들이 아픈 사람들 진료하는 것 협조해 주도록 하게. 의사들 고생 많은데 식사 잘 챙겨주도록.

부하직원1: 저는 내일 수재현장 돌면서 아직 집에 남아있는 주민들 살펴보겠습니다. 위험하다 싶은 집 주민들은 초등학교 강당에 대피시키고요.

공무원1: 그 일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저랑 같이 구역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도 같이 살펴봐야 하고요.

- 회의실 내 직원들 업무에 모두 집중하며 얘기하고 있는데, 누군가 회의실 문을 두드린다.

부하직원1: 누구지? 회의 중인데…….

대책반장: 들어오세요!

- 직원3이 어두운 표정으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직원3: 회의 중인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라서…….

대책반장 : (뭔가 불길한 기분) 무슨 일인가?

직원3 : 저…….

부하직원1 : 뭔데? 어서 말해봐!

직원3 :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 내일 모레 오전 여기 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회의실 내 직원 모두 : (일제히) 또?

직원3 : 모든 준비를 구청장이 왔을 때처럼 해달라고 합니다.

부하직원2 : 구청장이 왔을 때처럼?

직원3 : 네. 그 때와 같이 직원들과 악수하고 브리핑 받고, 점심 식사하고. 그리고 점심은 구청장이 들렀던 그 소고기집으로 꼭 해달라고 합니다. 거기 소고기가 맛있었다는 얘길 들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점심 먹고 수재민 대피소에 들어서 구호품 앞에서 사진을 찍을 계획이랍니다.

부하직원1 : 완전 자기 홍보하기 위해 오는 거구만. 정말 바쁜데 이거 미치겠네. 수재민들 지원은 언제 하나고? 언제?

부하직원2 : 정말 너무들 하는구만.

- 누군가 또 회의실 문을 두드린다.
- 대책반장이 들어오라고 하자 직원4가 어두운 표정으로 들어온다.

직원4 : 회의중인데 죄송합니다. 상부에서 급한 내용이 와서…….

대책반장 : (또 불길한 기분으로) 뭐가?

직원4 : 사흘 후 오전에 구의원들이 이곳 대책본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는 구청장이 왔을 때와 똑같이 해달라고 합니다. 특히 점심은 꼭 오늘 갔던 소고기집으로 예약하라고 합니다. 다만 대피소에 가서 사진 찍을 때 이번에는 구호물품 앞에서 사진을 찍지 않고 수재민들과 사진을 찍을 예정이니 준비해 놓으라고 하네요. 특히 어린 아이들과 같이 찍도록 해드립니다.

- 대책반장을 비롯한 회의실 내 직원들 모두 짜증의 한숨을 쉰다.

부하직원1 : 수재가 나서 아주 신났구만, 신들이 났어!

부하직원2 : 아니, 자기네들 수해현장 구경시키자고 비상대책반이 있는 줄 아나 보지?

직원 1 : 아니, 수재민들을 위한 일은 언제 합니까? 이거 정말 야단났네.

- 그 때 또 회의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 회의실 안에 깊은 정적이 흐른다.
- 회의실 문 두드리는 소리 다시 들린다.

대책반장 : (깊은 한숨을 쉰 후 짜증스런 표정으로) 또 높은 분이 오시나?

<끝>



어느 교무실

| 김들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권배<권교장(여.60세), 배교감(여.50세)>, 이강<행정실무원(여.45세), 행정실장(남.50세)>
김박<도서실무원(여.50세), 교무실무사(여.45세)>, 간호사<대학병원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

시놉시스

어느 사립 초등학교에서 사서교사를 처음으로 채용하면서 복리후생 문제를 정확하게 짚지 않게 된다. 사서교사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해 휴가를 써야 할 일이 생기자 교감선생은 휴가를 보내 주는 대신 추가 근무를 요구하게 된다. 이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한다. 그 사실을 뒤에 알게 된 교장이 사서교사에게 사과를 한다. 그 이야기를 통해 교감선생의 권위적 갑질 행태에 의해 교장이 어려움을 겪게 됨을 알게 된다. 이후, 사서교사의 남편이 심정지 상태로 위기를 맞아 병원으로 가게 되어 교장 선생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하루 결근한다. 교감은 자신에게 휴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는데 분노하여 수술실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하며 소위 갑질 발언을 한다. 그다음 날, 겨우 지탱한 몸으로 출근한 사서교사에게 월차 없는 사람이 휴가를 썼으므로 추가 근무를 명하고 그 부당함에 교장이 나서서 전체 정리를 하며 사서 교사에게 사과한다. 사서교사는 이런 갑질이 만연한 사회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크게 절망한다.

<기> - 사서교사가 휴가를 쓸 일이 생겼는데 월차를 쓸 수 없는 자리에 있다 하여 부당한 추가 근무를 교감선생으로부터 명 받는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교장이 사과한다.

<승> - 어느 날 사서교사의 남편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고 그다음 날 월차를 신청하게 된다. 월차가 없는 줄 알고 있었던 교감은 휴가 혜택을 받았으니 그다음 날부터 아침 시간 2시간을 추가 근무를 명하고 교장이 이 사실을 알고 월차의 합법성을 어필하지만, 교감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 - 교감이 사서교사를 불러 직접적인 언어의 갑질을 하게 되고 사서교사는 대한민국의 갑질의 행태에 절망한다.

<결> - 교장이 관련 인원을 모아 회의를 하면서 복리후생에 관한 정의를 새로 세우고 잘못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사과한다. 사서의 남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난다.

제1막 제1장

S#1

초등학교 도서관에 교감 들어온다. 학생 없음을 확인하고 도서관무원에게 다가온다.

배 : 선생님, 이야기 좀 하세요

김 : 예

배 : 이번에 하루 휴가를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 : 예

배 : 선생님은 연차도 월차도 없습니다.

김 :

배 : 우리 학교가 사립이라 이렇게 사서교사를 들인 것도 처음인데 휴가까지 쓴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혹시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김 : 시상식에 참여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큰 상이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 받아 와야 하네요.

배 : 학년별로 담임을 보조하는 부담임들도 휴가가 일절 허락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그런 분들과 같은 계약직이니 개인적인 업무는 볼 수 없지요.

김 :

배 : 그래서 여태껏 단 한 명도 휴가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김 : 예.

배 : 그런데, 선생님이 휴가를 신청하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의논 끝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 : (방백) 뭔가 선심을 쓰는 듯한 말투네.

배 : 이왕에 말씀을 꺼냈으니 행사는 다녀오시고요.

김 : 예, 감사합니다.

배 : 대신, 그 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하십시오.

김 : 추가 근무요?

배 : 6시간 근무이시니 하루에 한 시간씩 연장해서 6일간 근무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시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김 : 교장 선생님께서 승인하신 건입니까?

배 : 예.

김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배 : 선생님이 11시 출근하시니 9시까지 출근하셔서 담임들을 도와주시는 일을 3일 하시거나

김 : 그런데 사서교사가 담임들을 왜 도와줘야 할까요? 부담임들도 있는 마당에. 그냥 도서관 근무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배 : 일찍부터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니 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김 : 그렇지만, 사서가 도서관에서 추가 근무를 하는 게 맞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배 : (당황하며) 아, 아,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도서실 추가 근무로요.

김 : 예, 그런데 지금에서 더 일찍 출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해진 일이 있어서요.

배 : 그러면 오후에 맞춰야겠네요.

김 : 하루에 1시간씩 6일 연장 근무하면 되겠습니까?

배 : 아... 1시간씩이면 본래 퇴근 시간이 5시인데 6시에 퇴근하시겠다는 거죠?

김 : 6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배 : 그런데, 6시까지 계시면 제가 퇴근하고 난 후에 혼자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좀 곤란하겠네요.

김 : 시간 나누는 건 자유롭게 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배 : 제가 퇴근하고 선생님 혼자 학교에 계시는 건 좀 짹짹하네요. 네가 5시 30분에 퇴근하니까 매일 30분만 더 있다 가지지요.

김 : (놀라며) 30분요?

배 : 예.

김 :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면 12일이나 걸리는데요

배 : 그렇더라도 휴가 보내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요

김 : 제가 6시에 퇴근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보안시스템 운영에 문제 있습니까?

배 : 아니요. 그건 경비팀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짹짹해서요.

김 : (방백) 뭐가 짹짹하다는 거지?

배 : 선생님 계약직인데 학교 비품 관리에 대한 권한도 없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책임을 제가...

김 : 그런 일이 그동안 있었습니까?

배 : 그런 일은 없었지만 제가 불안해서요. (불쾌한 표정으로) 제가 제시한 조건이 아니면 휴가 내드리기 어렵습니다.

김 : 그것도 교장 선생님과 상의한 내용입니까?

배 : 예.

S#2

학생들 하교한 뒤 조용한 학교, 도서실 문이 열리면서 권교장 들어온다. 손에 딸기 셰이크를 들고 있다. 권교장 들어오자 도서실무원 일어나 인사한다.

권 : (웃으며) 김선생님, 추가 근무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이거 좀 드세요.

김 :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니 해야지요.

권 : (도서실 책상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김선생님, 깊이 사과 드립니다.

김 : 무슨 말씀이세요?

권 : 저는 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추가 근무하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에야 알았어요.

김 :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교장 선생님께서 제 추가 근무를 결정하신 거 아니세요?

권 : 교감 선생님이 단독적으로 결정한 일이에요.

김 :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 승인 아래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요.

김 :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교장 선생님 승인 아래 결정한 건 줄 알았는데요.

권 :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는 거죠. 교감이 제게 보고를 안 하고 늘 그런 식으로 단독처리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번 일도 그중 하나예요. 사서교사 채용이 처음이다 보니 우리가 월차 관계를 정확하게 몰랐던 게 불찰이었어요.

김 : (조심스럽게) 그렇긴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월차 하루도 쓸 수 없다니 이걸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하루 휴가 잘 다녀오고 매일 연장 근무를 하라고 하니 그것도 괜찮겠다 하고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학교에서 잘 알아봐 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11개월 계약직이지만 월차 하라 쓸 수 없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때문에 하루에 30분씩 2주가량 연장 근무한다는 것도 좀 비효율적인 거 같고요.

권 : 그래요, 이걸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참에 행정실장에게 문의해봅시다. 제가 교장실 가서 행정실장과 통화를 해봐서 확실히 알아볼게요. 그동안 이거 좀 들고 계세요(딸기 셰이크를 한 번 더 내민다)

김 : (그제야 셰이크를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권 : 그럼 잠시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바로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김 : 예.

권교장, 교장실로 돌아간 뒤 잠시 후 권 교장이 들어온다.

권 : (활짝 웃으며) 사서 선생님! 있어요, 있어. 월차가 있었어요!

김 : 예? 정말요?

권 : 행정실장한테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12개의 월차가 있대요. 연차는 아니고 월차라고 하네요. 그 일수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야 그걸 알다니, 진짜 알았다면 이렇게 추가 근무 안 하고 좋았을 텐데.

김 : 그만큼의 월차가 있다는 것을 안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앞으로 꼭 필요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권 : 별말씀을요,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챙겨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무심했던 거 같아요. 그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을 고생시키고, 미안합니다. 추가 근무 30분도 사실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김 : 내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권 : 그것도 그만두세요. 더 안 하셔도 돼요.

김 : 그래도 약속했는데 어찌 그러겠어요. 내일까지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권 : 안 그러셔도 돼요. 이제 그만 하세요. 이렇게 반듯하신 분이 우리 학교 도서관을 지키고 계시니 제가 흐뭇합니다.

제1막 제2장

S#1

출근한 권교장, 교무실무사에게 간다.

권 : 박 선생님, 사서 선생님이 오늘 못 나오세요. 남편분이 심정지 되어서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가 계신다고 연락 왔어요. 하루 월차를 쓰신다고 하니까 전산 처리 좀 도와주세요.

배 : (권 교장에게) 아니, 왜 사서 선생님이 교감한테 전화 안 하고 교장한테 했어요?

권 : (의아한 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관리자 한 사람에게 알리면 됩니다.

배 :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감한테 연락했어야지 왜 교장 선생님께 했느냐고요? 그런 보고는 본래

배 : (화를 내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교감한테 연락했어야지 왜 교장 선생님께 했느냐고요? 그런 보고는 본래 교감에게 하는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며) 교장 선생님이 사서 선생님을 싸고도니까 저한테 전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권 :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 나갈 때 관리자 누구라도 연락했으면 됐지, 그럴 때 교감이요 교장이요 따질 정신이 있겠어요?

배 : 어쨌든 그런 보고는 저한테 해야지요. 교감이 학교 모든 일을 알아서 교장한테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교장이 먼저 알아서 교감한테 통보해주시나요? 그 절차가 맞느냐 말입니다.

권 : 이보세요! 배 교감 선생님! 그런 말이라면 내가 해야 할 말이네요. 교감선생이 직원들과 소통도 하지 않고 교장한테 보고를 하지 않으니 내가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평소에 교감이 교장한테 해야 할 보고를 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이 자신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말로 말이 안 됩니다.

배 : (당황하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교무실무사 보는 앞에서!

권 : 교감 선생님, 먼저 시비를 건 사람은 교감 선생님이란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교무실무사 앞에서 교장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교감 선생님이란 사실도 꼭 명심하세요. (교장실로 들어간다)

S#2

병원, 심혈관 응급실 의자에 앉아 있는 도서실무사. 초조하게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앞쪽 전광판에는 <김OO 수술 중> 이란 글씨가 씩어져 있다. 그때, 김의 휴대전화기로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김. 큰 숨을 쉬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는다.

박 : 선생님, 교무실무사입니다.

김 : 예.

박 : 좀 어떻게습니까?

김 : 지금 수술 중입니다.

박 : 어휴,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학생들 방과 후 수업은 다른 날 보강하셔야겠지요? 안내를 드려야 해서 그렇습니다

김 : (힘든 표정으로) 지금 사람이 수술실에 있어요. 그 이야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박 : 예... 그럼 일단 제가 오늘은 방과 후 수업 못 한다고 안내만 드려놓을까요?

김 : 부탁드립니다. 보강은 정확하게 해주겠습니다.

박 : 예, 그런데 선생님... 저, 교감 선생님이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어찌지요?

김 : 선생님, 지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박 :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라는데요.

김 : (인상을 찡그리며) 그럼 바꿔 주세요

박 : 직접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십니다.

김 :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전화를 겁니까! 사람 죽고 사는 일입니까!

박 : 잘 모르겠는데... 꼭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김 :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 끊고 교무실로 전화해 교무실무사가 전화를 받고 교감에게 연결해준다.)

김 : 아니,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또 전화를 겁니까! 사람 죽고 사는 일입니까!

박 : 잘 모르겠는데... 꼭 통화를 해야 한다고 하시니...

김 :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 끊고 교무실로 전화해 교무실무사가 전화를 받고 교감에게 연결해준다.)

배 : 아, 사서 선생님.

김 : 예, 교감 선생님.

배 : 아무리 사적인 상황이 시급해도 이럴 때는 교감한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김 : 예.

배 : 본래 학교라는 데가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관리자라고 아무한테나 전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 :

배 : 이번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이해를 잘 해줘서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해주세요

김 :

배 : 사서 선생님?

김 : 예.....

배 : 그리고 내일은 나올 수 있나요?

김 : 예.

배 : 내일 나오시면 추가 근무를 하셔야겠네요.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이 하루를 쓰셨으니 학교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이에요.

김 :

배 : 그럼 내일 학교에서 추가 근무 이야기합니다.

김 : (말없이 전화를 끊고 화난 표정으로 한숨을 쉰다, 그때 수술실에서 보호자 찾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일어나 뛰어간다.)

제2막 제1장

S#1

도서실무사, 조심스럽게 학교 현관문을 밀고 들어온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잠시 비틀거리기도 한다. 도서실에 가방을 넣어두고 교무실로 간다.

박 : 아, 선생님. 수술은 잘 되셨어요?

김 : 예..

배 : (뒤편 책상에 앉아 있다가) 아, 사서 선생님 나오셨어요? 여기 잠깐 와주세요

김 : (불편한 표정으로 그쪽으로 간다)

배 : (종이를 들어 보이며) 선생님, 오늘 4학년 부담임 선생님이 코로나로 결근하셨어요.

김 : 예.

배 : 그래서 대체 인원이 필요한데...

김 : 예.

배 : 선생님이 4학년 교실에 가서 담임 보조 좀 해주세요.

김 : (인상을 찡그리며)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상태로 그 일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 : (노려보며)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까?

김 : 지금까지 중환자실을 지키다 왔어요. 출근도 어려울 것 같았는데 겨우 나왔습니다. 그 점은 선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아! (뒤로 한 발짝 물러나자 비틀거린다)

배 : (좀 놀라는 듯하다가) 그러면, 오늘은 그냥 쉬시고... 내일부터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추가 근무를 해주세요.

김 :

배 : 본래, 월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를 놀았으니 학교에서는 손해예요. 그 시간만큼 일을 보충하셔야지요.

김 : 그런다고 배우자 심정지 간호하고 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추가 근무를 요구하시는 건 너무 하지 않으세요?

배 : 그래도 급여를 공짜로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김 : 저, 월차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월차 쓸 수 있는데 왜 제가 쓰지 못합니까?

배 :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월차를 쓸 수 있단니?

김 : 그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궁금하시면 행정실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났으니 저는 이만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학생들이 있어서요. (밖으로 나온다)

S#2

도서실에 있던 학생들 점심시간 끝나자 모두 교실로 올라가고 도서실무사, 책 정리를 하고 있다. 이때 권교장 들어온다.

권 : 사서 선생님, 몸은 어떠세요? 이럴 땐 환자보다 보호자가 더 힘들어요. 몸을 잘 챙기셔야 해요.

김 : (인사를 하며) 교장 선생님, 덕분에 수술은 잘 끝났는데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권 : 어유, 어찌나.... 너무 놀라서 오늘 출근할 수 없었을 건데 이렇게 나오셨네요.

김 : 어찌겠습니까. 그나저나 월차가 없는 사람이 휴가 썼다고 추가 근무하라고 야단이네요.

권 : (눈이 휘둥그레져서) 누가요?

김 : 교감 선생님이지요.

권 : 내가 월차 처리하라고 말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 : 출근하자마자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본래, 월차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를 놀았으니 학교에서는 손해예요. 그 시간만큼 일을 보충하셔야지요.'

권 : 아니, 어떻게 그런 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께 어떻게! 아유, 정말 큰일 낼 사람이네...

김 : 제게 4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담임을 보조하라고 합니다. 내일 2시간 일찍 출근해서요.

권 :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선생님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러다 선생님 쓰러지면 어쩌려고요. 그 일도 제게 의논하지 않고 교감 선생님 단독으로 한 일이에요. 다른 선생님들께 부탁해도 될 일을 꼭 선생님께 그러니 본인이 교장인 줄 아나 봐요. 제가 가서 확실히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걸 도무지 학교 위계가 서지 않으니.

김 : 교장 선생님, 혹시 저 때문에 곤란한 일 당하시는 거 아닐까요?

권 : 아니에요. 그동안 몇 번이나 참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교감이 교장에게 보고 없이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서 문제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큰 실수를 하는 거지요. 이대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결정권자는 저이니 제 결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우선 몸 좀 추스르셔야지요. 내일 추가 근무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일어나 밖으로 나가다 도서실무사를 쳐다보며)

선생님이라서 이렇게 출근하지, 저 같았으면 기절해서 저도 같이 응급실에 실려 갔을 거예요.

제3막 제1장

도서실에 전화 소리 들린다.

김 : (전화기를 들고) 네, 도서실입니다.

배 : (전화 소리) 그래,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지요?

김 : (전화 소리)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배 : (전화 소리) 내일부터 추가 근무 못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김 : (전화 소리) 예.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린 거라면 구태여 내일 추가 근무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배 : (전화 소리) 당장 교무실로 와주세요!

김 : (전화 소리) 지금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 : (전화 소리) CCTV로 보니 두 명 정도밖에 없네요.

김 : (전화 소리) 어쨌든 학생들이 있습니다

배 : (전화 소리) 그 정도면 잠시 비워도 되니 교무실로 오세요! (전화를 딱 끊는다)

김 : (혼잣말로) 교장 선생님 말씀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뜻이군. 본인은 교장 선생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랫사람들은 자신에게 순종하라? 갑질. 이런 게 갑질이군 그래. (한숨 한 번 쉬고 학생들에게) 애들아, 선생님 잠시 교무실에 다녀올게. (학생들 고개 끄덕인다)

김, 교무실로 들어선다.

배 : (사서를 노려보고 있다)

김 : (교감에게 가서)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배 : 사서 선생님 월차 없습니다!

김 : 그래요? 거참 이상하네요. 얼마 전에 교장 선생님이 행정실장님 통해 알아보셨는데 저한테 12개의 연차인가 월차인가 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배 : 제가 교육청에 전화해 보았더니 사서는 월차가 없다고 하던데요.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확인해봤어요.

김 : 교감 선생님, 지금 제게 월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왜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데요? 학교에서 사람을 쓸 때는 미리 그런 문제 알아봐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을. 미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알아서 나중에 정리하면 될 일인데 지금 어지러워서 서 있기도 힘든 사람한테 월차가 있다 없다 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배 : (소리 지르며) 네, 그런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 말을 안 듣겠다고 하니깐요. 어떻게 관리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니까!

김 : 저는 학교 최고 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월차를 썼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문제 됩니까.

배 : 저한테 먼저 했어야지요. 제가 먼저 알고 위로 보고하는 게 순서이지요.

김 : 그렇게 위로 보고를 잘하시는 분이 앞 전에 제가 하루 휴가 썼을 때 하루 30분씩 추가 근무시킨 그 일을 교장 선생님께 상의 안 하셨습니까?

배 : (큰소리로) 선생님! 왜 그때 일을 꺼내는 겁니까!

김 : 뒤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께 의논하지 않고 단독으로 그런 지시를 한 것ですよ. 단지 그 생각이 났을 뿐입니다. 말씀 다 끝났습니까?

배 : 아니요! 사서 선생님은 법적으로 월차를 쓸 수 없는 사람이니 내일 2시간 일찍 와서 4학년 교실에서 시간을 때우셔야 합니다! 제 말을 들어야 합니다!

김 : 아니요! 저는 교장 선생님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배 : 이보세요! (종이를 들어) 여기다 전화해 보라고요. 여기 전화해서 사서 선생님 월차 없다는 걸 확인했더니깐요.

김 :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고 저도 자칫하면 응급실 실려줄 수도 있습니다. 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시 검토해서 정확한 경로로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손으로 이마를 짚는다)

배 : (종이를 눈앞에 대며) 여기다 직접 전화해 확인해보세요! 여기서!

김 : 왜 제가 전화해서 확인해야 합니까. 그런 건 학교에서 확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행정실장님을 통해 월차가 있음을 확인하고 교장 선생님께 월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으니 행정실장님께도 여쭙보시죠.

배 : 그래요? 그러면 행정실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전화 버튼을 누른다) 아, 여보세요? 교감인데요. 사서 선생님 월차 쓸 수 있습니까?

이 : (전화 소리) 사서 선생님요? 계약서를 보면 아는데. 아마 없을걸요.

배 : 아, 알았어요! (전화 끊는다) 행정실에서 월차 없다고 합니다! 이제 되셨어요?

김 : 행정실장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배 : 행정실무원입니다.

김 : 행정실장님을 통해 알아봐 주십시오. 앞전에 확인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배 : 선생님이 알아보세요. 왜 제가 선생님 일을 대신해 줘야 합니까? 사서 선생님 태도가 참 당황스럽네요.

배 : 저야말로 교감 선생님이 당황스럽습니다. 월차 관계 알아보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러십니까.

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배 : 존경받는 교감 선생님이셨다면 배울 게 많았을 겁니다.

김 : 함부로 말씀 하지 마세요!

배 : 아무리 위계질서가 있는 곳이라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이런 살벌한 대우를 받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에 관한 일은 을이 다 알아보고 직장에 들어옵니까? 갑이 알아서 체크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학교에서 사람을 부리면서 월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이렇게 개 부리듯 부려 먹는 겁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갑질로 얼룩진 미개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서 있겠습니다. (비틀거리며 교무

한국이 이렇게 갑질로 얼룩진 미개국이란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도서실로 가겠습니다. 어지러워서 못 서 있겠습니다. (비틀거리며 교무실을 나선다)

제3막 제2장

S#1

교무실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린다. 그때 김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온다.

김 : (큰 숨을 쉬고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간호사 : 보호자분~ 환자분 깨어나셨구요. 보호자분께 꼭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김 : 예.

간호사 : '나는 괜찮으니 당신 몸 잘 보살펴요'라고 말씀하시네요.

김 : (울컥하여) 아, 예....

간호사 : 보호자분, 저도 이런 일 오래 했는데 이런 환자분은 처음 봅니다. 환자분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데 이 환자분은 깨자마자 보호자분 걱정하시네요.

김 : (눈물을 흘리며) 예... 그런가요...

간호사 : 환자분, 힘내세요.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운이 좋고 지병도 없어서 탈 없이 일어나실 겁니다.

김 :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간호사 : 얼마 전에도 심정지로 응급실로 들어온 20대 여성분이 있으셨는데 병원 도착한 지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도 몇 분 더 오셨지만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심정지 후 소생이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환자분은 이미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처치가 잘 되었고 구급대원들이 조치를 잘해주어 병원 들어와서 곧바로 안정을 취했기 때문에 큰 검사*도 무사히 통과했구요.

김 : 예, 그런 거 같아요. 모두 의료진 덕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면회가 안 될까요?

간호사 : 아마 며칠 더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조금 더 안정을 취하고 나서 관상동맥조형술 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술을 할 수도 있어서요.

김 :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무섭네요.

간호사 : 정확한 건 담당 교수님 소견이 나와야 전체적 흐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김 : 예..

간호사 : 만약 부정맥이 확실하다면 그에 관한 시술을 하고 아니라면 다른 시술을 해서 잘 회복하게 될 겁니다.

김 : 예..

간호사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학병원 의료진들 시술도 잘하고 시설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보호자분과 카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네요.

김 : (반가워하며)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좀 안심이겠네요. 감사합니다. 간호사님~

간호사 : 별말씀을요,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치료에 협조해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지요.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김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2

도서실로 전화 걸러 온다.

김 : 예, 도서실입니다. (전화 소리 듣고) 예,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김, 일어나 도서실 책상을 정리해두고 교장실로 간다. 거기에 행정실무원, 행정실장,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교무실무사 모두 앉아 있다.

권 : (일어나며) 어서 오세요. 사서 선생님. 앉으세요. (주변을 둘러보며) 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서 선생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월차 문제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 월차 문제에 관한 진위 여부를 밝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김을 바라보며) 사서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힘드실 텐데 이런 자리에 오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실무원을 바라보며) 이 선생님, 사서 선생님 월차가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 (당황하여) 아니, 그냥... 없을 거 같다고 말씀 드린 건데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권 : (교감 선생님을 보더니)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이 선생님이 월차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던데요.

이 : (두 손을 내저으며) 아닙니다. '아마 없을걸요...'라고 말했다는 뿐인데요.

권 : 그럼 교감 선생님이 말을 잘못 전한 거네요

배 : (큰소리로) 그건 아니죠, 교장 선생님!

권 : 조용히 합시다. 회의 진행에 방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다음, 교무실무사.

박 : (몸을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예

권 : 내가 그날 아침에 박 선생에게 사서 선생님 월차를 쓰기로 했으니 전산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전산에 안 올렸더군요. 이유가 뭐니까?

박 : 아니, 그게..., 월차가 없는 줄 알고.

권 : 그건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승인 해준 것이니 전산을 열어 연가로 기안을 올리면 되는 거죠. 교무실무사가 교장의 지시를 어긴 것 맞지요?

박 :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권 : 그게 아니면 뭐니까?

박 : 교감 선생님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요.....

배 : (큰소리로 교무실무사를 바라보며)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박 : (깜짝 놀라며) 아니, 교감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서가 자기 말 들을 때까지 전산 처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겁니까?

권 : (배를 한 번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으며 박을 쳐다보더니) 박 선생님, 이 학교 최고 결정권자는 교장이라는 걸 알고 있지요?

박 : (얼굴이 벌게져서) 예....

권 : 그런데 어째서 교감 말을 듣고 교장 말을 거역했을까요? 그 부분, 차후에 징계위원회 회부되면 이야기 합시다.

박 : 아, 아니. 교장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두 손을 싹싹 빈다)

권 : 그 사람 다음, 행정실장님

강 : 예

권 : 사서 선생님 월차 관계 정확하게 알아보셨지요? 알려주세요.

강 : 예, 일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문의하셨을 때 12개의 월차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니 사서 선생님의 경우 12개월 계약직이 아니라 11개월 계약직이라서 30일 더하기 10일에 한 번씩 월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40일에 한 번의 월차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연차는 해당이 안 되고요.

권 : 그러면 사서 선생님이 3월에 출근하기 시작해서 현재 8월 말일이니 최소 5개의 월차는 쓸 수 있는 거네요?

강 : 예.

권 : 일전에 하루 휴가를 쓴 것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30분 추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강 : 그렇지요.

권 : 이번에 큰일 당하고 저한테 전화로 월차를 쓰겠다고 했으니 이번 휴가도 합법적이겠지요?

강 : 예, 맞습니다.

권 : 현재로서는 4개의 월차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강 : 예.

권 : (교감에게)자, 교감 선생님이 전화하셨다는 교육청 그 부서에는 사서 선생님 월차가 없다고 했다던데 법적 근거를 대 보시지요.

배 : (당황하며) 아니 그게...

권 : 사서 선생님을 교무실에 불러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라 하셨다면서요?

배 :

권 : 그 일은 학교가 할 일이지 사서 선생님이 직접 할 일입니까?

배 :

권 : 그건 그렇다 치고 왜 그곳에서는 월차가 없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교무실무사에게 그곳에 전화해서 다시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 말씀해주세요

박 : 그곳에서는 우리 학교의 상황을 잘 몰라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랍니다.

권 : 교감 선생님이 통화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박 : 예..... (교감의 눈치를 본다)

권 : 사서 선생님

김 : 예.

권 : 저희가 이번엔 선생님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를 쓸 때 복리후생에 관해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선생님이 고생하신 겁니다. 학교의 책임임으로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 : (고개를 숙이며)

권 : 또, 부담임 선생님이 나오지 않았다면 다른 대체 인력을 써야 하는데 사서선생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의도도 옳은 처사

아니었습니다. 부디 널리 양해해주시요. (깊이 고개 숙인다) 교감 선생님께서는 사서 선생님께 사과함이 옳을 줄 압니다.

권 :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왜요! 왜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제 말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한테 왜요! (얼굴이 벌게져서는 문을 열고 나가버린다)

조용한 교장실, 씩씩한 표정의 교장 선생님.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나가라는 손짓을 한다. 사람들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간다. 모두 나가고 마지막에 사서 선생이 나가려고 하자 교장 선생, 그에게 다가간다.

권 : (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합니다... 사서선생님..

김 : 아닙니다. 이만큼만 해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 덕분에 세상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갑질이 세상에 널리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이 민주화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하게 자행되고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권 : 이해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 역량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김 : (웃으면서)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그동안 교장 선생님도 나름으로 고충을 많이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번에 정의의 사도처럼 멋있었습니다!

권 : 사서 선생님 웃는 모습 보니 마음이 좀 놓입니다.

김 : 참,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마취에서 잘 깨어나 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권 : 잘 되었어요. 참 다행입니다. (김의 손을 꼭 잡아준다) 암전.

<끝>

*관상동맥조형술: [coronary angiography] 경피적 경로를 통해 관상동맥의 해부학적 모양과 협착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진단기법



111,100원

| 이경민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김필중<개인화물기사. 53세. 돈을 많이 밝히나, 지금껏 십원 한 장 불법으로 사용해보지 않은 순수하고 착한 성격의 인간. / 좌우명: 벌어도 제대로 벌고 쓸때는 정승같이 쓰자.>, 김로한<해군사관생도 22세 다소 냉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최성지<주부. 49세. 따뜻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이면 사족을 못쓰는 사람.>, 동료1<개인화물기사. 얼굴이 까맣고 매우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음.>, 동료2<개인화물기사. 필중을 평소 좋아하며, 형님으로 모시고 있음.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

시놉시스

필중은 개인화물기사이다. 오늘도 그는 만원 한 장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한다. 그의 자랑거리는 해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아들 '로한'이다. 아침 출근 후 화물을 배정받기 위해 대기 중인 사무실에서 그는 제국토지공사의 한 직원이 개발되어질 땅의 정보를 미리 다른 이에게 주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기사를 접한다. 동료들과 시덥잖은 욕지거리를 하며 한편으로는 토지공사의 직원이 부럽다고 생각한다. 자신도 가족을 위해서 기회만 된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큰 돈을 벌고 말리라. 돈? 그런 것쯤은 로또 한번 당첨되면 끝이야. 오늘은 아들 '로한'은 마침 여름방학을 맞아 집으로 오는 날이다. 집에 일찍 돌아가 화물차가 아닌 개인SUV를 타고 로한을 데리러 서울역에 간다. 서울역에서 로한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기름을 채우러 집 근처 주유소에 들른다. 치솟는 경유 값은 어느새 2155원이다. 씩씩한 마음으로 그는 주유 건을 집어 들고 주유를 마친다. 가득 주유하고 결제비용을 보니 11만1천1백 원이다. 결제하려는 찰나, 그에게 그의 신용카드가 아닌 사업자 카드가 보인다. 그 카드로 결제하면 30%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10초간 망설이더니 그의 신용카드를 꺼낸다. '내 자식이 나중에 나랏돈을 받아먹고 살 텐데, 이럴 수는 없어'하는 마음이다. 아들 로한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다. 집으로 와서 왜 그때 망설였냐고 로한이 묻는다. 필중은 사실 이러한 카드가 있는데, 나는 개인카드로 그냥 결제했다고 말한다. 로한은 내심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후 여름방학을 마치고 로한은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주 월요일 필중은 본인이 로또 4등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당첨금 수령일 필중의 동료2는 필중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권유하고, 필중은 그런 건 안한다고 말한 뒤 당첨금을 수령한다. 당첨금 액수는 11만 1천1백 원. 참 신기한 우연이다. 같은 시각 로한은 학교에서 11월 11일 해군창설기념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필중의 동료 2는 전세금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 이력 때문에 대출을 거부당한다.

S#1 배차 대기실(컨테이너 박스) / 아침

컨테이너 박스 안 필중의 동료인 화물기사 몇몇이 낡은 29인치 브라운관 TV 앞에 모여 있다. 3인용 의자는 딱 차있고, 몇몇은 일어서 있다. TV에서는 나라의 토지개발을 담당하는 제국토지공사의 직원이 개발되어질 땅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대가로 수 억원을 챙긴 기사가 나오고 있다.

필중 : (정수기 앞에서 커피를 타며 신나게 흥얼거린다) 오늘은 믹스벅스구만~ 아이구 춥다 추워.

필중의 동료 1 : 아니, XX놈들!

필중 : (커피를 후루룩 마시며, TV 앞 동료들에게로 다가온다) 왜 그래?

필중의 동료 2 : 아니, 형님 저기 뉴스 좀 보세요. 글썄 제국토지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고 개발될 땅의 정보를 넘겨 줬다네요?

필중 : (눈은 TV에 고정된 채로) 아 그래? 참 별일이야. 진짜 나쁜 놈들 이구만? 저승사자는 뭐하나 저런 놈들 안 데리고 가고 니X!

(말이 끝남과 동시에 뉴스화면으로 전환 / 교차)

아나운서 : 배씨는 제공한 정보를 대가로 현금 약 2억 원의 금품을 받았습니니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일당은 총 7명으로 서초, 송파 소재의 빌라를 가지고 있는 부유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시 필중에게 전환 / 교차)

(전화벨 소리)

필중 : (전화를 받는다) 네네. 아 그래요? 시화공단? 가야지 얼마데? 8만원? 아니 X팔 그거가지고 기름 값이나 나오겠냐고? 아니 안가는게 아니라... 네 잡아줘. 알았어. 태화물산으로 들어가면 되는거지? 응 철근 알았어~

필중의 동료 2 : 형님 배차 나왔어요?

필중 : 응 나 가봐야겠다.

필중의 동료 2 : 형님 근데 오늘 아들인가 뭐 진해에서 올라온다 하지 않았수?

필중 : 어어어 맞아. 나 이거만 하고 퇴근할거야.

필중의 동료 2 : 아이구야. 아주 아들이라면 형님은 아마 지옥 불까지 들어 갈 거야 안 그렇수?

필중 : (웃으며) 당연하지 임마. 하여튼 간다. (뒤돌아서서 나간다)

필중의 동료 2 : 네 형님. 안전운전 하세요.

(나가면서 기름값에 대한 뉴스 음성 2155원 최고치 기록...)

배 : 그러면 오후에 맞춰야겠네요.

S#2 필중의 차 / 아침, 차 안

필중 : (차에 시동을 걸며 천천히 차고지를 빠져오며 흥얼거린다) 아이고~ 가볼까나. 인생 뭐 있나~♫ 돈이 최고야. (흥얼거림 끝)
에이, 나도 돈만 벌 수 있으면 뭘 못할까. 부럽네 그 사람 참 그래도 몇 년 썩고 나오면 부자 되어 있을 거 아냐? 모르겠다. 이번 주 로또나 되면 좋겠네. 에라이 로또 1등만 돼봐. 이 짓도 끝이다 끝이야. (전화벨,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응 아들 어디야? 몇 시에 온다고? 응, 가야지. 알았어. 서울역으로 갈게 그러면 그래. 조심히 와. 응.
(화면 전환되어 차 대시보드 위 필중과 로한이 같이 찍은 해군사관학교 입학식 사진)

S#3 서울역 주차장 / 저녁

(필중은 웬지 모르게 신나는 표정, 서울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면서 연신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 없다)
필중 : 6시 20분 도착이라고 했나?
(그는 그의 자가용에서 나오면서 웃기를 여민다)
필중 : 아이 씨 왜 이렇게 추워 또?
("달그락" 서울역 주차장에서 대합실로 들어가려는 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료 캔이 밟힌다)
필중 : 뭐야 이거 캔? 누가 여기다가 이런 쓰레기를 버린거야?
(줍는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쓰레기통에 캔을 넣고 손을 턴 뒤 대합실로 들어간다)

S#4 서울역 대합실 /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방송 / 필중은 두리번두리번 누군가를 찾고 있다)
방송 : 지금 창원중앙에서 출발하여 6시20분 서울역 정차하는 기차가 타는곳 12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필중은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필중 : 12번이라고 했지?

S#5 서울역 12번 승강장 / 저녁

(멀리서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KTX산천 211번, 기차는 서서히 멈추고 필중은 기차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보고 있다. 기차가 완전히 멈추고 필중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부터 약 10M 오른쪽으로 떨어진 기차출입문에서 해군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로한이 내린다)
필중 : (로한을 확인하고 손을 흔들며) 아들!
로한 : (살짝 놀라며) 어 아버지 언제 왔어요?
필중 : 얼마 안됐어. 가자 빨리.
로한 : 네, 그나저나 서울은 춥네요 진짜.

필중 : 날씨는 추워도 집에 오니까 좋지?

로한 : 당연하죠.

S#6 서울역 주차장 / 저녁

(필중과 로한은 차에 탑승한다)

로한 : (백미러에 달려있는 처음 보는 달마부적을 쳐다보며) 이건 뭐예요?

필중 : (안전벨트 착용하며) 아 그거? 돈이 벼락처럼 생기는 부적.

로한 : 아니 이런 것도 있어요?

필중 : 없는 것보단 낫잖아 (하하 웃는다)

로한 : (고개를 저으며) 에휴….

(시동을 걸고 자동차는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간다)

S#7 필중의 자가용(SUV) / 저녁, 차안

(필중의 차는 운행 중이다)

필중 : 아들 근데 그 사관학교에서는 뭘 배우냐?

로한 : 아니 뭐 이것저것… 그냥 장교로서 마음가짐 같은 것들 배우요.

필중 :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한가?

로한 : 필요하니까 배우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필중 : 뭘?

로한 : 아니 그렇잖아요. 청렴이니 허위를 버리니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러기 쉽지 않다는거.

필중 : (묵묵히 듣고 있다)

로한 : (창밖을 바라보며) 그냥… 잘 모르겠네요.

(정적 / 네비게이션은 어느덧 목적지 10분 남았다고 알려주며 정적을 깬다)

필중 : 어 집 가기 전에 기름 넣어야겠다. 기름이 얼마 없네?

로한 : (핸드폰 중이나 잠시 끄며) 아 그래요? 내가 검색해볼게요 그럼 가장 싼 곳….

필중 : (말을 끊으며) 아냐 됐어.

로한 : ?

필중 : 여기서. 여기가 집에서 제일 가깝고 어차피 가는 길이잖아. 여기서 넣지 뭐

(화면은 경유 값 전광판과 들어가는 필중의 차를 같이 보여준다. 경유 값은 2155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S#8 주유소 / 밤

필중 : (주유기 앞에 주차 후 차에서 내리며) 으흐. 얼마나. 히익! (놀란다.) 2155원? 아니 이놈의 기름 값은 맨날 오르냐? (익숙한 손놀림으로 유종과 양을 선택하고 주유를 한다. 주유 끝) 결제는….

(지갑을 본다. 사업자 카드가 꽂혀있고 아래에는 필중의 신용카드가 같이 꽂혀있다. 사업자 카드를 집는 로한. 꽂기 직전 무언가 생각한다)

필중 : (마음의 소리) 에이 아들이 공직자가 될 건데… 이거 얼마 한다고? 3만원 차이잖아. 쪽팔린 짓 하지말자. (다시 개인 신용카드로 손이 가 결국 주유기에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필중 주유기에서 나오는 음성 11만 1천 1백 원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와 11만 1천 1백 원? 진짜 X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비싸! 아으!

(필중은 다시 차에 탄다. 주유소와 주유소에서 멀어져가는 차를 동시에 보여준다)

S#9 필중의 집 / 밤

(필중의 아내는 늦은 저녁을 준비 중이다. 익숙한 솜씨로 갖은 반찬들을 차려놓고 무엇인가 계속 요리를 하고 있다. 이때 들리는 익숙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필중의 아내는 현관으로 이동한다.)

필중의 아내 : (환하게 웃으며) 우리아들 왔어? (로한을 꺼안는다)

로한 : 엄마 잘 있었지?

필중의 아내 : (로한을 보며) 그럼 엄마가 아들 제일 좋아하는 불고기 해냈지.

로한 : 오 오늘 저녁 미쳤네!

필중 : (실망한 목소리로) 아니 나도 좋아하는데….

필중의 아내 : 자기는 술이나 먹지말어~ (면박준다)

필중 : (시무룩한 목소리로) 네….

(필중과 로한 그리고 필중의 아내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간다.)

S#10 필중의 집 거실(식사중) / 밤

(필중과 그의 아내, 그리고 로한은 늦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다. TV는 뉴스가 나온다.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한 기사, 아침에 나왔던 제국토지공사 관련 뉴스)

필중 : 저 기사. 또 나오네?

로한 : 아 저거 저사람 뭐라더라 원래 집이 가난해서 돈에 대한 그 욕망? 그렇게 엄청났다고 하더라구요?

필중 : 그래?

필중의 아내 : (필중을 보며) 뭔데?

필중 : (다시 밥을 먹으며 우물우물) 아니 무슨 개발될 땅의 정보를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뭐라나.

필중의 아내 : (어이없다는 듯이 약간 성을 내며) 참나. 나라도 저렇게 하겠네. 이 시간에도 돈 많은 놈들은 수십억 수백억 빼먹

고 있는데...

필중 : (말을 끊으며) 에헤이~ 이 사람이 큰일 날 소리하네.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필중의 아내 : 참나. 그래 나는 뭐 우리아들 불고기 해줄 돈만 있으면 돼~ 아들 많이 먹어.

(로한은 이런 필중과 필중의 아내 대화가 익숙한 듯 피식 웃는다)

로한 : (식사를 하며) 아버지.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필중 : 어? 뭔데?

로한 : 아버지 아까 기름 넣을 때 뭘 망설인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시던데?

필중 : 아아. 그거? 아니 나 사업자 카드 화물차 기름 넣는거 있잖아. 그걸로 결제하면 경우는 어차피 화물차에도 넣으니까 티 안 나거든. 그걸로 결제하면 30%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근데 그냥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로한 : (놀란 표정으로) 왜요? 돈 아껴야죠?

필중 : 아냐 그래도 아버지는 쪽팔리게 남에게 부끄러운 짓은 안하고 살았어. 근데 니가 나중에 해군장교가 될 텐데, 이런 사소한 비리를 저지를 수 있겠어.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로한 : (살짝 웃으며) 음... 그런가...

필중 : 로한아 너도 나중에 혹여나 큰돈을 만지게 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절대로 남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마. 돈은 없어도 돼. 안 쓰면 그만이야 근데 쪽팔림은 영원히 남아. 그것만은 절대 하지 마.

필중의 아내 : 아이구야 이양반아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뭐야? 우리 아들은 당당하게 살아 괜찮아.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당당하게 살게 해줄게.

로한 : 네~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밥 먹고 치킨이나 한 마리?

필중, 필중의 아내 : 좋지!

(필중과 필중의 아내 로한이 식탁에서 하하 웃으면서 F.O.)

S#11 서울역 12번 승강장 / 낮

(F.I.)

(사람이 많은 서울역 승강장 가운데 로한과 필중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로한 : 아버지 이제 가볼게요. 방학이 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네요.

필중 : 그래. 조심히 내려가고 방에 들어가서 시간나면 전화해.

로한 : 네. 들어가세요.

(로한은 KTX를 탄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다)

로한 : (두리번거리며) 12의A 12의A... 여기다.

(로한은 자신의 자리에 앉고 창 밖에 있는 필중을 본다. 필중은 손을 흔들며 로한에게 잘 가라고 한다. 로한은 전화한다고 손짓하며 기차는 출발한다.)

(기차가 완전히 떠난 후)

필중 : 아이구 춥다.

필중 : 아이구 출다.

(필중은 종종걸음으로 승강장에서 빠져나와 대합실로 이동한다.)

S#12 주차장, 필중의 자가용 안 / 아침

이후 필중은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본인의 차에 걸어가 탑승한다.

필중 : (출발 전 무언가 생각난 듯이) 아 맞다. 이번 주 로또 어떻게 됐지? (핸드폰으로 로또 당첨번호를 찾아보는 필중 / 핸드폰 화면과 필중의 얼굴이 교차로 나온다.) 음... 오! 4등? 괜찮은데 4개나 맞았네! 오늘 재수가 좋은데?

(F.O.)

S#13 배차 대기실(컨테이너 박스) / 아침

(F.I.)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바둑을 두거나 티비 앞에 모여 얘기하거나 사뭇 정돈된 듯 하면서 어지럽게 대기실 안에서 자신의 배차를 기다리고 있다)

필중의 동료 2 : (반갑게 인사하며) 어 형님 왔어요?

필중 : 응. 야 나 로또 4등 됐다

필중의 동료 2 : (웃으며) 에이 그거 얼마 한다고. 형님 그러지 말고 나랑 사다리하나 탑시다.

필중 : (의아하게) 사다리?

필중의 동료 2 : 이거 봐요.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도박장인데, 이게 50%확률로 운만 좋으면 지금 당장 100만원도 먹어요...

필중 : (말을 끊으며) 아이 야! 이런 거 할 시간에 마누라한테 십 원 한장이라도 더 갖다 줘. 쉽게 번 돈은 쉽게 쓰는 거야. 액수가 커지면 그만큼

필중의 동료 2 : 오케이! 거기까지! 지금까지 김필중 의원의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중 : 야 너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나처럼 취미로 즐겨

필중의 동료 2 : 네네 알겠습니다.

필중 : 여튼 간에 너 제수씨 속 썩이지 마라. 간다.

필중의 동료 2 : 어디가요?

필중 : (로또용지를 흔들며) 이거 바꾸러. 수고해라

(필중은 뒤돌아서 배차 대기실을 나간다)

필중의 동료 2 : (소리친다) 형님 이거 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요~ 내가 추천인 해드릴게!

필중 : (혼잣말로) 에이 백날 해봐라 불법은 불법이야. 절대 안돼.

(걸어가는 필중의 뒷모습)

S#14 로또 판매점 / 아침

(로또 판매점 가운데에는 석유난로가 있다. 판매점 사장은 구석에 있는 작은 티비를 보며 꿀을 먹고 있다)

판매점 사장 : 어 필중이 어서와.

필중 :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거예요? (난롯가로 간 후 손을 비비며 연신 추운티를 내고 있다)

판매점 사장 : 내일이 소한이래. 원래 대한이보단 소한이가 더 춥지 않은가? (혼자 웃음)

필중 : (사장에게 다가가며) 농담도. 사장님 이거 4등 당첨이요. 얼마예요 근데?

판매점 사장 : 4등? 잠깐만 (인터넷을 뒤적이며) 이야 오늘 당첨액수 좋다. 여기 당첨금.

필중 : 얼마데요? (돈을 받고 세면서 판매점을 나간다) 여튼 가볼게요.

판매점 사장 : 어 조심히 가~ 로또도 한 장사고~

S#15 로또 판매점 주차장 필중의 화물차 안 / 아침

(필중은 당첨금을 화물차에 올라 탄 후 세고 있다.)

필중 : 보자 10만... 11만 1천 뭐야 백 원은? 11만 1천 1백 원이네. 1이 많네. 잠깐만... 뭔가 익숙한 숫잔데? (의아함을 나타내며 시동을 건다.)

(F.O.)

S#16 해군사관학교 대강의실 / 아침

(F.I.)

(화면 전면엔 PPT 슬라이드가 빔 프로젝터로 띄워져 있고, 청렴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강사는 청렴전문 강사)

강사 : 자 여러분. 여기 해군사관학교에서 제가 오늘 사관생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옛 우리 선조들은 '선비정신'으로 살아왔다고 하죠. 선비정신이란 깨끗한 지조와 기개, 불요불굴의 정신력, 청정한 마음가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이시자 한국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께서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을 창설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로한 : ...11월 11일입니다.

강사 : 네. 11월 11일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1945년 11월 11일이죠. 그럼 왜 11월 11일에 창설하셨을까요?

(조용한 강의실. 백 명 남짓 되는 생도들이 조용하다)

강사 : 그 이유는 선비정신을 강조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비 사(士)의 파자가 열, 하나 십, 일이죠? 청렴한 선비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 손원일 제독은...

(F.O.)

S#17 해군사관학교 기숙사 / 밤

(F.I.)

(불꺼진 기숙사에서 스탠트 불빛에 의지하며 로한은 기숙사에서 손원일 제독이라는 책을 읽고 있다)

로한 : (기지개를 켜며) 아구구~ 졸려. 이제 슬슬 자야겠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린다)

로한 : (핸드폰을 보며) 뭐지? 전화는 아닌데?

(필중에게 온 카카오톡 메시지 / 다음은 카카오톡 메시지)

필중 : 로한아 아빰데, 혹시 용돈 필요해?

로한 : 응? 갑자기?

필중 : 응. 오늘 로또 4등 됐거든~

로한 : (살짝 웃으며) 오 얼마데?

필중 : 보내줄게 용돈 해

로한 : 땡큐~

(로한은 이제 잠에 들기 위해 침대로 들어간다. 이때 울리는 진동소리)

로한 : 얼마지?

(핸드폰 화면 상단에 나타난 액수 111,100원 입금되었습니다)

(F.O.)

S#18 은행

(F.I.)

(필중의 동료 2는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절박한 표정)

필중의 동료 2 : 아니 글썸. 왜 내가 대출이 안 된다는 건데요?

은행 창구 직원 : 고객님의께서는 불법도박 사이트 이용 이력이 있으세요. 그런 분께 저희는 대출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필중의 동료 2 : 글썸 그건 옛날에... 어휴.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부족한 전세금을 못 준다구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는 다니까?

은행 창구 직원 : 고객님의 죄송한데, 저희 은행 말고 다른 은행에 방문 하시는게...

필중의 동료 2 : 아니 X팔! 야 여기 지점장 나오라고 해봐.

(필중은 은행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보안직원들이 필중의 양팔을 포박하고 강제로 은행 밖으로 끌어낸다)

(F.O.)



나비 효과

| 이 글

주요 등장 인물 소개

경희<나라은행 대리, 청렴하려고 노력하지만 주변의 압박으로 점점 청렴에 대해 고민한다.>

해연<나라은행 과장, 청렴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한다. 불의에 맞서고자 하지만 두려움도 공존하는 인물.>

정민<나라은행 대리,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인물.>

시놉시스

티 없이 맑은 날, 경희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는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아이가 주고 간 편지였다.

편지 속에는 그저 '저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

편지가 잊혀 갈 무렵.

비가 많이 내리던 날 경희는 우연한 계기로 고객에게 관습적으로 씌워진 돈을 받아 온 회사 내부 사람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자신은 거부하려 하지만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걱정하는 부장의 모습을 보며 환멸을 느낀다.

직원들이 쓰는 휴게실 안쪽에는 커다란 거울.

금이 갔지만, 소소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바꾸지 않던 거울의 모습과 은행 내부의 모습이 닮아있다.

"왜 거울이 깨졌는데 바꾸지 않아요?"

"뭐... 귀찮기도 하고... 얼굴만 잘 보이면 되잖아?"

그런 질문과 대답이 몇 번 반복되니, 경희는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희는 자신과 함께 회사의 부정적인 부분을 좋지 않게 보던 동료 사직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우연히 동료의 자리에서 자신이 예전에 어린아이에게 받은 편지를 보게 된다.

'저도 언니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가득 채운 낙서 같은 글씨, 이 은행에 그런 멋진 어른이 어디 있다고. 그런 관습 하나도 깨지 못하는 어른밖에 없는데. 경희는 편지를 다시 보며 자신이 원래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떠올린다.

다음 날 소란스러운 회사. 누군가가 은행 직원들이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경희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동료 직원의 사직을 막으며 같이 싸울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회사에는 새로운 거울이 들어온다.

"무슨 거울이에요? 갑자기..."

"아, 어제 보니까 거울이 깨져 있더라고. 완전히."

아주 작은 행동이, 주변의 모든 것을 바르고 깨끗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 작은 아이의 편지가 경희의 삶에 나비처럼 날아와 지금도 그녀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01. 은행 안 (낮, 맑은 날씨)

한 아이가 은행 유리문 밖에서 안을 몰래 보고 있다. 아이는 은행원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숨었다가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가를 반복한다. 그러자 은행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의 앞으로 간다.

경희 : (문을 열어주며) 혹시 더워서 들어오고 싶은 거야? 그럼 들어와서 쉬고 가도 괜찮아~

아이 : (뒷짐을 지고 망설이며) 아니요...(도망을 간다)

경희 :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애네...

다시 자리로 돌아가 바쁘게 일하는 경희. 잠시 일거리를 가지러 간 사이에 편지가 한 통 놓여있다. 꽃과 나비가 그려진 작은 편지. 편지의 안에는 그림을 그린 것 같은 글씨가 적혀있다.

‘저도 꼭 언니 같은 어른이 될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엔 힘주어 적은 듯한 글씨가 적혀있다. 경희는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는다. 아까 아이가 서 있던 문밖을 바라본다.

혜연 : (경희의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며) 경희씨, 그거 뭐야? 아까 어떤 꼬마가 후다닥 뛰어오더니, 경희씨 자리에 두고 갔어, 아는 애야?

경희 : (웃음 섞인 목소리로)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까 저 쪽에서 기웃거리더니... 이 편지를 주려고 그랬나 봐요.

혜연 : (부러워하며) 경희 씨는 좋겠다~ 편지도 받고

경희 : (편지를 접으며) 요즘 방학 기간이잖아요. 아이들 방학숙제 같은 거겠죠.

혜연 : (아리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근데 저 꼬마, 분명 어디서 봤는데.

경희와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한다.

상사 : (목소리만 들린다) 경희씨, 이쪽으로 좀 와봐.

경희 : (급하게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아, 네 지금 가겠습니다.

#02. 식당 (점심시간, 맑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경희와 혜연. 문득 밥을 먹다가 경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혜연.

혜연 : 경희씨는 어렸을 때, 동경하던 사람이 있었어?

경희 : 갑자기 그건 왜요?

혜연 : 아까, 경희씨한테 편지 주고 간 애 있잖아. 나 기억났어.

경희 : 누구데요?

혜연 : 길에서 500원 주웠다고, 경희씨한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면서 찾아왔었잖아. 며칠 전에.

경희 : (생각났다는 듯) 아.

혜연 : 생각났어? 경희씨가 그거 보고, 지갑에서 1,000원 더 꺼내서 주면서, 정직한 아이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했잖아.

경희 : (밥을 한 손가락 먹으며) 생각해보니 그랬네요. (조금 생각하다가 무심하게) 그때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었거든요. 마침 사라 가는 길이기도 했고요. 근데 과장님은 그런 걸 잘도 기억하시네요.

혜연 : 그때 그 아이 눈빛이. 내가 경희씨 면접 볼 때 눈빛이랑 똑같았거든.

경희 : 아니 자기 눈빛을 어떻게 알아요.

혜연 : 일단 들어봐. 맑고 깨끗한 보석을 본 눈빛이야.

경희 : (손가락을 들다가 멈추며) 오... 쫘 감동인데요?

혜연 : (경희를 보다가 다시 획 하고 밥을 먹으며) 근데 지금은 아니야.

경희 : (손가락을 놓으며) 네? 왜요. 왜요~~

밥을 먹는 두 사람의 모습. 점점 소리가 작아진다.

#03. 은행 안 (낮, 비가 내림)

유리문 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 경희는 혜연과 커피를 마시며 휴게실 앉아있다.

혜연 : (커피를 마시며) 경희 씨, 이번에 승진한다면서? 축하해~

경희 : (웃으며) 네.

혜연 : 이제 좀 쉬면서 일하고 그래, 부하직원도 많이 생겼겠다. 시키면서 쉬엄쉬엄 일하면 좋잖아.

경희 : 저 그런 성격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바른 자를 잡으며) 적당히 할 거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를 풀며) 기억 안 나세요? (웃는다)

혜연 :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알지. 내가 그 모습 때문에 속았잖아...

경희 : (놀라며) 혹시... 마음에 안 드셨던 건가요?

혜연 : (머리를 잡으며) 안 하는 일이 없어서 문제예요. (자료를 챙겨가며, 경희를 보며 웃는다) 아주 사람 뽑은 보람 있게 만든 다니니까, 이따 점심 때 봐~

떠나는 혜연의 뒤로 과거에 면접 봤을 때의 기억을 회상하는 경희.

#04. 회상_회의실 (낮)

회의실에서 책상을 사이로 면접관과 경희가 앉아있다. 경희가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다.

경희 : 저는 일을 적당히 하라고 하신다면, 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노력의 한계를 정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 : (종이에 체크하다가 경희를 보며) 만약, 고객들이 청탁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 사람의 작은 부탁을 적당히 (강조한다) 들어주는 게 모두에게 이롭다면?

경희 : (당찬 목소리로 망설임 없이) 먼저 법에 대한 부분을 고객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린 다음 정중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면접관 : 회사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요?

경희 : 네! 그렇다면 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언가 고민스럽다는 표정을 짓는 면접관과 마음에 든다는 표정을 짓는 혜연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희의 얼굴.

#05. 회의실 (밤)

무표정의 경희의 얼굴과 앞의 장면에서 당당한 표정이 오버랩 된다. 부장이 경희를 혼내고 있다.

부장 : (화를 내며) 김 대리, 지금 우리 은행이 박 사장이랑 거래한 지 몇 년인지 알아? 십 오 년이라고!! 근데 그런 박 사장을 그냥 돌려보내? 너 미쳤어?

경희 :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

부장 : 이번에 우리 지점 실적은 경희씨가 다 말아먹을 거야?

경희 :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경희와 경희를 혼내는 부장의 모습. 혼내는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진다.

#06. 탕비실 (낮)

거울 모서리 클로즈업. 흠집이 나 있다. 거울에 비친 경희의 모습이 보인다.

모서리를 보고 있는 경희.

경희 : (거울의 모서리를 바라보며) 거울 모서리가 깨졌네요.

정민 : (커피를 마시며) 아, 그거 예전부터 깨져 있었어요.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봤구나.

경희 : 근데 왜 안 바꾸나요? 깨진 거울을 쓰면 위험하잖아요.

정민 : (거울 쪽으로 다가온다. 거울의 깨진 부분을 살펴보며)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요. 티도 하나도 안 나.

경희는 불안하다는 눈빛으로 거울을 바라본다.

정민 : (커피를 돌리며) 그나저나 경희씨, 그거 그냥 받아요.

경희 : (거울에 비친 동료의 모습을 본다) 네?

정민 : 아까 오전에 나한테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박 사장님이 주고 간 거.

경희 :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아..

정민 :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던 관습 같은 거예요. 청탁 뭐 그런 심각한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다들 조금씩 모아서 용돈벌이하는 거지 뭐.

경희 : (망설이며) 요즘 그런 거 받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정민 : (별생각 없다는 듯이) 근데 옛날부터 다 그래왔다고 하잖아. 박 사장님도 요즘 힘들어하는 거 우리 은행사람들 다 알아요. 거래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경희의 눈치를 살핀다) 그거 하나하나 잡겠다고 하는 품이 더 들지. 그냥 쌔짓돈이야 뭐. 서로서로 좋은 마음에서 하는 거죠.

경희 : (작은 목소리로) 그래도...

정민 : (경희의 등을 밀며) 아, 근무시간 다 지나겠네, 그만 갑시다.

경희는 얼떨결에 정민의 손에 떠밀려 나간다. 경희의 뒤로 구석이 깨진 거울이 경희와 정민의 모습을 비춘다.

#07. 탕비실 (밤)

거울에 비친 조명이 거의 수명을 다해 깜박거린다.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경희.

경희 : (억울하다는 듯이) 부장님은 왜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 넘어가시는 걸까요?

혜연 : 글썄... 저 박 사장님이 부장님이 데려온 고객이라 그러려나?

경희 : 네? 정말요?

혜연 : (피식 웃으며) 경희씨, 거짓말 같은 거 잘 못 치지.

경희 : 아... (고민한다) 뭐 그래도 어렸을 때 학원 안 갔는데, 갔다고 정도는 쳐봤죠... 결국 끝까지 거짓말을 못해서 더 크게 혼만 나고 끝났지만요...

혜연 : (작게 웃으며) 그럼 경희씨도 알겠다. 거짓말이라는 게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잖아. 경희씨가 어렸을 때도 아마 그냥 조금 놀고 온 거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속이려고 하니,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들켰던 거지.

경희 : 과장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보네요.

혜연 : 그런데, 누군가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거짓말의 성이 있다면, 어떻게 할래?

경희 : 성이요?

혜연 : 응

혜연은 커피를 마시며 열린 문 사이로 작게 보이는 부장의 모습을 지켜본다.

부장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다.

혜연 : (부장을 바라보며) ‘관습’이라면서 말이야.

혜연은 다 마신 종이컵을 구긴다. 마음이 무거운 듯 자리에서 일어서는 혜연.

경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08. 탕비실 (밤, 비)

앞의 장면에서 이어 거울 안으로 경희가 들어온다.

경희 : (거울 구석의 금이 간 부분을 조금 세게 누른다) Na. 정말 작은 금은 괜찮은 걸까... (따끔한 느낌 때문에 손을 떼다) 아! 아... 베었네, (피가 흐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뒤를 돌아보며) 약이 남았던가.

다친 손을 잡고 탕비실을 나오는 경희. 경희를 뒤로 거울에 금이 조금 더 갈라진다.

#09. 은행 안 (밤, 비)

경희는 다친 손을 잡고 자신의 사물함을 뒤진다. 자신의 사물함을 뒤지다가 문득 혜연의 자리에서 약을 바르던 기억을 떠올린다.

경희 : (약을 집으며) 찾았다! (약의 옆에 있는 종이를 발견한다) 어?

혜연의 사직서다. 요 며칠 동안 표정이 좋지 않았던 혜연의 모습.

그리고 무언가 다짐한 듯한 혜연의 모습을 떠올린다.

경희는 사직서를 집으며 마음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회상한다.

밝게 대답하는 경희의 목소리에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는 면접관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신입으로 들어와 바쁘게 일하는 모습.

처음 승진했을 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경희는 혜연의 서랍에서 꽃 그림의 편지봉투를 발견한다.

경희 : (편지를 집으며) 잠깐 보고 준다니, 아직도 가지고 있었네.

편지에는 여전히 낙서 같은 글씨로 '언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라고 적혀 있다. 편지를 읽던 경희는 탕비실 쪽을 바라본다. 그리고는 마음을 정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다.

#10. 회사 안 (낮, 비 갠 맑은 하늘)

회사 안이 소란스럽다. 누군가 내부에 부정한 돈을 받는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것이다. 각자 모여서 수군거리는 직원들 사이에서 경희는 무심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

그때 유리문 밖에서 택배 기사가 커다란 거울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온다.

택배기사 : (문을 반쯤 열고) 거울 배달 왔는데요. 어디에 두면 될까요?

직원1 : (택배기사에게 안내하며)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직원2 : (직원1에게) 무슨 거울이에요?

직원1 : (택배기사의 짐을 같이 들어주며) 아, 어제 보니까. 거울이 깨져있더라고. 작은 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깨져버리고... 이참에 바꾸고 좋잖아.

경희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옆에 웃는다.

혜연은 자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 그런 혜연의 뒤로 경희가 조용히 다가온다.

경희 : (사직서를 찾는 혜연을 보며) 뭐 찾으세요?

혜연 : (당황하며)어? 아니...

경희 : (사직서를 보여주며)이거 찾으세요?

혜연 : (사직서를 뺏으며) 이걸 경희씨가 왜...

경희 : (웃으며) 과장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만두지 마세요...(표정이 풀어지며) 과장님 없으면 저 누구랑 놀아요.

혜연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 경희의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 웃는다.

혜연 : 경희씨,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가자.

경희 : 갑자기 아이스크림은 왜요?

혜연 : 정직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야.

#11. 은행 안 (낮, 맑음)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경희와 혜연의 모습이 내레이션과 함께 지나간다.

경희 : Na. 우리는 사실 작은 행동이 만드는 큰 결과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작은 금이 저 커다란 거울 전체를 깰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세상이 너무 각박하기만 한 건 아니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경희는 자신의 다이어리에 꽃아 둔 편지 봉투를 보고 웃는다.

경희 : Na.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이 우리 전부의 삶을 바르게 지탱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해서 작고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항상 바르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진다.

택배기사 : (거울 설치를 끝내며) 아이고, 무거웠네요. 거울 설치 다 됐습니다.

경희는 새로 설치된 거울 앞에 다가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자신감에 차 있는 표정이다.

경희 : Na. 그 작은 아이의 편지가 나의 삶에 나비처럼 날아와 지금도 나의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거울을 보며 표정을 연습하던 경희의 옆으로 혜연이 다가온다.

혜연 : (거울을 보며) 부장 상대할 생각하니 긴장이 되네... 경희씨는 긴장 안 돼?

경희 : (편지를 보여주며) 저는 부적이 있거든요.

편지 속 나비가 편지 밖으로 나와 은행을 날아다니다가, 열려 있는 문 밖으로 나간다.

화면이 하늘로 연결되며, 한 가정집을 비춘다.

#12. 집 안, 낮

한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편지를 적는다. 작은 손이 여러 가지 색의 볼펜을 바꿔가며 그림인지 글씨인지 모를 내용을 적었는데 몇 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잠이 든다.

아이의 머리카락 위로 바람이 불고, 얼음을 담은 유리컵이 햇살을 왜곡시켜 아이의 눈가에 안경을 씌운다. 아이는 자신이 잠이 든 줄도 모르고 눈썹 사이를 찌푸렸다, 풀었다를 반복하며 손가락을 움짚거린다.

아이의 손 주위로 ‘대단하고 멋져요’라고 쓰인 종이 클로즈업

아이의 아빠가 거실로 나오는 소리가 들린다.

아빠 : (작은 목소리로) 우리 딸 잠들었네... 근데 뭐가 대단하고 멋지다는 거야? 여보, 뭐 쓰고 있었는지 알아?

엄마 : (작은 목소리로, 웃으면서) 방학 숙제로 무슨 편지를 쓴다나 봐. 존경하는 인물한테 직접 편지 전해주기 숙제인데, 저번에 은행 따라갔을 때 봤던 은행원이 꽤 멋있었나 보더라고, 은행원한테 편지를 쓰고 싶다네.

아빠 : 친구들은 경찰관이나 소방관한테 쓴다고 할 텐데, (웃으며) 역시 우리 딸은 취향이 확고해.

엄마 : (남편을 보며 웃는다) 우리 딸이 멋지다고 하면, 그게 제일 멋진 사람이지 뭐야.

편안한 표정으로 잠든 아이의 얼굴. 무슨 꿈을 꾸는지 웃고 있는 모습이다.

<끝>



그 해 여름

| 김대영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박혜미<31세. 지체 장애인으로 공공근로 정책을 통해 구청에 입사, 1층 안내와 폭염대피소 운영을 맡고 있음.>, **이종석**<팀장. 박혜미의 직속 상사. 무뚝뚝하고 말수가 없는 편이나 성실하게 일하는 박혜미를 묵묵하게 지원해준다.>, **포목할머니**<인근 시장에서 포목점을 운영하다가 가게를 접고 요즘은 친구들과 구청 폭염대피소에 드르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 **장씨할배**<성미가 급하고 호통부터 치는 성격이라 곁에 사람이 없다.>

시놉시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자, 혜미가 일하는 구청에서 1층 안내공간을 비워 폭염대피소를 운영하기로 한다. 이종석 팀장은 1층 안내와 같이 보조적인 역할만 하던 혜미에게 폭염대피소 운영을 맡긴다.

혜미는 자신이 장애인이라 폭염대피소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진다. 대피소 정원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어르신이 몰리면서 대피소 의자 쟁탈전이 벌어진 것이다.

지인을 동원해 서로 자리를 맡아주며 하루 종일 대피소에서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밖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시원한 바람 한 번 쐬지 못하는 분이 생기자 혜미와 이팀장은 고민에 빠진다.

연일 갈등이 반복되자, 포목할머니와 친구들은 슬쩍 혜미에게 음료수와 선물을 내민다. 폭염대피소 문이 열리기 전에 직원인 혜미가 자신들의 자리를 미리 맡아줬으면 하고 청탁을 한 것이다.

생전 처음 청탁을 받은 혜미는 그간 누군가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배려를 해주기만 바랐던 지난날들을 떠올린다. 혜미는 부정부패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욕구 때문이 아니라 인정과 도리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는 것이 청렴을 깨트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혜미는 마음을 다 잡는다. 누구보다 약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평생 약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공정함과 청렴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혜미는 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한다. 혜미 자신의 자리조차 대피소 자리로 내놓고 하루 종일 서 있겠다는 약속을 하며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회의를 연 것이다.

그 해 여름, 구청과 구민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한다. 올바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청렴이라는 가치를 지켜낸다.

이른 아침, 바쁜 걸음을 걷는 활기찬 사람들을 배경으로 페이드인.

사람들 사이로 헤미의 발이 보인다. 출근 하는 행렬 속의 하나가 되어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 기뻐서 헤미는 바쁘게 발을 움직이는 와중에도 히죽 웃는다.

헤미 : (혼잣말) 내가 출근을 하다니.

구청 로비로 들어서는 헤미를 발견한 이종석 팀장은 헤미가 면접을 보러 오던 날을 회상한다. 헤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팔다리가 뒤틀린 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헤미의 부모님은 작은 어촌 마을의 고만고만한 살림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형편에도 기어이 헤미를 학교에 보내셨다.

헤미 : 제가 어릴 때 마을 사람들까지 나서 그 형편에 장애인까지 가르치냐고 만류해도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배워야 사람 노릇하고, 배워야지만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섞여 살 수 있다는 것이 확고한 신념이셨거든요. 덕분에 저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헌신 덕분에 저는 대도시의 대학교로 유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졸업했습니다. 사실 취직이 쉽지가 않고, 이렇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는 곳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절한 헤미의 표정에 이팀장은 그녀의 이력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본다. 대학을 졸업한 후 꽤 시간이 흘렀으나 면접을 본 경험조차 거의 없었다. 헤미는 공공근로 정책 조건에 맞았고, 성적도 우수했다. 이팀장을 헤미를 팀원으로 뽑았다.

이팀장 : (회상을 끝낸 이팀장은 고개를 한 번 흔들고 앞을 바라본다.) 박헤미씨, 첫 출근 축하해요! (팀원들을 손짓하며) 모르는 건 팀원들한테 물어보면서 우리 한 번 잘해봅시다. 오늘부터 1층 전체 안내를 박헤미씨가 맡도록 하고 나머지 팀원들도 헤미씨가 적응할 수 있게 잘 도와주세요.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헤미가 1층 출입구 근처로 걸음을 옮긴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기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몸을 크게 휘청거리며 기우뚱 기우뚱 걸음을 옮겼다. 팀원들은 헤미의 눈치를 보며 슬쩍슬쩍 그녀의 걸음걸이를 걷는질 했다.

헤미 : (활짝 웃으며) 어서오세요. 00구청입니다!

민원인1 : 지방세 내는 곳이 어디죠?

헤미 : 네, 3층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왼쪽으로 꺾으시면 엘리베이터가 나올 거예요.

민원인1 : (헤미의 어눌한 발음에 짜증을 내며) 아우, 좀 큰 소리로 말해야지. 뭐라고요?

팀원1: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헤미는 팀원1에게 얼른 눈짓으로 감사인사를 한다.

민원인2 : 아이고, 몸도 불편한데 돈 버느라 고생 많네.

헤미 : (난처한 듯 웃으며) 아닙니다.

민원인2 : 아니긴 뭐가 아니야. 참 요즘 사람들이 본 받아야 해. 요즘엔 그저 쉽게 돈 벌려고들 하는데 돈 버는 일에 쉬운 일이 어
디겠어. 움직일 수만 있으면 나와서 돈 벌어야지. 잘하고 있는 거야. 몸 불편해도 이렇게 나와 일하니 얼마나 좋아.

헤미 : 네, 감사합니다.

이팀장과 팀원들은 헤미를 안쓰럽게 바라보지만 헤미는 씩씩하게 헤쳐 나간다. 그렇게 헤미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한여름이 되
었다. 이제는 일에 적응을 한 헤미. 팀원들과도 많이 친해져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러 간다.

팀원2 : 아참, 다들 그거 들었어요? (고개를 가웃거리며) 뭐였더라? 그 무더위 대피소였나?

이팀장 : 폭염대피소 말인가요?

팀원2 : (반색하며) 네, 맞아요! 1층에 폭염대피소가 생긴다던데 진짜예요?

이팀장 : 소문이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준비가 끝나면 다음 주부터는 운영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팀원1 : 폭염대피소까지 운영하면 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팀장 : 네 맞습니다. 이미 맡은 일들이 포화상태니 이번 폭염 대피소 운영은 전적으로 박헤미씨에게 맡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헤미 : 네? 제가요?

팀원1 : 하긴 이제 헤미씨도 온지 꽤 됐지. 자신만의 업무를 맡을 때가 됐어.

팀원2 : 그렇긴 하지만... 폭염 대피소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할텐데 헤미씨 괜찮겠어요?

헤미 :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팀장 : 그 동안 헤미씨 일하는 거 보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뭐든 지금처럼 성실하게 배워서 하려는 자세만 있으면 못 할 일
이 없어요.

팀원1 : 그건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언제까지 헤미씨도 다른 직원들 일을 보조만 할 수는 없지.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적으로 담
당해서 잘 해봐요. 우리도 여력 되는 대로 도와줄게요.

헤미 :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헤미와 동료들이 여분의 플라스틱 의자를 1층에 배치하고, 정수기도 여러 대 옮기는 중이다. 각 부서에서 지원한 책도 있고, 에
어컨 바람을 넓게 퍼트릴 선풍기도 곳곳에 있으니 시원한 대피소가 되었다.

헤미 : (헤미가 거울을 보며, 연습을 한다.) 후, 다시 한 번 해보자. 안녕하세요? 폭염대피소입니다.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으시
면 됩니다.

팀원2 : 헤미씨, 아까부터 무슨 연습을 그렇게 해요?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헤미 : 처음으로 저 혼자 맡은 일인데 실수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아서요.

팀원2 :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헤미씨, 이제 일도 익숙하고, 괜찮아요.

잔뜩 굳어진 헤미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진다. 9시 정각이 되자, 대피소 문이 열리고 어르신들로 꽉 찼다. 발 디딜 틈도 없게 되자 바닥에 주저앉는 분들도 계셨다. 그래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였다.

장씨할배 : 이거 뭐여? 왜 자리가 없어? 아 우린 바닥에 앉으란 말이여?

높은 고함 소리에 헤미가 화들짝 놀라며 달려간다.

헤미 : 자리가 부족해서요.(우물쭈물하며)저기..자리가 선착순이어서..

장씨할배 :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여? 먼저 온 사람은 덩고 나중에 온 사람은 안 더워? 다리 아파 빨리 못 걸으면 시원한 바람도 못 쐬는 거여?

헤미 : 아니요, 어르신 그게 아니라요....

문밖에서 왜 우리는 자리를 주지 않느냐는 다른 어르신들의 원성에 헤미의 정신이 아득해진다. 불만 민원이 폭주하자,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선착순으로 자리가 차면 더는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드려도 어르신들은 요지부동이다.

자리 없는 할아버지1 : 아니, 구청에서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야지. 누구는 폭염 대피를 하고 누구는 못 한다는게 말이 돼?

헤미 : 죄송합니다. 자리가 날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리 없는 할아버지1 : 앵무새처럼 죄송합니다만 하지 말고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이럴 거면 폭염 대피소 운영한다고 온 동네방네 광고는 왜 했어?

이팀장 : 죄송합니다. 어르신. 헤미씨는 잠깐 쉬어요. 내가 여기 좀 일일게요.

이팀장이 그만 가보라고 손짓하자 헤미는 화장실로 뛰어가 울음을 터트린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무작정 차례를 기다리며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그렇다고 들어오시라고 할 수도 없었다. 팀원들은 대피소 관련 민원을 처리하느라 녹초가 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페이드아웃.

웅성거리는 할머니들 사이에서 의기양양하게 대피소를 둘러보는 포목할머니. 포목 할머니 곁으로 친구들이 동그랗게 대열을 만들어 의자를 차지하고 앉아있다.

포목할머니 : 내 말이 맞지? 줄서서 기다리면 언제 자리 날지 몰라. 한 명이 먼저 와서 의자를 다 맡아 줘야 해. 그래야 모두 앉을 수 있어.

할머니친구1 : 맞아. 맞아. 화장실 갈 때도 무조건 다른 사람 의자를 맡아야 해. 아무도 못 앉게 해야지 까딱하면 자리 뺏긴다니까.

포목할머니를 둘러싼 할머니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포목할머니 : 아, 요즘 여기 앉아 시원한 바람 쐬면 전기세 절약하고 좀 좋아. 자네들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괜히 밖에서 돈 쓸 필요가 없어.

할머니친구2 : 아이고, 있는 사람이 더 하다더니 너는 바로 작년까지도 돈 벌고 포목점도 돈 받고 팔아 놓고 돈 타령이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의자 차지하고 앉아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밖에 줄이 길던데. 다 같은 처지끼리 이래도 되는 원. 우리 늙은이들끼리라도 이런 자리 나눠 앉아야 하는 거 아니야?

포목할머니 : (표정이 사나워진 채로) 그럼 넌 일어나서 집에 가. 네 자리 양보해주면 되겠네. 우린 천천히 놀다가 점심 먹고 갈 테니 넌 그만 가봐. 애들아, 내가 오늘 저번에 이야기 한 그 칼국수 집 가보자. 내 살게.

할머니친구2 : 아...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포목할머니의 섹직한 표정을 보던 할머니는 금방 주이 들어 입을 다문다.)

할머니무리를 한참 바라보던 장씨할배가 소리를 뻑 지른다.

장씨할배 : 아, 전세 냈어요? 길게도 앉아 있네. 내 참. 여기 줄 선거 보이지도 않나?

포목할머니 :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람. (고개를 아예 돌려버린다.)

장씨할배가 씩씩거리며 가버리자, 다른 어르신들도 한 마디씩 보탠다. 다음 날 아침, 대피소 문이 열리자마자 장씨할배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온다.

장씨할배 : 어디 한 번 해보자고! (의자를 여러 개 붙여 다리를 올리며) 아, 누군 자리 맡을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어?

장씨할배가 맡은 의자들을 포목할머니 머리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 배분하자, 포목할머니가 몸을 뒤로 젖히며 화를 낸다.

포목할머니 :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먼저 줄을 썼는데.

장씨할배 : 아 그쪽보다 내가 일찍 와서 자리 맡아뒀다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데 무슨 문제? 그쪽도 어제 그렇게 했잖아.

헤미 : 저기...그러시면 안 돼요. 자리 맡으시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장씨할배 : 안 되긴 뭐가 안 돼? 저 할머니들 그렇게 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잔말 허지 말어.

포목할머니 : 아가씨가 여기 책임자야?

헤미 : 네? (이제야 깨달았다는 듯) 네. 제가 책임자예요.

포목할머니 음, 알겠어요. 좀 있다 다시 올게요.

포목할머니가 친구들을 데리고 사라지자, 헤미는 참았던 한숨을 토해낸다.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팀장도 빠른 뒷목을 두드리며 눈살을 찌푸린다.

포목할머니가 수상쩍은 걸음으로 폭염대피소 문을 연다. 할머니 친구들은 그런 포목할머니를 숨기더라도 하듯 에워싸고 있다.

포목할머니 : (눈치를 보듯 주변을 힐금거리며)아가씨, 이봐요! 아가씨.

헤미 :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포목할머니 : 도와줄 건 없고 여기 이것 좀 마셔봐.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것 좀 먹어봐.

헤미 : (곤란한 표정) 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런 거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할머니들 나눠 드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포목할머니 : 저기 그럼 이거라도 (남들 보지 않게 포장된 꾸러미를 스욱 헤미 책상에 올리며) 이거 우리가 돈 모아서 샀어. 아가씨 선물이야.

헤미 : 아닙니다. 선물 받으면 안 돼요. (꾸러미를 다시 할머니 가방에 밀어넣으며) 마음만 받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포목할머니 : 응, 저기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요즘 줄이 너무 심하더라. 우리 같이 무릎 아픈 할망구들은 자리 말지도 못하겠어. 아주 꼭두새벽부터 줄을 서서 있더라고.

헤미 : 네, 요즘 좀 그렇죠?

포목할머니 : 응, 그래서 말인데 이거 받고 (선물을 다시 헤미 책상에 올리며) 우리 자리 좀 맡아줘. 아가씨는 문 열기 전에 이 안에 있을 거 아냐. 우리 좀 봐, 이 다리로 서서 줄 서지도 못해. 아가씨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사정 봐줘야지, 안 그래?

헤미 : (선물을 다시 할머니 가방 속에 넣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착순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미리 자리를 맡아드리기도 어려워요.

할머니친구1 : 아유, 그러지 말고 사정 좀 봐줘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어요. 아무 한테도 말 안할테니 우리 자리만 좀 맡아줘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래. 노인네가 다리도 아픈데 이 더위에 어떻게 되면 아가씨가 책임질거야?

포목할머니와 친구들이 헤미를 둘러싸고 다들 한 마디씩 한다. 헤미의 곤란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팀장이 문 닫을 시간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을 밖으로 안내한다. 한숨 돌린 헤미가 땀을 닦고 있는데 이팀장이 돌아온다.

이팀장 :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헤미 : 그러게요. (고개를 푹 숙이며) 휴,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다음 날, 헤미의 책상에는 크고 작은 음료수들과 주전부리들이 쌓였다.

헤미 : 할머니, 저희 이런 거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이 빵도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

헤미가 땀을 뻘뻘 흘리며 책상 위에 쌓인 선물들을 돌려주는 동안, 어르신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헤미에게 자리를 미리 맡아달라고 부탁한다.

할아버지1 : 나는 밖에서 박스 줘다가 오면 이 시간 밖에 안 돼. 줄을 설 수가 없다니까. 나 대신 자리 좀 맡아줘. 이거 마시고 자리 좀 맡아줘. 응?

할머니 : 내 자리도 좀 맡아줘. 내일부터는 여기 재밌는 영화도 틀어주고, 무슨 연주인가 뭔가도 한다며? 서서 어떻게 본대. 다른 데 갈 곳도 없고 여름엔 여기 있는 게 최곤데 내 자리도 좀 맡아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헤미 책상에 주전부리를 올려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헤미를 붙잡고 하소연 하던 모습을 보던 장씨할배가 혀를 꼴꼴 찬다.

장씨할배 : 찻쫄, (눈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며) 저게 무슨 짓들이여? 낫살이나 먹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금 무슨 짓들을 하는 거여? 나이를 헛 먹었어. 애들보다도 못 허구만.

포목할머니 : 뭐요? 아니, 그러는 그쪽은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장씨할배 : 못 나고 잘 나고가 무슨 상관이여? 이러니까 허구한날 큰 일 터지는거여. 깨끗하고 청렴하게 하는 법을 젊은 애들한테 가르치진 못할망정 이게 무슨 짓들이여?

포목할머니 : 아니, 무슨 이런 작은 일에 청렴까지 나와요? 그냥 좀 사정 봐줘서 자리 맡아주는 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래요?

장씨할배 : 모르는 소리 말어. 작은 일을 깨끗하게 처리할 줄 알아야 큰 일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여. 이렇게 곳곳에 그냥 규칙도 법도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넘쳐나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었어? 떠들지 말고 반성이나 혀. 부끄러운 줄 알라고.

포목할머니 :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포목할머니가 장씨할배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가들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말리기 시작한다. 그 틈에 또 다른 어르신들은 헤미를 붙잡고 청탁을 멈추지 않는다.

할머니2 : 이거 듀유 이거 내거야. 내가 놔둔 거야. 이거 마시고 내일은 내 자리 꼬옥 부탁해.

헤미 : 할머니, 안 돼요. 듀유 다시 가져가세요. 절대 안 돼요.

할머니2 : (큰 소리로) 아니, 이깟게 뭐라고 자꾸 안 된다고 해?

아수라장이 되자, 결국, 이팀장이 회의를 소집했다.

이팀장: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료1: 와, 문제가 심각하네요. 나 참, 이런 일로 청탁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린다.

헤미: 전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쪽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뭔가가 결정될 때나, 구청이나 복지센

헤미 : 전 언제나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쪽이었거든요. 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뭔가가 결정될 때나,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뭔가를 처리 할 때 그 사람들이 제 입장을 헤아려 최선의 결정을 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마음은 이해가 가요.

동료2 : 그치. 마음은 이해 가지. 근데 그렇다고 그런 사정을 봐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 엄연히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동료3 : 그렇다고 언제까지 규칙 이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동료2 : 그럼 뭐 자리를 맡아주라는 거야?

동료3 : 그건 아니지만...솔직히 하루 종일 밖에서 줄 서 있는 어르신들 보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예요.

헤미 :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 동안 부정부패를 저지른 누군가가 뉴스에 나오면 그게 다 물질적인 욕심이나 권력욕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누군가한테는 별 일도 아닌 이 쉼터 자리 하나가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간절하잖아요. 그 사정을 배려해드리려다 보면 인정과 도리 때문에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앉을 자리 하나 맡아 주는 것이 뭐 그렇게 큰일인가. 저렇게 몸이 힘드신 분이 부탁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것 하나 못 들어준단 말인가. 유혹의 목소리가 저한테 막 속살거렸거든요. 어르신들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는 내가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헤미의 말을 경청하던 사람들이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며 한 마디씩 보탠다.

이팀장 : 아이러니하게도 부정부패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약자를 배려하기위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마음이 한층 더 약해지잖아요. 한 번쯤은 부탁을 들어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기도 하고.

헤미 : 네, 정말 그래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청렴이라는 가치는 꼭 지켜야 해요. 저는 평생 약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약자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정하게 대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으면서 이제와 불공정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팀장 : 헤미씨 말이 맞아요. 작고 사소한데서 청렴의 가치가 지켜지지 않으면 크고 무거운 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규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처리하면서도 어르신들을 배려할 수 있을까요?

모두들 골똘히 생각에 잠긴다.

헤미 : 제가 내일 제 자리를 쉼터 공석으로 내 놓으려고요.

동료1 : 아니, 그럼 헤미씨는 어디에 앉으려고? 안 그래도 좀 서 있으면 다리 아픈 사람이.

헤미 : 괜찮아요. 이 사태를 해결하려면 뭐라도 해야죠!

다음 날, 헤미는 어르신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대신, 헤미 개인의 의자를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게 내놓았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아유, 하루 종일 서있는구만. 다리 안 아파?

헤미 : 네, 괜찮아요.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괜찮긴 뭐가 괜찮아. 성한 사람들도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다리 아픈데.

그러자 어르신들은 종일 서 있는 헤미를 흘금흘금 본다. 헤미에게 말을 걸던 할머니가 잠깐이라도 앉으라고 당신의 자리를 양보하신다.

자리에 앉은 할머니1 : 여기 잠깐이라도 앉아요. 내가 서 있을 게. 이 의자에 돌아가면서 앉아요.

헤미 :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혹시 저 대신 밖에서 대기하시는 다른 어르신들이 잠깐이라도 더위를 피하도록 양보해주실 수 있을까요?

헤미 말을 들은 어르신들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다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자리를 잠깐씩 대여해주신다. 덕분에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잠시라도 찬바람을 쐬었다.

밖에 서 있던 할아버지1 : 아우 시원하다. 시원해. 여기는 천국이네. 고마워요. 내 자리 양보해주기가 참 쉽지 않은건데.

밖에 서 있던 할머니1 : 그러게요. 하루 종일 줄 서다가 그냥 집에 가는 날이 부지기수였는데 다들 고마워요. 이렇게 자리를 양보해주고, 내 빨리 찬 기운만 좀 쐬고 일어날게요. 고마워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겸연쩍어 한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자, 잠깐씩 자리를 양보해주는 분들이 더 늘어났다.

이팀장 : 이 일을 지혜롭게 해결할 방법을 찾았네요.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하면 다 같이 돌아가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거였어요. 헤미씨, 아이디어 좋았어요!

이팀장의 칭찬에 헤미가 쑥스러운 듯 목을 굽적이다.

그때부터 폭염 대피소는 선착순으로 맡은 자리를 집에 돌아갈 때까지 차지하는 대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바깥에 서 있는 사람과 돌아가며 앉기로 했다. 짝이 된 어르신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찬바람을 양보하셨다.

아침 회의 시간, 커피를 마시던 헤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헤미 : 여러 어르신들 덕분에 청탁을 받지 않고도 더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한 사람이 뒤에서 몰래 편법을 쓰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결과도 좋고, 보람도 있네요.

이팀장 : 헤미씨가 고생 많았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청렴이라는 게 항상 거창한 일에만 쓰이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렴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청렴이 가진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간의 욕심이나 아차 하는 유혹에 흔들리는 게 사람이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을 빨리 해결하거나 편하게 해결하려고 청렴을 희생시키는 일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동료1 : 맞아요. 우리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었잖아요. 어르신들 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인정에 이끌려 이번 한 번쯤 하고 눈을 감는 그 짧은 순간에도 청렴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부정부패에 가까워지게 돼요. 헤미씨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을 체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어요.

구청이 폭염 대피소 일을 해결한 과정이 입소문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 규모가 작은 폭염 대피소를 운영하는 구청들은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헤미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한 구청들에서 감사 전화가 오자, 이팀장과 직원들은 함박웃음을 지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이팀장을 찾는 전화가 온다.

이팀장 : 네, 전화 바꿨습니다.

시청직원 : 안녕하세요? 이팀장님과 직원들이 폭염 대피소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00구청이 이번 청렴 시민 상 후보에 올랐는데 수상 결정이 되어 연락드렸어요. 축하드립니다! 자칫 쉬운 길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청렴하게 일을 해결해주셔서 여러 다른 구청에 본이 되셨어요.

이팀장 : 저희가요? (희미하게 웃는 얼굴로) 정말 감사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우리가 청렴 시민 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이번 대피소 일을 청렴하게 해결한 덕분입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팀원들 : (모두들 박수를 치며) 우와, 정말요? 진짜 기분 좋네요!

이팀장 : 오늘은 우리 뭐 시원한거라도 한 잔 하면서 자축합시다. 내가 한 잔 살게요!

팀원들, 밝은 얼굴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며칠 후, 시청에서 시상식이 있는 날. 이팀장이 팀원들을 대신 해 대표로 수상을 한다.

시장 : 위 상을 00구청에게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분을 지키고, 청렴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00구청이 아주 좋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00구청을 본 받아 작은 일도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팀장에게 악수를 청하며)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이팀장 : (악수하며) 감사합니다!

구청에 도착한 이팀장, 팀원들에게 상장을 내보인다.

이팀장 : 모두들 고생 많았어요. 우리 모두가 받은 상이긴한데 구청장님이 우리 팀에 전시하라고 하시네요.

팀원들 모두 웃으며 장식장 위 상장을 바라본다. (다시 폭염 대피소)

이사 온 할머니1 : 아유, 시원하다. (옆에 앉은 할머니에게 소곤소곤 질문한다.) 그런데 왜 잠깐 앉았다가 다들 줄 서 있는 사람들 하고 자리를 바꿔 앉아요? 자리 맡았으면 죽 시원하게 앉아 있지들 않고?

포목할머니 : 그게 무슨 남을 배려하는 일이라나 뭐라나? 다들 더운 열기부터 뺄 수 있게 자리를 돌려가며 찬바람 말도록 앉는 방법이래요. 무슨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들 까지 하는지. (썰쭉한 표정으로) 말은 대로 좀 앉아 있으면 될 걸 기어이 그렇게 해야 한답니다.

이사 온 할머니1 : 그래요?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사람들이 다 바르고 착하네요.

포목할머니 : 손해보고 사는 거죠. 그깟 자리 좀 맡아 놓고 쉬면 어떻다고 난리인지 원.

이사 온 할머니1 : 손해요? 그게 결국은 다 같이 시원해지는 방법인 것 같은데. 길게 보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 아닐까요?

포목할머니 : 아이고, 여기 손해 봐도 좋으니 양보가 먼저인 사람이 또 있네.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 앉으며 허리를 괜히 탕탕 두드린다.) 오늘따라 왜 이리 허리가 말짱이야.

폭염 대피소로 여러 명의 사람이 갑자기 몰려온다. 시끌시끌한 와중에 카메라 장비를 든 사람이 보인다.

조연출 : 안녕하세요? 저희는 MSK 방송국 “이웃이 좋다”에서 나왔습니다. 이웃끼리 배려하고 양보하시는 마음이 정말 좋아보이세요. 이번에 구청이 상도 받으셨다고 해서 저희도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촬영 동의서를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방송국 직원 여러 명이 동의서를 가지고 폭염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포목할머니 : (떨떠름한 표정으로)아니, 이게 뭐 방송거리가 돼요?

방송국 직원1 : 그럼요, 00구청 완전 유명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자기 자리 양보해서 이웃에게 찬바람을 나누는 곳이 어디겠어요? 저희가 꼭 인터뷰 하고 싶어서 구청에 여러 번 촬영 허가를 구했어요. 정말 어렵게 촬영하는 거라 저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팀 사람들까지 전부가 다 나왔어요. 할머니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까진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카메라가 돌아가는 표시를 하는 카메라맨, 촬영중이라는 종이를 본 포목할머니가 갑자기 인자한 미소를 짓는다.

포목할머니 : 아, 뭐 대단할 게 있나요? 당연한거죠. 나라에서 다 같이 시원하라고 만든 곳인데 자리 맡아 놓고 나 혼자 시원하겠다는 게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전부터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기가 원래 다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포목할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들으며 다들 고개를 돌리고 몰래 쿡쿡 웃는데 장씨할배가 크게 웃음을 터트린다.

장씨할배 : 으하하하, 아이고 배야, 오래 살다 볼 일이네.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연출자 : 췌! 아이고, 어르신 다른 어르신 인터뷰 할 때는 그렇게 크게 소리 내시면 녹화를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조금만 도와주세요.

장씨할배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웃겨 죽겠다는 듯 배를 잡고 구르는 시늉을 한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같이 미소 짓는다.

포목할머니 : (혼자 중얼중얼) 아니, 뭐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다는 게 아니고. 이까짓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나? 중요한 일이라니까 나도 생각을 바꾸겠다는 거지.

조연출이 이팀장을 찾는다. 이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한다.

이팀장 :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대피소를 찾으시는 분은 많으니 진땀 좀 흘렸습니다.

조연출 :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까?

이팀장 : (주위를 둘러보며 헤미가 어디 있는지 찾는다.) 사실, 이 방법을 생각해낸 직원은 따로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구청 막내 박해미씨입니다.

헤미 : (손사래를 치며)어머, 아니예요. 아니예요. 다 같이 생각해낸 겁니다.

헤미가 얼굴을 가리며 사양했지만 팀원들이 모두 박수로 헤미를 부른다. 떨리는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선 헤미.

헤미 : 다 같이 힘을 합쳐 찾은 해답이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장 바른 길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멀리보고, 넓게 보면 실은 옳은 방법, 청렴한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가장 옳은 방법으로 이웃을 배려하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게 되길 기대합니다. 폭염 대피소를 찾아주신, 그리고 청렴한 방법으로 서로를 배려해주신 이웃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헤미의 말이 끝나자, 대피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 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어르신들은 바깥에서 줄 서고 있는 어르신들과 자리를 바꾼다. 방송국 직원들은 그 과정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는다.

연출자는 2주 뒤 “그 해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 방송이 나갈 거라고 구청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대피소에서 모여 다 같이 방송을 보자고 구청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약속하는 장면으로 페이드 아웃.

장려상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 임상택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신중휘<고등학교 3학년 2반 담임 교사로 수학 가르친다. 교직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임용시험을 통과하여 보람을 느끼며 교직 생활을 해왔던 13년차의 모범교사다. 8년 전 결혼을 하여 현재 7살 아들이 있으며, 아들의 학업을 위해 학군이 좋다고 소문난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김지원**<신중휘의 부인으로 국어 교사이다. 현재 3년째 휴직 중이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몸이 불편하다. 아들의 학업에 대해 관심이 각별하며, 최근 신중휘와 돈, 자녀 교육에 관한 의견 차이로 종종 다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원하영**<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이다. 성실하고 착하며 담임선생님을 존경하고 잘 따르는 학생이다. 성적은 학급에서 중상위권 수준이며, 자신의 꿈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 사범대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부모님과 대입에 대한 의견 차이로 내적 갈등이 있다.>

원하영 어머니<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며, 학부모 사이에서 영향력이 크다. 학교에 자주 방문하며, 학교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딸의 대학 입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며,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다.>

시놉시스

【기】 2022년 9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로 학생들의 입시를 지도하는 신중휘에게는 가장 바쁜 달이다.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 등으로 야근을 하던 어느 날 그에게 원하영 학생의 어머니의 전화가 온다. 원하영 학생의 어머니는 그에게 생활기록부 입력 및 추천서 작성에 대해 부정청탁을 의뢰한다. 신중휘는 조심스럽게 거절한다. 특히 금전적인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원하영 어머니의 말에 더 큰 거부감을 느끼며, 중휘는 절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승】 신중휘의 아내인 김지원은 불편함 몸과 부족한 형편 속에서 힘겹게 아들을 키우고 있다. 거기에 대출과 자녀 교육 문제로 신중휘와 말다툼 하는 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신중휘는 아들과 아내의 모습을 보며 원하영 어머니의 말을 떠올리게 되고, 갈등하게 된다.

【전】 신중휘는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되고, 원하영 어머니와 모종의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는 원하영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들을 외부 업체를 통해 받아와서 신중휘에게 넘기게 된다. 신중휘는 원하영 학생의 대입을 위한 생활기록부를 작업을 마무리 한다. 연이어 원하영 학생의 대입 추천서를 작성한다. 원하영 어머니와 대입 추천서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결】 대학교 합격 발표일, 원하영 어머니는 자신의 청탁이 반영되었을 대학의 결과를 확인한다. 그러나 원하영은 해당 대학교에 불합격한다. 원하영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외부 업체에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며 허망해한다. 한편 어머니가 확인할 수 없었던 신중휘의 추천서에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불합격 사유가 “자기소개서 미제출”이었다. 원하영 학생은 우연히 어머니의 행동을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해당 대학 입학 스스로 포기한 것이었다. 원하영 학생은 훗날 자신의 꿈을 이뤄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되었으며, 해당 학급의 급훈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라고 적힌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1. 학교 복도에서

시끌벅적한 3학년 교실 복도를 하영과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며 대화를 나눈다.

3학년 2반 교실임을 알려주는 팻말 앞에서 두 친구가 멈춰서 창 밖을 바라본다.

친구 : 하영아, 생활기록부는 잘 됐어?

하영 : 아니.. 뭐. 그냥 지금 와서 할 수 있는게 뭐 있겠어~

친구 : 에이.. 그래도 뭐 3학년 독서활동이나 특기사항 같은 것들은 더 채워넣을 수 있잖아.

하영 : (창 밖의 1학년 학생들을 바라보며) 지금 와서 해봐야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1학년때부터 했어야지. 지금은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담임선생님께 추천서 잘 부탁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려구.

친구 : 그래? 그래도 넌 좋겠다. 담임쌤이 중휘쌤이라 정말 부럽다 야... 난 한숨만 나온다.. (한숨을 쉬며) 나도 3학년 2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영 : 응! 그건 그래. 나는 그걸로 올해 운을 다 쓴 것 같다 (웃음) 나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져

그 옆을 신중휘가 지나간다. 둘을 보며 미소지으며, 교실로 들어가며 손짓한다.

중휘 : 하영아 교실 들어오렴. 종례 해야지.

하영 : (밝게 미소지으며) 네! 선생님!

#2. 3학년 2반 교실에서

신중휘는 교탁에 손을 얹고 학생들을 둘러본다.

중휘 : 오늘 상담할 친구가 누구더라... 민재랑 서윤이, 수연이, 민찬이는 끝나고 선생님이랑 입시 관련해서 상담 좀 하자.

민재, 서윤, 수연 : 네.

민찬 : 선생님, 저 오늘 학원 때문에 남아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은데... 중휘 :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하자. 다들 고3이라 힘들텐데 다들 힘내고, 입시는 단거리 달리기보다 마라톤인 거 알지? 언제든 선생님 도움이 필요하면 방과 후에도 연락하고, 선생님은 너희들을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싶어서 간절하니까. 순간 순간 얽매이지 말고 멀리 보고 다들 힘내보자.

교실 앞에는 급훈으로 멀리보라는 의미로 "See far"가 적혀있다.

#3. 학교 3학년 교무실

선생님들이 퇴근시간이 되자 하나둘씩 짐을 싸서 퇴근한다.

중휘는 짐을 쌀 생각 하지 않고, 학생자료를 살피고 상담자료를 뒤적이다.

동료교사 1 : 중휘쌤. 얼른 퇴근 안 하고 뭐해요?

중휘 : 아. 오늘 입시 관련해서 막바지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서...

동료교사 1 : 지금 와서 한다고 크게 달라질 것 없는데 뭘.. 생기부도 거의 끝났고, 자소서야 지들이 쓰는 거고, 교사추천서는 점 점 영향력이 줄어들고, 추천서가 필요없는 대학교도 많아서 예전 같지도 않은데.. 적당히 하고 얼른 퇴근해요.

중휘 : 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선생님. 들어가세요

동료교사 2 : 중휘쌤. 초과근무는 달았어요?

중휘 : 아니요. 아침에 깜빡해서 못 달았어요. 교감선생님께서 매일 늦게 남는다고 뭐라고 하셔서 잘 안 달게 되더라구요

동료교사 2 : 돈도 안 되고, 시간도 버리고... 쓸 때 없는 데 노력 낭비하지 말고 얼른 퇴근해. 나는 오늘 자기주도학습 감독이라, 아침에 초과근무 달았거든. 자습실 가 있을테니까 먼저 가게 되면 보안점검표는 내가 쓸테니까 놓아두고 가.

중휘 : 네네... 곧 마무리 하고 가겠습니다.

신중휘는 다른 선생님들은 모두 나간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상담을 한다.

열정적으로 상담을 하고, 시간은 저녁 8시를 넘긴다.

#4. 신중휘네 집

중휘는 퇴근하여 집에 도착한다.

아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아내인 김지원은 눈살을 찌푸린다.

아들 : (아빠에게 안기며) 아빠~

중휘 : 예구.. 우리 아들. 유치원은 잘 갔다왔어?

지원 : 뭘.. 이제야 들어와서 좋은 아빠인척 하고 있어

중휘 : 아.. 지금 대입 원서 시즌이라서....

지원 : (언성을 높이며) 무슨 그렇다고 지금 들어오냐고! 내가 휴직했지만 나도 고3 담임 안 해봤냐고! 그걸 모를 것 같아? 다른 선생님들은 다 그 전에 퇴근했을 텐데 혼자 또 남아서 상담한다 뭐한다 애들 봐주고 돈도 안 되는 일 열심히 하다가 왔을 거 아니야!

중휘 : 아.. 애 앞에서 언성 좀 낮춰.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지원 : (비아냥 거리는 말투로) 남 좋은 일 열심히 해서 좋겠다. 정작 지 가족은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하루 하루 지내는데..

지원은 약통에서 류마티스 약을 꺼내 먹는다.

등과 손, 발의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중휘에게서 고개를 돌린다.

지원 : (통명스럽게) 다음 주에 아파트 대출 이자랑 도겸(아들)이 영어유치원 비용 나가는 거 알지? 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돈 좀 되는 걸 좀 해... 상담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방과후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능력을 키워서 출제나 강연을 해보라고.. 그 좋으신 능력 엉뚱한데 쓰지 말고!

중휘 : (안절부절 못 하는 표정으로) ...

지원 : 얼른 씻고 도겸이랑 놀아주기나 해.

중휘는 씻고 나와서 도겸이랑 방에서 같이 장난감 블록 놀이를 하며 놀아준다.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 소리가 들린다. 중휘는 핸드폰을 꺼내 내용을 확인한다. 핸드폰에는 오늘 상담하지 못 하고 학원을 갔던 민찬이가 보낸 메시지가 보인다.

민찬의 메시지 : 선생님. 진학 관련해서 지금 상담 가능 할까요?

중휘는 생각한다. 클릭해서 메시지를 볼지 무시할지 갈등한다.

중휘의 생각 : 얼마나 고민하고 메시지를 보냈겠어. 나에게는 그냥 보고 답변하는 것은 사소한 일이지만, 이 학생에게는 인생이 걸린 엄청난 일이 될 수 있잖아. 늦은 시간이고 업무시간도 아니지만, 무시하지 말고 잘 대답해 줘야겠어.

중휘는 핸드폰을 보며 민찬의 메시지 길게 답변을 해 나간다.

도겸 : 아빠!.. 아빠..

중휘 : (핸드폰을 계속 바라보며) 응 도겸아 잠깐만...

도겸 : (서운한 표정을 짓는다.)

도겸은 아빠인 중휘 곁을 떠나서 혼자 방으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울먹이며 혼자 놀기 시작한다. 지원은 하던 집안일을 마무리 짓고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본다. 그리고 상황을 짐작하고 중휘에게 다가가 말을 한다.

지원 : 아주 참교사 납셨어. 참교사야. 남의 지식 좋은 일만 허구헌 날 하지 말고 지 지식 좀 챙기라고. 도겸이가 오늘 아빠랑 놀 생각에 얼마나 기대했는데... 도대체 당신은 우리 가족, 도겸이 아빠가 맞아? 뭐가 우선인거야?

중휘 : 그게 아니라 ...

지원 : 도겸이가 유치원에서 뭘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는 관심이나 있거나 해?

중휘 : 내가 왜 관심이 없겠어...

지원 : 됐다. 됐어. 말을 말아야지.

말을 마치자마자 지원은 바닥에 도겸이가 유치원에 그린 그림을 던져놓고 간다.

도겸이가 유치원에서 그린 가족 그림이 바닥에 놓여 있다.

중휘는 그림을 바라본다.

그림 속에는 엄마와 도겸이는 집에, 아빠는 학교에 있다.

#5. 교실, 그리고 복도

조회를 하는 중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잔뜩 묻어있다.

조회를 마치고 복도에서 하영과 친구가 만나 대화를 나눈다.

하영 : (걱정하는 말투로) 우리 담임쌤 어제 너무 무리하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친구 : 우리 담임쌤은 아주 얼굴에 반짝 반짝 윤기가 나던데?

하영 : (쓴 웃음 지으며) 야야.. 췌.. 저기 지나가신다..

친구의 담임선생님이 지나간다.

하영은 친구의 머리를 누르면서 강제로 인사를 시키고 본인도 인사를 한다.

친구, 하영 : (멋쩍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친구 담임교사 : 어~ 그래.

하영은 친구의 담임교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말을 이어간다.

하영 : 담임쌤께서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아니까... 감사하면서도... 안쓰럽고 그래

친구 : 참... 복에 겨운 소리 하지만. 그래도 중휘쌤 말은 반 아이들은 다 대학들 잘 간걸로 유명하잖아. (담임교사가 지나간 길을 힐끗 돌아도며) 담임 누구 만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이 거지 같은 세상이라니

하영 : (어색하게 웃으며) 학생이 잘 해서 간거겠지.. 잘 하는 학생이면 어디에서든 드러날 거 아니야.. 난 그너저나 우리 담임쌤 이 적게 일 하고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

친구 : 교사라면 그건 포기해야되는 거 아니야? 직업을 바꿔야지... 아니면 뭐 그거... 촌지? 그런거 받으면 가능은 하겠다야~. 아 니지... 예전엔 그런 것도 많았다던데 요즘엔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그것도 없다며.. 그냥 교사라면 맘 잡고 포기해야지. 너도 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 많이 일 하고 적게 버는 직업이라면 정말 딱이겠다.

하영 : 글썄... (그 순간 지나가는 중회를 보며) 난 여전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

#6. 학교. 퇴근 길

중회는 전날 도겸이와 지원이와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둘러 퇴근한다.

아내 지원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낸다.

중회의 메시지 : 오늘은 일찍 퇴근할게.

지원의 메시지 : 응. 도겸이도 잔뜩 기대하고 있어

중회가 퇴근하는 길, 중회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온다.

핸드폰에는 원하영 어머님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중회는 핸드폰을 받는다.

중회 : 안녕하세요 하영이 어머님

하영 어머니 :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죠?

중회 : 네 어머님. 무슨 일이 있으실까요?

하영 어머니 : 아. 다름이 아니라, 찾아뵙고 말씀 드릴 내용이 있어서 연락 드렸거든요

중회 : 아.. 네.. 혹시 전화로는 힘든 내용일까요? 제가 지금 퇴근 중이어서

하영 어머니 : 오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급한 일이어서요. 장소 말씀 주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중회 : (고민하는 표정으로) 그러면 제가 퇴근하는 길목에 있는 OO카페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하영 어머니 : 네 지금 가겠습니다.

#7. 00카페

중휘 : (단호한 표정으로) 저는 못 하겠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중휘 : 그럴 수 없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작년과 재작년에 S대 합격한 그 친구들도 다 이렇게 갔다고 해요. 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표현을 달리 하는 정도일 뿐이잖아요. 선생님도 어떻게 쓸지 고민하실 것 없어서 훨씬 편하실 거구요.

테이블 위에는 원하영 어머니가 가져온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거짓 활동과 특기사항 문구들이 잔뜩 적혀있다.

중휘 : (무표정한 표정으로)

원하영 어머니 : 그리고 선생님 아들 영어 유치원 다니죠?

중휘 : (놀라는 얼굴로) 네?

원하영 어머니 : 제 지인이 거기 관련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선생님 자녀인 걸 알게 되었거든요. 거기 비용이 한 달에 많이 나갈 것 아니에요. 또 여기까지 학군 보며 이사해오시느라 대출금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게 오죽 부담이시겠어요? 약소하지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드릴게요. 그리고 내년에 하영이 졸업하고 나서 드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때는 담임과 제자 관계가 아니니까 김영란법인지 뭔지도 전혀 상관 없다던데요?

중휘 : (도겸이와 지원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

원하영 어머니 : 지금 대답이 어려우시면 잘 고민해 보세요. 일단 자료는 이렇게 드릴게요.

카페 테이블 위에는 독서활동,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과목별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사추천서 라고 라벨이 붙어있는 화일철이 올려져 있다. 중휘는 힐끔 쳐다본다.

원하영 어머니 : 생각이 많이 필요하실 수 있으니 제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릴게요

중휘는 생각에 잠긴다. 중휘는 손을 뻗어 교사추천서라고 적힌 화일철을 열어 본다.

그 안에는 “추천인 : 신중휘”, “추천학생 : 원하영” 이라고 적혀 있으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적어놓은 문구로 빼곡하게 학생에 대해 추천하는 내용들이 적혀있다.

중휘는 주변을 두리번 거렸다.

카페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 누구도 앞선 대화를 들은 것 같지는 않았다.

중취는 테이블 위에 파일철을 버려두고 갈까 하다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어서 차마 두고 가지 못하고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카페를 나온다.

#8. 대학입시 컨설팅 업체

어느 사무실에서 한 남자와 원하영 어머니가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 : 전달은 잘 했는데, 고민하는 눈치였어요

남자 : 제가 보기에 다 넘어온 것 같아요. 진짜 거부하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남자 : 그럼요. 요즘 세상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르는 엄마들은 학교랑 자식만 믿고 마음 고생만 하는 거지요. 이런 입시가 수년간 지속되었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서 저희는 살아남았고, 이런 실적들이 있으니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사무실 벽면에는 수 많은 합격생들의 이름과 대학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원하영 어머니는 특히 S대학교라고 적혀있는 많은 합격생들의 이름들에 눈이 간다.

원하영 어머니 : (계속 벽면의 합격생 정보들을 쳐다보면서) 그럴까요?

남자 : (음흉한 웃음을 애써 감추며) 그나저나 가지고 오셨나요?

원하영 어머니는 두툼한 봉투를 남자에게 건넨다. 남자는 간사하게 미소를 짓는다.

남자 : (봉투를 열어서 안의 돈을 눈을 살피며) 일단 이건 진행금이구요. 추후에 그 선생님 추천서 입력이 완료되면 추가 금액 있는 것과 합격 후에도 추가금액 있는 것 다 아시죠?

원하영 어머니 : 네.. 합격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9 하영이네 집

원하영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온다.

하영이의 집에서 하영이는 엄마와 대화를 나눈다.

하영 어머니 : 하영아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다고 했지? 학과는 어디 가고 싶고?

하영 : 응. 나는 사범대 가고 싶어. 대학교는 크게 상관없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 보다는 임용고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니까, 성적에 맞는 대학교 사회교육과로 생각하고 있어. 생기부도 1학년 때부터 그 쪽이랑 연관된 내용이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쪽 쓰면 될 것 같아.

하영 어머니 :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요즘 교사가 별로라더라.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또 나중에 공립학교 교사는 합격은 어려운데 삶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더라. 그냥 행정학과, 경영학과 이런데 가는 게 어때?

하영 : 글썸.. 나는 그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영 어머니 : 너네 사촌 언니 시영이 기억하지? 이번에 고시 합격했다더라. 너가 어릴 적에 시영이 보다 훨씬 더 공부는 잘했잖아. 여기가 학군이 경쟁이 치열해서 그렇치, 다른 곳 가면 최상위권이야. 행정학과나 경영학과 가서 공부해보다가 잘 안되면 그때가서 교사로 빠져도 되잖니?

하영 : (난색을 표하며) 글썸...

하영 어머니 : 내말 들어봐.. 엄마 소원이다... 수시원서는 니 엄마가 원하는 곳으로 써주면 안 되겠니? 자기소개서도 내가 컨설팅 받아서 가져올테니까 그걸로 쓰고... 수시 접수 이후에 정시 접수는 너 마음대로 해도 뭐라고 안 할게.

하영 : (당황한 표정)

하영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거부하지 못 했다.

#10. 신중휘의 집

신중휘는 퇴근길 예상치 못 하게 원하영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예상보다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된다. 중휘는 현관문을 열기 전 시계를 본다. 어제 보다 더 늦은 저녁 9시를 넘긴 시각.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더 늦어버린 상황에 중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으며 현관 문을 연다.

지원은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휘를 본다. 지원은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도겸은 기다리다 지쳐서 방에서 자고 있다.

중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못 하고 조용히 씻으러 간다. 걸어가는 중휘의 뒤에 지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원 : 이제 기대를 안 할게. 가족을 위한 시간도, 돈도 다... 당신에게 기대할 게 없어.

중휘 :

#11. 신중휘의 집. 서재

중휘는 방에서 홀로 앉아 생각에 잠긴다. 원하영 어머니의 말들이 떠오른다.

중휘의 생각 : 내가 학생들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는 게 참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참으로 이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기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 내 가족에게 너무나 못났고 못된 행동이었다. 직업에 대한 소명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생각했지만, 내게 가장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할까?

중휘는 고민과 갈등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그러다 중휘는 핸드폰을 꺼내고 원하영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중휘의 메시지 : 어머니. 자료 잘 봤습니다. 보내주신 대로 잘 적어드리겠습니다.

원하영 어머니 메시지 : 잘 생각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휘는 원하영 어머니에게 받은 자료를 꺼내며, 원격업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영 학생의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력하기 시작한다. 특별히 고민하며 글을 적을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서 치면 되었기에 모든 내용들을 빠짐없이 다 입력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

중휘는 생각했다.

중휘의 생각 : 이렇게 편한 것을...

#12. 교무실.

퇴근시간 누구보다 빨리 짐을 챙겨서 중휘는 퇴근을 나선다.

동료교사 1 : 이야.. 벌써 퇴근해? 중휘쌤 많이 변했네?

중휘 : (웃으며) 네.. 저도 워라벨의 균형을 맞춰보려구요.

동료교사 1 : 그래. 그 동안 참 너무 혹사한 것 같았어. 아들이 좋아하겠어

중휘 : 네. 부장님.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13. 신중휘 집

신중휘는 일찍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다.

김지원은 이전과 달리 웃으며 반갑게 맞이한다.

지원 : (미소지으며) 일찍 들어왔네?

도겸 : (중휘에게 안기며) 아빠~~~~!

중휘는 도겸을 안아주며 미소 짓는다.

중휘는 아들 도겸이와 즐겁게 놀아준다.

핸드폰 카카오톡 알림이 온다. 학생의 상담 희망 메시지였다. 중휘는 핸드폰을 슬쩍 보며 학생의 이름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눌러보지 않고 아들이랑 놀아준다.

그리고 생각한다.

중휘의 생각 : 이렇게 편한 것을...

#14. 교실

교탁 앞에 서서 중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 한다.

중휘 : 다음 주부터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인 것 알지? 선생님 침삭해줄 테니까 자기소개서 작성 완료되면 제출하는 것 잊지 마 애들아. 늦게 제출하면 많이 못 봐주니까 미리미리 제출하고, 교사 추천서가 필요한 학생들도 미리미리 알려 주렴. 밤 늦게 보내거나 카톡으로 보내는 건 그때 그때 봐줄 수 없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 제출하기! 이상 종례 끝!

#15. 복도

복도에서 원하영과 친구가 대화를 나눈다.

친구 : 너희 담임쌤 요즘 표정이 좋아보이더라.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피곤해 보였는데

하영 : 응 맞아.. 근데 조금 달라지신 것 같기도 하고... 방과후에는 상담이나 자소서 침삭 안 해주신다고 하고... 밤 늦게 카톡 하지 말라고 하시고...

친구 : 그게 정상이지... 그 동안 너무 비정상적이셨잖아. 난 지금이 좋아보이더라, 그나마 이제야 보통의 사람같은 느낌이랄까? 그 전에는 뭔가 성인군자 같고... 다가가기 어려운 느낌이 있었어. 그나저나 우리 담임쌤은 자소서 침삭 해준다는 이야기도 없어... 쟤장...

하영 : 아 맞아. 나 자소서 써온 것 있는데 깜빡할 뻔 했네. 침삭 드리려면 얼른 드러야겠어

친구 : (웃으며) 내 덕인 줄 알아라.

#16. 신중휘의 집

중휘는 학교에서 가지고 온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를 훑어 본다.

첨삭을 해주며, 수정해야할 부분들을 표시한다.

그러던 중 하영의 자기소개서를 보게 된다.

중휘는 한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중휘는 순간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서도 중휘는 하영의 어머니가 보내준 추천서를 보며 그대로 추천서를 작성한다.

작성을 완료하고 추천서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화면에는 추천서 작성 완료 라는 문구와 마감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보인다.

중휘의 생각 :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17. OO카페

카페에서 원하영 어머니와 중휘가 대화를 나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추천서는 잘 쓰셨나요?

중휘 : 네 어머니. 어머니가 보내주신 추천서 잘 봤구요. 정말 잘 썼습니다.

중휘는 원하영 어머니가 준 자료 그대로 썼지만, 차마 그대로 썼다고 말하는 자신의 모습 너무 싫어서 잘 썼다는 말로 대신 말했다.

원하영 어머니 :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 유치원쪽에 제가 잘 말을 해놓았구요. 연말까지 따로 비용 나가시는 것 없을 겁니다.

중휘 : (당황하는 표정으로) 네? 아니.. 그건

원하영 어머니 : 걱정하지 마세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 서류를 갖춰놓았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약소한 감사의 표현이라 생각하시구요. 합격하고 나면 졸업 이후에 제대로 성의를 표시하겠습니다.

중휘 : (멍한 표정으로) ,,,

원하영 어머니 : 저는 얼른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18. 원하영 집

원하영 어머니는 진학 사이트에 들어가서 S대학 교사 추천서가 잘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화면에는 “추천서 : 입력완료” 라고 적혀 있다.

원하영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19. 신중휘 집

김지원 :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자기야. 영어유치원에서 다음달부터 돈 안 내도 된다고 하네? 자기가 뭐 했다고 하는데... 장학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며 더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해주네?

중휘 : (당황한 표정) 응응? 그래?

중휘는 얼른 자리를 피해 서재로 들어간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진학 추천서 입력 사이트에 입력된 추천서를 확인한다.

추천서 수정 마감 2시간 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중휘의 머릿 속에는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른다.

중휘의 결심에 찬 얼굴 표정을 짓는다.

중휘는 키보드 자판을 몇 차례 두드리고는 후련한 표정을 짓는다.

#20. 교실

교실에 노트북을 들고온 중휘는 하영을 앞으로 부른다. 하영이가 수시 원서를 접수한 6개 대학교 중 5개 대학교에는 이미 불합격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5개의 대학은 다 하영이가 원하는 사회교육과를 지원한 대학이었다. 다행히 그 중 4개 대학은 예비번호를 부여받은 대학이 일부 있어서 최종까지는 기다려봐야 했다.

마지막 1개의 대학은 하영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S대학교 경영학과를 지원했다.

중휘 : 하영아. 오늘 S대학교 합격 통지날인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볼래?

하영 : 아니요.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하고 싶어요

중휘 : (노트북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며) 그래. 같이 한 번 보자..

노트북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예비번호조차 없이 불합격이라는 글자에 중휘와 하영은 둘 다 예상이라도 한 듯 당황하지 않았다.

중휘 : (하영의 표정을 살피며) 예구..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 생기부는 사범대 쪽으로 잡혀있는데, 경영학과로 써서 그런 걸까?

하영 : (중휘의 표정을 살피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전 괜찮아요.

중휘는 속으로 생각한다.

중휘의 생각 : 미안하다. 하영아..

중휘 : 나는 너가 사범대에 합격하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

하영 : 저두요. 고마워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될 거예요. (미소를 짓는다.)

#21. 원하영 집

원하영 어머니는 컴퓨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한다. 화면에는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등장한다. 원하영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여러 차례 다시 입력해 보고 확인한다. 허망한 표정을 짓더니, 곧이어 화가 난 표정을 짓는다. 컨설팅 받은 업체에 전화를 해보지만 받질 않는다. 원하영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낸다.

#22. (회상-과거) 원하영

원하영은 집에서 우연히 어머니가 외부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가져온 서류를 목격한다. 그곳에는 자기가 실제 한 활동이 아닌 자료들과 읽지도 않은 책들에 대한 독서기록 등이 가득했다.

그리고 추천서라는 라벨의 파일철 안에는 미리 적혀 있는 추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추천인에 담임선생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한다.

하영 :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영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하영의 생각 : 내가 이런 내용을 다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엄마도... 선생님도 모두 큰 상처를 더 받게 되겠지?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이걸 옳은 방법은 아니야. 좋은 방법이 없을까..

#22 (회상-과거) 신중휘

중휘의 머릿 속에서

“저는 담임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떠오르던 그날 밤. 추천서 수정 제출 마감 2시간 전, 중휘는 추천서를 수정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학생을 추천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 항목 아래에 빈 공간에는 앞서 적어놓은 추천서 내용들이 빼곡이 차 있었다.

중휘는 그 내용을 다 지우고는 한 문장을 입력했다.

“이 학생을 귀 대학교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후련한 듯한 표정으로 중휘는 생각했다.

중휘의 생각 : 이제 영어 유치원에 전화하는 일만 남았구나.

#23 (회상-과거) 대학교 입학처

대학교 입학처에서 평가관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평가관 1 : 이 학생 조금 특이한데?

평가관 2 : 어떤 게 특이하다는 거죠?

평가관 1 : 다들 와서 이것 좀 한번 보시겠어요?

평가관 2, 3 : (놀라며) 어허... 이런 경우가 다 있네

원하영 학생의 대학 지원 서류였다.

평가관 1 : 어쩔 수 없겠죠?

평가관 2 :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

평가관 3 : 원칙대로 해야겠죠. 추천서는 참고자료일 뿐이니 그렇다 쳐도..

그리고는 원하영 학생의 결과를 입력한다.

지원자 : 원하영 (불합격)

불합격 사유 : 자기소개서 미제출

#24. 졸업 후, 스터디 카페에서

원하영은 스터디 카페에서 수능 공부를 하고 있다.

원하영의 독백 : 나의 생활기록부에는 내가 읽지 않은 책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런 생활기록부를 사용해 대학에 가고 싶지 않았다. 다음 해에 수능 점수만을 가지고 정시에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졸업 직후 후배들로부터 신중희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더 놀랐던 것은 중희선생님께서 대학 입학 컨설팅 학원을 운영하신다는 소식이었다. 주변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선생님을 그만두고 학원을 차렸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했다. 나는 그런 소문을 믿지 않았다. 선생님의 마음을 나는 알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다. 나 또한 용기 내서 말하지 못한 순간들이 지금 부끄럽다. 그 죄를 받는 거라 생각한다. 1년 더 공부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나도 노력해야지. 나는 여전히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인간이 되고 싶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감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25.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된 원하영은 교탁 학생들에게 말한다.

하영 : 셀프 생기부는 절대 안 된다. 가져오기만 해봐라. 이 학생 추천하지 않는다고 추천서에 쓸 거니까. 부모님께도 반드시 그렇게 전해라. 알겠니? (미소 짓는다)

교실의 급훈이 눈에 띈다.

급훈 :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모든 학생들이 힘차게 “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한 학생이 하영의 말에 대답한다.

학생 :네! (당당한 목소리로)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 말이죠 (미소 지으며)

하영은 학생의 말에 미소 지으며 칠판 위에 걸려 있는 급훈을 돌아본다.



장려상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

| 박상우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승영<주인공. ○○ 공사에 하반기 공채로 입사했다. 입사 축하기념으로 모인 술자리에서 과거에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기훈, 용석**<승영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죽마오우. 셋 중 가장 늦게 취업한 승영을 축하해 주기 위해 시간을 내서 술자리를 마련한다.> **아주머니**<딸이 좋아하는 과메기를 냉동포장하여 택배로 부치기 위해 편의점을 방문한다. 하지만, 승영의 실수로 인해서 택배의 내용물이 상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편의점 점장**<승영이 일하는 편의점의 점장. 승영의 실수를 용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준다.>

시놉시스

“누구나 양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부정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험난해 보이거든.”

꿈에 그렸던 ○○ 공사에 합격한 ‘승영’.

입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술자리에서 승영의 친구 기훈, 헤진은 공사에 합격한 비결을 물어본다.

면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윤리의식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작은 양심부터 지키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대답하며 과거의 일화를 이야기하는 승영.

과거로 돌아가서 어느 무더운 여름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승영은 상할 수도 있는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냥 내버려두자. 도착할 때 상했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탓을 하겠지, 우리 편의점 탓을 하겠어?’ 하지만, 승영은 이내 양심을 지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로 결심한다.

점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한 승영은 솔직하게 말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는 아주머니의 대답에 감동을 받고,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데, 갈림길 중에서 양심을 지키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

장면은 다시 세 친구의 술자리로 돌아오고, 세 친구가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작은 양심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를 곱씹으며 극이 끝난다.

#0. 어느 가을날 저녁, 삼겹살집 안

왓자지껄한 식당 속에서 세 명의 친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회초년생으로 보이는 세 친구는 모두 멋진 양복을 빼입고 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이 끝나고, 취업에 성공한 승영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축하파티인 듯 하다. 용석은 능숙한 솜씨로 삼겹살을 자르고 있다.

용석 : (고기를 자르며) 야 A, 축하한다. 너 이번에 ○○ 공사 최종합격했다며?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는게 공기업 취업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뚫은 거냐?

기훈 :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말야. 우리 중에서 취업은 가장 늦게 했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곳으로 갔네. 도대체 비결이 뭐냐? 면접에서 뭐 물어보디?

승영 : (겸연쩍게 웃으며) 면접? 하도 긴장해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뭐 물어봤더라? (뭔가 생각났다는 듯 박수를 치며) 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천한 본인 경험이 있다면 말해보세요'라고 질문 들어온 게 있었던 것 같다.

기훈 : (의아하다는 듯) 아, 공기업은 면접에서 그런 것도 물어봐? 난 그런 질문이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용석 : 최근에 공공기관이든 은행이든 사기업이든 상관없이 부정부패가 엄청 터져나오고 있잖아. ●●은행도 최근에 수십억을 직원이 횡령했던 것도 터졌고, ◇◇ 공기업도 불공정채용 문제로 최근에 뉴스에 나오지 않았었나? (고기를 뒤집으며) 이야~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날고 기는 똑똑한 사람들 뽑아놨더니 실상은 횡령이니, 청탁이니 그러고 있으니 아예 면접단계에서부터 인성을 확실하게 검증하겠다는 거겠지.

기훈 : (친구들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면서) 그래? 그래서 승영이, 넌 뭐라고 대답했는데?

승영 : 용석이가 말한대로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기는 하지. 그래도 난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나쁜 목적을 갖고 입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마 작은 비리부터 조금씩 저지르면서, 부정부패에 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큰 횡령이나 비리를 저지르게 된 게 아닐까? 그래서 면접 때는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작은 양심부터 지키는 청렴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었던 것 같은데?

용석 :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 ~ 그래서 너가 청렴을 실천한 경험은 있어? 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했는데?

승영 : (미소를 지으면서) 아 옛날에 말이지..

장면은 수년 전 승영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으로 바뀐다.

장면은 수년 전 승영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으로 바뀐다.

#1. 무더운 8월의 여름날 오후, 편의점 카운터 앞

(편의점 카운터 앞으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승영 : (바코드 찍는 소리가 울리며) 네, 5,800원입니다.

손님1 : (손님이 카드를 건네며) 여기요.

승영 : 혹시 할인이나 적립카드 있으세요?

손님1 : 아뇨, 없어요.

승영 : (상품을 비닐에 담으며)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뒤에서 기다리던 다음 손님이 다가온다.

손님2 : 히말라야 한 갑 주세요.

승영 : 신분증 한 번만 확인할게요. (손님이 건넨 신분증을 확인한 뒤) 네, 4,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승영 : (속마음으로 불평하며) 아니, 평소에는 오지도 않던 손님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많이 오는거야? 할 일이 넘치는데 손님 이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네.

#2. 편의점 입구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무거워보이는 상자를 양손에 든 채로 땀을 폭포수처럼 흘리면서 편의점에 들어온다.

아주머니 : (무거워 보이는 상자를 들어보이며) 안녕하세요, 이거 택배 좀 부치려고 하는데 기계를 어떻게 쓰는건지 몰라서요. 학생, 혹시 잠깐 도와줄 수 있어요?

승영 : (다른 손님의 상품을 계산하며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손님들 계산 먼저 도와드리고 나서 도와드릴게요. (상품을 비닐에 담으며) 네, 10,2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가세요.

(잠시 후)

#3. 택배 키오스크 앞

승영 : (아주머니께 다가가면서, 여전히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택배 접수 도와드릴게요. 우선 여기 저울에 택배 올려주시면 되세요.

(무게 계량이 끝나고, 키오스크의 화면이 착수신인 정보입력란으로 바뀐다)

승영 : 이제 여기 보이시는 칸에 보내시는분, 받으시는분 정보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주머니 :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내가 완전히 컴맹이라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모르거든요. 학생, 혹시 대신 좀 해 줄 수 있어요? (쪽지를 건네며) 받는 사람 주소는 여기 적혀 있어요.

승영 : 아, 네네. (주소를 입력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아주머니 : (큰 미소를 띠면서) 이거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청어 과메기예요. 이번에 취직이 돼서 경기도로 갔거든. 집에 있을 때는 맨날 해줘서 지겹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여름이라 구하기도 힘들고, 못먹으니까 그리워졌나 봐요. 전화가 와서 먹고 싶다고 택배로 보내달라고 생난리를 피워대더라고요. 지금은 밥이나 제대로 먹고 다니는가 몰라 호호.

승영 : (속마음으로) 이 세상에 모든 부모님은 똑같구나. 자식이 좋아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더운 날에도 저렇게 무거운 택배를 들고 오면서도 저렇게 싱글벙글 웃으실 수 있구나.

순간, 승영에게 아주머니의 얼굴이 승영의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좀 전까지의 통명스러웠던 태도가 후회되기 시작하는 승영이었다.

승영 : (이전보다 훨씬 밝고 친절한 목소리로) 아 진짜요? 저도 과메기 엄청 좋아하거든요. 따님께서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주소 입력은 완료되었고, 카운터에서 접수 도와드릴게요.

#4. 카운터 앞

승영은 바코드를 찍고 택배를 접수한다.

승영 : 네, 접수 완료되었고 결제 도와드릴게요. 4,500원입니다.

아주머니 : (신용카드를 내밀며) 학생, 그런데 오늘 택배 보내면 언제쯤 도착하는 거예요?

승영은 송장을 택배상자에 붙이면서 대답한다.

승영 : (확실하지는 않다는 듯 미간을 다소 찌푸리고 고개를 저으며)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는 택배사 사정에 따라 달라서 저희도 몰라요. 그런데 택배 접수하고, 그 다음날에 기사님께서 수거해가면 보통 짧게는 이틀에서 길면 나흘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 : (걱정된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며) 아 그래요? 혹시나 몰라서 일단 냉동포장을 하기는 했는데.. 상하지는 않겠지 뭐~. 학생, 오늘 도와줘서 고마워요.

승영 :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렇게 승영은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정말 오랜만에 가슴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5. 유제품 진열대 앞

승영은 그날따라 유독 많았던 손님 때문에 미뤄두었던 재고정리를 시작한다. 우선, 선입선출을 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식품들을 앞열에 배치한다. 그리고, 그 뒤로 오후에 도착한 물류를 차곡차곡 정리한다.

#6. 쓰레기통 앞

승영은 가득찬 쓰레기통을 꺼내서 분리수거를 시작한다. 분리수거를 끝내고 난 후, 쓰레기봉투들을 다시 100L 종량제봉투에 집어넣는다. 쓰레기봉투가 빠지지 않도록 종량제봉투의 입구를 테이프로 막고, 가까운 쓰레기장으로 향한다. 쓰레기장에 도착한 승영은 종량제봉투를 쓰레기 더미 위에 올린 후,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온다.

#7. 다시 편의점 카운터 앞

시간이 흘러,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다.

해야할 일들을 대강 끝마친 승영이지만,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불안감들을 뒤로 한 채, 승영은 잠깐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켜다. 휴대폰을 키고, 대기화면에서 오늘 날짜를 본 승영은 불안감의 정체를 깨닫는다.

승영 : (속마음으로) 큰일 났다!

승영은 오늘이 토요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8. 과거 회상, 편의점 택배 키오스크 앞

승영은 편의점 점장에게 아르바이트 교육을 받고 있다. 점장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택배 키오스크를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점장 : (중요하다는 듯 강조하며) 이건 꼭 명심해. 토요일에는 절대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면 안 된다.

승영 : (궁금하다는 듯이) 혹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점장 : 택배기사님께서 일요일에는 택배를 수거를 하시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토요일에 냉장식품 택배를 접수하면 어떻

게 되겠어? 여기서 월요일까지 택배를 보관했다가 수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안에 든 내용물이 상하겠지?

승영은 수첩에 내용을 받아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승영 : (수첩에 지시사항을 받아적으면서)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9. 과거회상에서 다시 돌아와서, 편의점 카운터

당황한 승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채를 부여잡고 고민하기 시작한다.

승영 : (속마음으로) 어떡하지? 빨리 말씀드리고 조치를 취해야 하나?

승영은 택배함 쪽으로 다가간다.

승영 : (아까 접수한 택배용지를 살펴보며 속마음으로) 역시나. 송장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손님 전화번호가 나와있지 않네. 이러면 손님에게 다시 연락드리려면 택배사로 전화를 해서 고객정보를 요청해야 하나?

순간 승영은 아주머니가 냉동포장을 했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린다.

승영 : (속마음으로) 그래, 솔직히 냉동포장 되어 있는데 하루이틀정도 더 늦게 도착한다고 상품이 상하기야 하겠어? (마음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내버려두자. 배송일은 택배사 사정 따라서 하루이틀 더 걸릴 수도 있는거고. 혹시 도착할 때 상했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탓을 하겠지, 우리 편의점 탓을 하겠어?

못난 생각들이 떠오르며 승영의 실수를 합리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승영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져 간다. 순간, 과메기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딸과, 그 모습을 상상하며 환하게 웃고 있을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얼굴은 점점 승영의 어머니 얼굴로 바뀌어 간다. 예의바르고 정직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아들을 자랑하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른다.

승영 : (속마음으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거지? 내가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말자고 맹세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적어도 정직하게, 남들을 속이지는 말고 살아오자고 약속했었잖아. 그런데,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 혼자서 해결 못해서 양심을 팔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승영은 마음을 굳힌 듯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선다.

#10. 편의점 밖

승영은 휴대전화로 점장에게 전화를 건다.

(따르릉~ 따르릉~, 점장이 전화를 받는다)

점장 : (휴대전화 너머로) 어, 승영아, 무슨일이야?

승영 :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로) 아, 점장님. 주말에 쉬시는데 연락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실수로 토요일인데 냉장식품 택배 접수를 받아버렸어요.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환불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송장에 고객님 개인정보가 안나와있더라고요. 택배사에 전화해서 고객님 연락처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혹시 택배사 전화번호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점장 : (너털웃음을 지으며) 아, 뭐야, 그런거였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다? 잠깐 기다려봐. 그거 일개 알바생인 너가 전화한다고 쉽게 개인정보 주지는 않을거야. 일단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너한테 연락을 줄게.

승영 : (다행이라는 목소리로) 정말요? 하, 실수한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일에 집중이 안됐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점장님.

점장 : 걱정 안해도 돼. 조금 있다가 연락 줄게. 고생해~

승영 : (안도한 목소리로) 네, 들어가세요.

다시 안으로 들어온 승영은 가벼운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한다.

#11. 청소가 끝난 후, 다시 편의점 카운터

승영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한다. 점장에게서 온 전화인 듯 하다.

(따르릉~ 따르릉~)

승영 : (긴장된 목소리로) 네 점장님, 어떻게 되었나요?

점장 : 잘 처리됐어. 손님분 연락처 받아서 내가 연락드렸고, 곧 택배 회수하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 오시면 택배 환불 해드리면 돼. 아, 그리고 손님께 사과 드리는거 절대 잊지 말고.

점장 : (전화를 끊으려다가 할말이 생각났다는 듯) 아 맞다. 그리고 실수한 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원래 알바들은 이런 실수가 생겨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나중에 조사해보면 누가 실수한 건지 금방 찾을 수 있지만, 이런 실수들을 알바한테 질책하면 대부분은 금방 그만뒀 버리더라고. 솔직히 내 입장에서라도 새로 알바 뽑고 교육 시키기가 번거로우니까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어. 그런데, 너처럼 이렇게 실수한 걸 솔직하게 말해주니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이런 일 생기면 나한테 꼭 연락해. 나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알바들이 실수하면 눈감아 주는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울게.

승영 : (안도한 목소리로)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점장님. 손님 오셔서 일 마무리 되면 다시 연락 드릴게요.

#12. 조금 후, 같은 장소

택배를 접수하셨던 아주머니가 편의점으로 걸어오고 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 승영은 괜스레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아주머니 : (땀을 닦으면서) 안녕하세요, 예휴, 이놈의 날씨는 해가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덥네요.

승영 : (긴장한 듯) 어서오세요. 택배 접수 취소하러 오셨죠? 정말 죄송해요. 원래 토요일엔 냉장식품 택배 접수 받으면 안되는 건데, 실수로 제가 손님 택배접수를 받아버렸지 뭐예요. 덕분에 손님을 두 번 발걸음 하게 만들고..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 (손사래를 치며) 아유, 신경쓰지 마세요. 그래도 다시 얘기해준 덕분에 상한 과메기가 딸한테 가게 될 일은 없었잖아. 택배야 다시 냉동보관 했다가 나중에 또 보내면 되는 거고요.

승영 : (커피를 건네며)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너무 죄송해서 이거라도 받아주셔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 : (웃으며) 사실 처음에 택배 접수를 취소해야 한다는 전화 받았을 때는 솔직히 짜증이 났죠. 이 더운날에 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와서 가져가라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학생 얼굴을 생각해보니 우리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다시 얘기해줬잖아. 그럼 그걸로 된 거예요.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다. 순식간에 커피를 비운 후,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주머니. 택배상자는 여전히 무거워 보인다. 승영은 재빨리 문을 열어 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한다. A의 가슴 속에서는 희미하지만 한 줄기의 불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13. 과거 회상 끝. 다시 삼겹살 집

다시 장면은 세 친구가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삼겹살 집으로 이동한다. 승영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느새 삼겹살이 다 익어 있었다. 용석은 친구들에게 다 구운 고기를 나눠준다.

용석 : (고기를 나눠주며, 재미있다는 듯) 너 옛날에 거기서 알바했을 때 나도 몇 번 갔었잖아. 갈 때마다 하는 것도 없이 시간만 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 일도 있었어? 재밌네. 그럼, 그 일화가 면접에서 유효타로 먹었던 건가?

기훈 : (삼겹살을 우물거리며) 야, 근데 솔직히 그건 오바 아니냐. 니 얘기대로라면 그냥 너가 실수해놓고 책임지기는 싫어서 이리저리 짱구 굴리다가, 결국 원래 했어야 했던 조치를 취한 것 뿐이잖아. 솔직히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용석 : (기훈의 등짝을 때리면서) 어허~ 우리 ○○ 공사에 합격하신 승영님에게 못하는 말이 없구나.

승영 : (꺄꺄 웃으면서) 근데 사실 기훈이 말이 맞긴 해. 내가 좀 소심하잖아.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솔직히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따지고 보면, 내 실수 하나 때문에 대체 몇 명이나 번거롭게 만든 거겠어? 아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그냥 '민폐 썰'을 보기 좋게 포장한 걸로 밖에 안보이는게 당연하지.

승영은 말을 잠시 멈추고 술을 한잔 들이킨다.

승영 : 그래도 난 그 일 겪고 나서 배운 게 하나 있어. 누구나 양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날이 오잖아. 근데 이상하게 양심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은 부정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험난해 보이거든. 그런데, 갈림길 중에서 양심을 지키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 비록 내 실수에서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편한 길을 포기하고 양심을 지켰다고 생각해. 그것만으로도 내겐 값진 경험이었어.

용석 : 그리고,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내딛는 그 작은 용기에서부터 청렴이 시작된다는 이 말이지?

어때 기훈, 이제 알겠어?

기훈 : (손사래를 치며)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니네들이랑 같이 있으면 뭔가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죄지은 기분이 되는 것 같다니까. (술잔을 높이 치켜드며) 그래, 그럼 이번에 취업한 승영이를 위해 거국적으로 건배 한번 할까? 건배사는 승영이가 하는 걸로 하자!

승영 : (당황하며) 뭐야 그게. 나 이런거 멍석 깔아주면 진짜 못하는 스타일인데.

(잠시 고민하며) 자, 그럼 '청렴'으로 2행시 해보겠습니다.

기훈, 용석 : 청!

승영 : 청년들이여,

기훈, 용석 : 령!

승영 : 염치없이 살지는 말자.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건 이제 우리들이다!

용석 : (질색하며) 와, 진짜 더럽게 못하긴 하네. 저저 억지로 끼워맞춘거 봐봐.

기훈 : 됐어. 빨리 먹거나 하자. 야, 근데 술값은 승영이가 내는거 맞지? 너가 취업해서 모인거잖아.

승영 : 아니, 이제 갓 취업한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소식 듣고 너네가 축하파티 해주기로 한 거 아니었어?

용석 : 무슨 소리야? 취뽀한 놈이 한턱 내는거지.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왓자지껄 떠드는 세 친구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막이 끝난다.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 김민성

주요 등장 인물 소개

루돌프<극의 주인공. 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에서 근무하는 암컷 순록이다.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받은 인재지만 아직까지 선두에서 썰매를 끌어보지 못 했다.>, **부돌프**<북극 본사에서 온 수컷 순록으로 한국 지사로 온 뒤 산타의 총애를 받는다. 처자식을 북극에 둔 기러기 아빠.>, **마녀사슴**<루돌프의 사수였으며 과거 산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순록이었다.>, **산타**<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의 산타로 극 중에서 언급될 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시놉시스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산타하우스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루돌프는 작년 올해의 우수사원상을 수상하고 사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인재이다.

배송지원부 소속인 루돌프는 모든 순록들의 꿈인 썰매 선두에서 진두지휘하며 썰매를 끄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한 번도 선두에서 썰매를 끌어보지 못 했다.

산타하우스가 가장 바빠지는 연말을 앞두고 수컷 순록인 부돌프가 들어온다. 부돌프는 북극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신입으로 산타의 총애를 받는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부돌프의 사수로서 일을 가르치던 루돌프는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자신은 선두에서 썰매를 끌지 못할 수 있으며 부돌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확정이란 소문을 듣는다.

북극에서 온 부돌프보다 한국의 물정을 잘 알고 있는 루돌프는 이를 부당하게 여기지만 산타의 눈 밖에 나게 될까봐 솔직하게 불만과 요구를 얘기하지 못 한다.

홀로 속앓이를 하던 루돌프는 자신의 사수였던 마녀사슴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마녀사슴 선배의 과거 이야기와 위로를 들은 루돌프는 결의를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선두로 발탁되지 못 한다. 크리스마스이브 부돌프의 실수로 누락된 선물이 있다는 걸 알게 된 루돌프는 마녀사슴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선물을 무사히 전달하며 극은 마무리된다.

루돌프는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남성 위주 카르텔을 이겨내고 썰매를 이끌 수 있을까?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기쁨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루돌프들에게엔 공정을.

이 세상 모든 루돌프에게

S#1. 산타하우스 외관 (낮)

잔잔한 캐롤이 울려 퍼지며 FI.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 외관이 보인다. 보통 사무실 건물처럼 간판이 걸려있다. “Santa’s house in Korea”

S#2. 회의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캄캄한 회의실 F.S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을 통해 영상이 흘러나온다. “산타하우스 신입직원 교육 영상 (배송지원)”라는 글자가 보인다.

S#3. 사무실 내부

빨간 코와 사슴뿔 분장을 하고 있는 루돌프 등장한다. (극 중 모든 순록들은 빨간 코를 제외한 나머지 루돌프와 동일한 분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루돌프 : 반갑습니다. 저는 산타하우스 한국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루돌프입니다. 산타하우스의 일원이 되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다니며 사무실 내부를 소개하는 루돌프. 사무실 문을 열자 뾰족한 귀에 초록색 의상을 입고 열심히 선물을 포장하는 엘프들이 보인다. (극 중 모든 엘프들은 위 설명과 동일한 분장을 하고 등장합니다.)

루돌프 : 보이시나요? 이곳은 선물포장부입니다. 엘프들이 선물제작부에서 받아온 선물을 포장하는 곳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나눠 줄 선물을 하나하나 정성껏 포장하는 곳이죠.

계속해서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루돌프. 벽 앞에 걸린 자신의 사진이 걸린 액자 앞에 멈춰 선다. “employee of the year”, “올해의 우수사원”이라고 적혀 있다.

루돌프 : 저희는 연말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소중한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죠. 캐롤을 들을 여유조차 없답니다. 비록 몸은 고되지만 저흰 일에 자부심이 느끼고 있어요.

다음 문을 향해 걸어가는 루돌프. “배송지원부”라 적혀있는 문패 C.U

루돌프 : 이곳은 배송지원부입니다. 다른 부서들 대부분 엘프들이 근무하고 있어요.여긴 오직 순록일곱 마리만 근무하는 부서입니다.

저 또한 배송지원부에서 일하고 있죠. 모든 순록들이 그렇듯 저 또한 같은 꿈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마스에 썰매를 끄는 순록 중에서 가장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같은 순록으로서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S#4.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눈에 띄는 걸 제외하면 컴퓨터와 책상으로 채워진 평범한 회사 사무실과 별다를 바 없다. 문 앞에 놓인 화이트보드 옆에 서 있는 루돌프. 루돌프를 제외한 순록 다섯 마리는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부돌프.

부돌프 : 안녕하세요. 북극 본사에서 온 부돌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부돌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수를 치는 루돌프. 다른 순록들은 심드렁하다. 타자기 소리(E) 타자기 소리 점점 줄어든다.

S#5. 탕비실

어디에서 볼 법한 평범한 회사 탕비실에 크리스마스 장식들로 가득하다. 테이블에 앉아 냉장고에서 꺼낸 슈톨렌 케이크를 접시 위에 올려놓는 루돌프. 부돌프가 탕비실로 들어온다.

부돌프 : 루돌프 선배님!

루돌프 : 아, 부돌프. 저를 그냥 루돌프라 부르세요.

부돌프 : 네, 선배님. 아니 루돌프.

루돌프 : 슈톨렌 드실래요?

부돌프 :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루돌프 : 구내식당으로 간 것 같네요.

오늘 구내식당 메뉴는 진저브레드 하우스랑 에그노크인데, 일단 앓을까요?

테이블 자리에 앉는 루돌프와 부돌프. 루돌프는 슈톨렌 한 조각을 잘라 부돌프 앞에 있는 그릇에 올려놓는다.

부돌프 : 힘들지 않아요? 다른 순록들은 전부 수컷이던데.

루돌프 : 힘들기도 하지만 그냥 제 할 일 하는 거죠. 부돌프는 어때요? 적응 되고 있나요?

부돌프 : 네. 루돌프 덕분이예요.

루돌프 : 한국지사랑 북극이랑 많이 다른가요?

부돌프 : 아, 북극은 할로윈 시즌까지만 근무했던 곳이고 그리 오래 일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북극에서 일했다고 하니 산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최대한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고.

품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는 부돌프.

부돌프 : 북극에 있는 가족들이 정말 보고 싶네요.

루돌프 : (사진을 들여다보며)어머! 아이도 있군요.

부돌프 : 네, 아직 한 살도 안 된 세끼예요.

제가 가장이다보니까 가족들을 북극에 남겨놓고 와야 했어요. 그건 그렇고, 루돌프 정말 대단하던데요. 올해의 우수사원에다가 처음 배송지원부에 지원할 때부터 들었어요. HR 엘프들이 루돌프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루돌프 : 직원교육 영상 봤겠네요. 아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전 아직 설매를 끝 때 선두에 서 본 적도 없는 걸요.

부돌프 : 아부가 아니에요. 올해는 분명 루돌프가 크리스마스이브에 선두에 설 거예요.

부돌프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생각에 잠기는 루돌프. 부돌프는 웃으며 슈톨렌을 먹는다

S#6. 사무실 복도

초록색, 빨간색 색감이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파일을 들고 사무실 복도를 걷는 루돌프. 사무실 문 너머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Santa” 라고 적혀 있는 문패가 달린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는 부돌프. 얼마나 웃은 건지 나오자마자 얼굴 근육을 이리 저리 움직인다.

루돌프 : 부돌프!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부돌프 : 네. 산타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산타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일정이 끝나면 북극에 있는 저희 가족 들을 하와이에 있는 별장에 초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정말 유쾌하기까지 하고요.

루돌프 : 절 가끔 꽃사슴이라고 부르지만 분명 좋은 분이긴 하죠. 전 먼저 사무실로 가볼게요.

도망치듯 자리를 뜨는 루돌프.

S#7. 화장실 내부

거울 앞에선 루돌프. 옷 매무새를 정리하다 한숨을 내쉰다.

루돌프 : (Narr.) 어쩌면... 올해도...

S#8.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각자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순록들. 루돌프는 부돌프 책상 앞에 붙어 일을 설명해준다.

루돌프 :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이번 주에 업무지원부 엘프한테서 착한 아이, 나쁜 아이 리스트가 올라올 거예요. 북극에선 Naughty or Nice list였죠?

부돌프 : 네.

루돌프 : 지역마다 각자 이동 동선을 확인해야 하니까 지리적인 특징도 잘 알아야 돼요.

부돌프 : 제가 북극에서 왔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취약하네요.

루돌프 : 걱정 마요.

요새 출생률이 많이 낮아져서 우리가 들려야 할 집들이 꽤 줄었어요.

그럴수록 더 누락되는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요.

갑자기 말에 끼어드는 순록 가

순록 가 : 요새 여자들은 정말 이기적이야!

루돌프 : 네?

순록 가 : 그렇잖아, 애를 안 낳고 돈 벌면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 덕분에 우리 할 일은 줄고, 이리다가 배송지원부 인원감축 되겠어. 이 속도로 봐선 그리 먼 애긴 아냐.

루돌프 : 그 문제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이 경제적인 지원인데 그럼에도 출생률이 낮아지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요.

순록 가 : 그 여러 가지 원인이 뭐가 있는데.

루돌프 : 저출생은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도 연관 있어요. 남자들이 육아, 가사 일을 덜 하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통계도 있다고요. 경력 단절문제도 있고, 양육 친화적이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원인이예요.

부돌프 : 맞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이 노키즈 존이란 게 있다는 거였어요.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란 속담이 있는데 말이죠.

루돌프 : 우리 일자리가 그렇게 걱정되면 말이죠. 어떻게 해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세요. 괜히 인간 여자를 탓하지 마시고요.

순록 가 : 흥! 기러기 아빠랑 결혼도 안 한 암컷 순록 말 듣고 싶지 않아.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록 가, 부돌프는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본다. 루돌프 자리에서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벨(E)

루돌프 : 잠시만.

부돌프 : 네.

S#9. 선물포장부 사무실 내부

트롤리를 끌고 다니며 포장된 선물을 옮기고 있는 선물포장부 엘프들. 루돌프와 부돌프는 알록달록한 리본과 포장지가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힘겹게 선물 상자들을 트롤리 위에 올린다.

루돌프 : 어째 이런 일이

부돌프 : 그러게요.

(Insert)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는 루돌프.

루돌프 : 네? 엘프가 과로로 쓰러져요?

부돌프 : 먼저 참고로 옮겨 놓을게요. 아! 아까 가 순록이랑 있던 일말인데요.

루돌프 : 네?

부돌프 : 그렇게 큰 소리 낼 수 있는 분 인줄 몰랐어요. 루돌프. 그리고 육아는 전 적으로 누군가 홀로 맡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아, 제가 할 말은 아니네요. 전 여기 있고 와이프는 독박육아 중이니까.

루돌프 : 그런 말 마세요.

부돌프 : 아무튼 저희 딸이 자랄 세상에 루돌프 같은 순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루돌프는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트롤리 하나를 끌고 사무실을 나서는 부돌프. 문이 닫히는 소리 (E) 루돌프는 잠깐이지만 미소를 보인다. 이내 트롤리를 끄는 루돌프는 선물포장부 내부에 있는 낡은 사무실 문을 보고 발걸음을 멈춘다.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힌 문패가 흐릿하게 보인다.

S#10. 휴게실

작은 소파에 앉아 귀여운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는 엘프 가, 엘프 나

엘프 나 : 휴, 빨리 연말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엘프 가 : 너 그 얘기 들었어?

엘프 나 : 뭔데요?

엘프 가 : 내가 다른 부서 엘프들한테 들었는데, 루돌프 있잖아.

올해에도 선두로 안 세울 거래.

엘프 나 : 왜요?

엘프 가 : 산타클로스가 새로 들어온 부돌프 맘에 들어 하잖아. 선두는 부돌프가 거의 확정이래. 작년에 올해의 우수 직원 받을 때만 해도 루돌프를 끼고 살더니... 부돌프가 북극에서 왔다가 본사 산타 얘기 하느냐고 정신없잖아. 그리고 부돌프 아직 한 살도 안 된 새끼 사슴 아빠래. 기러기 아빠라니까 엄청 챙겨주는 것 같더라고.

엘프 나 : 그건 저도 들었어요, 이번에 산타 가족들이랑 하와이도 간다던데... 루돌프가 가없네요.

엘프 가 : 그니까 루돌프만 안타깝게 됐지.

(Cut to) 휴게실 앞 복도에 멈춰서 있는 루돌프. 씩씩해 보이는 루돌프 얼굴 CU. 이내 트롤리를 끌고 간다. 트롤리를 끌며 복도를 걸어가는 루돌프의 뒷모습 FS.

S#11. 산타의 사무실 내부 (루돌프의 상상)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대한 트리가 놓여있고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가득한 산타의 사무실 내부. 책상 뒤엔 큰 창문과 벽난로가 보인다. 책상 건너편 루돌프가 보인다. 산타가 앉아 있는 듯 보이는 커다란 의자 앞에 대고 말하는 루돌프.

루돌프 : 올해는 제가 꼭 선두에 서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부돌프씨 보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한국의 물정을 잘 알고 있는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 CU. 편지를 열어보는 루돌프. 그러자 화면 새 하얗게 F.O

S#12. 탕비실

싱크대 위 컵에서 흘러 넘친 우유가 보인다.

루돌프 : 아!

항급히 행주를 가져오는 루돌프. 급하게 닦다가 점점 속도가 느려진다. 행주를 꼭 쥐어보는 루돌프. 손을 부들부들 떤다.

S#13. 복도

“Santa”라고 적혀있는 문패가 달린 산타의 사무실 문 앞에 서성이는 루돌프. 노크를 하려다 주저한다. 루돌프는 고민하는 듯 고개를 잠깐 숙인다. 눈을 꼭 감은 채 이내 노크를 하는 루돌프. 산타의 사무실 문이 아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 건 마녀사슴이다. 문패엔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혀있다. 자세히 보면 ‘ㅏ’ 획 하나가 문패에 적힌 글씨 폰트와 다르다.

S#14. 마녀사슴의 사무실 내부

책상을 가운데 두고 앉아있는 마녀사슴과 루돌프. 다른 회사내부와 달리 마녀사슴의 사무실엔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다. 산타하우스 건물 내부 중 가장 삭막한 느낌이다. 마녀사슴은 선물포장부 엘프들과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루돌프처럼 사슴 분장을 하고 있다.

마녀사슴 :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며)그런 일이 있었구나.

루돌프 : (잔을 손에 꼭 쥐 채)미녀 선배, 저 어떡하면 좋아요?

마녀사슴 : 고개 들어. 뭐 죄 지었니?

고개를 드는 루돌프. 울 것 같은 표정이다.

루돌프 : 이게 제 욕심인가요? 제가 이기적인가요? 처자식 딸린 가장이 출세가도를 걷는 걸 막는 건가요? 전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괜히 입 밖으로 꺼냈다가 산타 눈 밖에 나게 될 까봐 무서운걸요. 예전에도 이런 불만을 제기한 순록이 있었을까요? 산타한테 불만을 얘기하면 산타는 어떻게 대처하던가요?

마녀사슴 : 그 양반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니?

루돌프 : 선배가 제 사수였을 때 산타가 제일 아끼는 순록이었잖아요.

S#15. 회상 (Flashback) 탕비실

탕비실 싱크대 앞에 서있는 엘프 복장을 입고 있지 않은 마녀사슴이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조금 앳된 루돌프. 마녀사슴은 앞에 놓인 잔에 담긴 커피를 캔디 케인으로 휘젓는다.

루돌프 : 미녀선배. 정말 대단해요. 올해 썰매 끄는 거 선두라면서요.

다른 엘프들한테 다 들었어요.

마녀사슴 : 하여간 엘프들은 수다쟁이들이라니까. 말이 너무 많아.

루돌프 : 3년 연속 올해의 우수사원 선정에다가... 선배는 암컷 순록들의 동경의 대상이라고요.

마녀사슴 : 에이, 뭐 그 정도까지. 너무 띄워주지 마. 그래도 든든한 후배가 있으니 좋은데. 내가 앞장설 테니 넌 따라와.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상인지 벼랑 끝일지 이 끝에 뭐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언젠가 정상에 서고 싶어.

최초로 선두에서 썰매를 이끈 암컷 순록이고 싶어.

S#16. 회상 (Flashback) 병원 입원실 내부 (낮)

창문을 통해 낙엽 잎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 병상에 누워있는 마녀사슴. 부쩍 쇠약해진 얼굴을 하고 있다.

루돌프 : 미녀선배~

마녀사슴 : 왔니? 후우... (몸을 일으키며) 연말이 코앞인데 이게 무슨 꼴이니? 제일 바쁠 때.

그래도 잘 키운 후배가 있으니 걱정은 덜었다.

루돌프 : 저요?

마녀사슴 : 그럼 여기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마녀사슴은 루돌프의 손을 꼭 쥐다.

마녀사슴: 난 지금까지 내가 꿈을 좇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쫓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너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마. 여직원 하나의 실수는 모든 여직원의 실수인 거 알지? 직장인은 실수했을 때 사과하면 되지만, 여직원은 아냐. “이러니까 여자랑 일 안해.”, “이러니까 여자한테 오퍼를 안 넣어.”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루돌프: 네.

마녀사슴: 그리고 건강 챙겨.

S#17. 마녀사슴의 사무실 내부

마녀사슴: 아프기 전까지 모든 엘프들이 나 보고 참 독하고 욕심 많다고 했었어. 밤샘 근무는 일상인데다가 친구도 없고 결혼도 안 하지 당연히 애도 없지. 그리고 나서 산타하우스에 복귀해보니 가관이었지. 그렇게 날 야기던 산타는 나보고 가정적인 회사 모토에 맞지 않으면서 말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늘어놓더니... 날 선물포장부로 보내 버렸고.

(Insert) 짐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는 마녀사슴. '선물포장부 마녀사슴'이라 적힌 문패를 보더니 펜을 가져와 획을 하나 긋는다. '미'가 '마'로 바뀌었다.

마녀사슴: 나 어릴 때부터 독하고 욕심 많다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다. 내가 집에서 첫째였거든. 거기다 딸인데 집안에서 아무도 날 대학에 보내려 하지 않는 거야. 나도 꿈이란 게 있는데 말이지. 비록은 이름은 미녀지만 마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 했어. 나는 마녀가 되어야겠다. 그런 소리 들을 바엔 마녀가 되어서 보란 듯이 성공해야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악을 쓰고 기를 써서 공부 했고 대학에 가서 겨우 산타하우스에 들어올 수 있었어.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넌 틀리지 않았어. 틀린 게 있다면 네가 아니라 세상이겠지. 그러니 뭐든지 너의 방식대로, 네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힘닿는 대로 도와줄 테니까.

루돌프: 고마워요.

마녀사슴: 내가 자식은 없지만 넌 내 딸 같아, 네가 날 참 닮았어.

루돌프: 저도 마녀가 되겠습니다.

마녀사슴: 좋은 건배사네.

머그잔을 부딪치는 루돌프와 마녀사슴. 화면 F.O

S#18. 배송지원부 사무실 내부 (밤)

깜깜한 사무실에 루돌프의 책상 위 조명만 불이 켜져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타자를 치고 있는 루돌프. 루돌프 책상 뒤로 보이는 화이트보드에 “Christmas eve D-1”이라고 적혀 있다. 옆에 붙어 있는 공고문에 “XXXX년 크리스마스 배송지원부 선두는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부돌프” 라고 적혀 있다.

루돌프: (Narr.)나의 방식대로, 내가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늘 그래왔듯 능력으로 날 증명하겠어.

업무를 마친 듯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적힌 “D-1”을 지우고 나가는 루돌프.

S#19. 복도 (밤)

승강기 앞에 서 있는 엘프 가.

엘프 가 : 지금 퇴근하세요?

루돌프 : 네. (자신의 붉은 코를 두드리며) 이제 정말 코앞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엘프 가 : 드디어 내일이 이브네요. 늘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는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루돌프 : 가 엘프도 지금 퇴근하잖아요. 가정도 있으면서... 더 대단해요.

엘프 가 : 호호, 그렇죠. 전 가족들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일이 좋아요. 전 산타하우스에서 살아있음을 느껴요. 루돌프도 그렇죠?

루돌프 : 네.

엘프 가 : 올해 크리스마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데. 배송지원부 순록들 고생 좀 하겠네요.

승강기 알림 음(E) 승강기 문이 열린다.

엘프 가 : 그리고 너무 상심하지 마요.

S#20. 숲 속 (밤)

눈이 내리는 겨울 밤, 눈이 소복하게 쌓인 숲 속이 보인다. 각자 머리에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물을 마시고 있는 배송지원부 순록 7마리들. 다들 지쳐 보이는 와중에 들고 있던 리스트를 확인하던 부돌프의 얼굴이 사색이 된다.

S#21. 사무실 내부 (밤)

전화벨 소리(E) 불이 꺼진 사무실 F.S 내선 전화기 한 대가 빛을 내며 울리고 있다.

S#22. 회의실

S#3에서 나온 회의실이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다. 캐롤이 흘러나오고 산타와 배송지원부 순록들을 제외한 산타하우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홀로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마녀사슴. 시큰둥한 표정으로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 잔에 담긴 샴페인을 한 잔 집으려 하자 울리는 마녀사슴의 전화. 진동음(E)

마녀사슴 : (한 쪽 귀를 막으며) 여보세요?

루돌프 : 미녀 선배! 혹시 술 마셨어요? (E)

마녀사슴 : 아니. 왜?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마녀사슴.

S#23. 복도

어두운 복도로 나온 마녀사슴의 표정이 어둡다.

마녀사슴 : 뭐? 부들프는 뭐하고?

루돌프 : 아무래도 처음으로 선두에 서는 거라 긴장을 해서 그런지... 미처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미 다른 순록 들한테 나머지 선물 동선을 다시 짜도록 했어요. 시간이 없어요. 누락된 선물들은 아직 선물제작부에 남아있을 거예요. 창고에 예비 썰매가 있을 텐데. 썰매 혼자 끌 수 있겠어요? (E)

마녀사슴 : (확신에 찬 말투로)그럼! 나 올해의 우수사원 3년 연속 수상한 순록이잖아.

통화를 마치자 긴장한 듯 한숨을 한 번 내쉬는 마녀사슴. 이윽고 회의실로 뛰어 들어간다. 회의실 문 닫히는 소리(E)

마녀사슴 : 비상! 비상이에요! (E)

S#24. 숲 속 (밤)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숲 한 가운데 눈보라를 해치며 뛰어오는 마녀사슴. 등엔 붉은색 벨벳에 금빛 줄로 묶여 있는 선물 꾸러미를 메고 이마에 고글을 끼고 있다.

루돌프 : (손을 흔들며 마녀사슴 쪽으로 뛰어온다) 마녀 선배! 여기예요!

마녀사슴 : (헉헉거리며 선물 꾸러미를 건넌다) 여기!

루돌프 : 고마워요!

마녀사슴에게 건네 받은 선물꾸러미를 들고 숲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루돌프. 홀로 남겨져 루돌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녀사슴.

마녀사슴 :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썰매를 끌어본 게 몇 년 만인지...

S#25. 복도 (오전)

이듬해 연말, 복도에 걸린 대형 게시판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미고 있는 엘프들. 아기자기한 눈사람 장식과 겨우살이 장식을 매달고 있다. 그 옆에 사내뉴스라고 적혀있는 신문 C.U 루돌프의 사진과 함께 크게 적혀있는 헤드라인과 기사가 보인다. “2년 연속 올해의 우수사원 수상! 배송지원부 루돌프”, “올해 국내 산타하우스 암컷 사슴 최초로 크리스마스 선물 배달 선두에 서게 되었다.”, “작년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으로 크리스마스를 위기에서 구해낸 공을 인정받아...”

화면 F.O 되면서 종소리(E)



장려상

티끌의 가치

| 김민선

주요 등장 인물 소개

아버지<목민심서를 자주 소리내어 읽는 50대 초반. 말이 없고 묵묵함. 공직가치를 마음에 새기며 맡은 바 일에 충실하려 하지만 이웃들로부터 고지식하다는 원성도 듣는다.>, **아들**<고등학생. 요즘 시대에 목민심서와 같은 옛날 책을 읽는 것은 고리타분하다 여기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을 아버지가 굳어 부스럼 만든다 생각해 아버지에게 반항한다. 그러다 시간이 전개되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어렵פות이 이해하게 된다.>, **어머니**<아버지와 아들 양쪽의 입장을 전부 이해하고 있다.>, **영식이 할아버지**<분식집 주인. 아버지에게 단속을 당하지만 아버지와 나쁜 사이는 아니다.>

시놉시스

아버지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 공무원이다. 불법 노점상이기만 하다면 지인이거나 이웃이라도 예외없이 단속해 이웃들의 원성을 사고, 아들은 평소 그런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다. 어느 날 아들이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있던 중에 아버지가 단속을 하러 들어오게 되는데, 아들은 떡볶이 장사를 하는 그 분식집 주인 할아버지가 손자와 단둘이 살며 노점상으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노점상이 길목에 있어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큰일인 데다, 가스 배선도 노후화되어 있어 화재라도 나면 큰일이라고 단속의 이유를 설명하지만 아들에게는 그저 핑계로만 들린다.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지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아버지가 뺏었다고 생각한 아들은 그 날 저녁 집에서 아버지께 크게 반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난 아들은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분식집 할아버지의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별안간 시민들 사이에서 불이 났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아들이 가보니 노후화된 전선이 원인으로 그 노점상에서 그 노점상에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재현장에서 분식집 주인 할아버지를 구해내 밖으로 나온다. 불평하거나 생색내지 않고 사람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뭔가를 느낀다.

이후 아버지는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범 공무원상을 받는다. 시상식장에 참석해 박수를 치면서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다.

#1 집 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펴놓고 글을 읽고 있다.)

아버지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은 목민관은...

(방문을 열고 아들이 등장.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쿵쿵거리며 들어온다)

아들 : 또야. 아빠는 때가 어느 땐데 그걸 읽어요?

아버지 : 어허. 동서고금에 통하는 진리라는 게 있는 거야.

아버지는 계속해서 글을 읽어내려감. 아들은 지겹다는 양 귀를 막는다.

아들 : 저 말만 몇 번이야 진짜.

불평과 함께 방을 나가는 아들.

#2

장면 전환. 나레이션 (아들 목소리) : 우리 아빠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셨다. 엄마는 항상 '너희 아빠만큼 바른 사람이 없다' 며 아빠를 칭찬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남들은 하지 않는 일을 왜 혼자 나서서 하시는 걸까?

집 대문 앞. 아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옆집 사람이 지나간다. 아들 옆집 사람에게 인사한다.

아들 : (이웃 1과 눈을 마주치려 들며 허리를 숙인다) 안녕하세요.

옆집 사람 : (대답없이 지나간다)

아들은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웃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원인을 알겠다는 반응을 보인다. 인상을 찡그리고 대문을 열어 큰 발걸음으로 들어간다. 마루를 빠르게 가로질러 안방 문을 열고 아버지께 대뜸 묻는다.

아들 : 아빠 또 옆집 아저씨한테 벌금 물렸죠?

책을 읽던 아버지, 아들 쪽을 응시하며 침착히 대꾸한다.

아버지 : 옆집이라고 봐주고 그러는 게 아냐. 그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하는 거다.

아들 : 어차피 아빠 빼고는 다 눈감아주잖아요. 좀 넘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아빠 때문에 우리 집 동네에서 왕따예요, 왕따.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책을 본다. 아들은 짜증 가득한 한숨을 쉬며 돌아선다.

나레이션 (아들 목소리) : 가끔 보면 아빠는 정이 없는 사람 같다. 나라에 널린 게 포장마차인데, 그것도 엄연한 불법이라고 옆집 이든 뒷집이든 다 잡아내신다. 그거 때문에 우리만 동네에서 찬밥 신세다.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어디가 덧나나?

#3 포장마차 길목

아들, 친구들과 하교하는 길. 친구들 1, 2, 3과 길을 걸어간다. 한쪽 길목에 자주 가던 떡볶이 포장마차 집이 보인다.

친구 1 : 야, 떡볶이 먹고 가자.

군말없이 따라나서는 친구들. 아들은 잠깐 망설이는 눈길로 포장마차를 보다가 금세 따라나선다.

포장마차 안에는 나이 든 할아버지가 서 있다. 그 앞에는 순대, 떡볶이, 오뎅 등 맛있는 분식들이 따끈따끈한 연기를 내고 있다.

친구 1 : 떡볶이 4인분이랑 순대 하나요.

할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은 듯 허리가 많이 굽어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세 요리를 내온다.

할아버지 : 학교 끝나고 오는 길이니? 맛있게 먹어라.

학생 1, 2, 3, 아들 : 감사합니다.

학생들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다. 곧이어 천막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이 있다. 무심코 고개를 올려 누군지 확인했던 아들이 불편한 듯 얼굴을 찌푸린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선 아버지, 아들과 잠깐 눈이 마주쳤으나 이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한다.

아버지 : (안타까운 목소리로) : 어르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허가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 (가래 끓는 목소리)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봐줘. 나도 손자 용돈은 벌어야지 않겠나.

아버지 : 그래도 위험해요. 이렇게 길목 한복판에서 장사하시면 차가 지나다니다가 여길 칠 수도 있고, 지금 쓰시는 가스도 배관이 오래된 거라 잘못하면 불날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 : (말끝을 흐리며) 알지, 그거는 나도 아는데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 : (안쓰러운 듯 할아버지를 응시하며) 과태료 8만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 힘없이 꼬깃꼬깃한 8만원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내민다. 아버지도 개운치 않은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인다.

아버지 : 얼른 쉬세요.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요. 쉬어야 낫죠.

떡볶이를 먹다 말고 눈치만 살피는 학생 1, 2, 3. 아들은 아예 못 본 척하려고 시선을 피한다. 아버지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엄한 목소리로 타이른다.

아버지 : 너희들도 그만 가라.

학생 1, 2, 3과 아들은 마지못해 느릿느릿 가게를 나온다. 학생 1이 짜증을 낸다.

학생 1 : 아, 돈 아깝게. 존나 이상한 아저씨 만나서 이게 뭐야.

학생 2 : 우리 방금 오천원 어치 먹었는데 팔만원 빼가는 거 실화냐?

학생 3 : 대박. 존나 불쌍해.

학생 1 : 근데 저 아저씨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아무 말도 않고 학생들 옆에서 견고만 있는 아들. 긴가민가하던 학생 1이 아들에게 묻는다.

학생 1 : 야, 저 사람 너네 아빠 아니냐?

아들, 입을 다물고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한다.

#4 집

그 날 저녁. 아버지, 어머니, 아들 셋이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으면서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놓고 따진다.

아들 : (반항적인 목소리로) 거기 웬만한 분식집보다 싸고 맛있다고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없이 손자랑 둘만 사시는 거 알아요?

아버지, 말없이 밥만 먹는다.

아들 :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아버지 :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그래. 포장마차는 안전장치도 없고 보험도 안 되는데, 그런 데서 일하시다가 만에 하나 다치시더라도 하면 더 큰일나는 거야.

아들 : 동네 사람들 다 몇십 년씩 잘만 하잖아요. 그냥 아빠만 유난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 늦지. 그리고 아빠가 해야 할 일인데 돈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어디 있지.

더 뭔가를 말하려는 아버지. 아들은 식탁에서 껍하니 일어선다.

아들 : 됐어요, 또 조선 시대 책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들, 반항하듯 식탁에서 빠져나와 부엌 밖으로 나가버린다.

#5 시장 근처

시장 근처엔 허가받지 않는 노점상들이 죽 늘어서 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아들, 그 사이를 지나치다 어떤 노점상을 본다. 돛 자리를 깔고 물건을 팔던 불법 노점상 주인을 아버지가 단속하고 있다. 50대 여성, 아버지와 동년배로 보이는 노점상 주인이 아버지에게 애걸하고 있다.

시민 1 : (애써 웃음을 띠며) 창현이 아빠, 불법이라니 말이 심하네. 고작 이만한 일에 이웃끼리 얼굴 붉혀야겠어?

아버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 않는다. 노점상 주인, 아버지를 더 설득하려 든다.

시민 1 : 나 알잖아요? 나 고정된 직업 있어. 근데 요즘 다리가 너무 아파서 마트엘 못 나가겠더라구.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데 또 약값은 약값대로 들잖아?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검사검사 안 쓰는 물건 파는 거지. 불법이 아니라, 이웃끼리 하는 바자회라고 하는거 이걸.

아버지 : 오전에도 봤는데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일회성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장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지금 시장 앞이라서 지나다니는 데 불편하다고 민원도 몇 건 들어왔어요.

시민 1, 표정이 굳어지지만 웃으려고 애쓴다.

시민 1 : 여보소 창현이 아버지, 내 아들놈도 창현이랑 동갑인데 창현이 얼굴을 봐서라도 헤아려 주소. 이거 짝간 한다고 내가 일

확천금을 손에 넣는 것도 아니잖아. 다신 안 할 테니까 저녁까지만, 저녁까지만 봐주면 안 되나?

아버지 : (더 단호하게) 오늘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만 정리하시고 돌아가세요. 계속 그러시면 저도 과태료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민 1, 궁시령대며 뚝자리를 정리한다. 멀찍이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의 귀에 시민 2와 시민 3의 목소리가 들린다.

시민 2 : 아유, 사람이 인정이 없어. 감시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봐주지 않구.

시민 3 : 저럴 시간에 다른 일이나 할 것이지. 하여튼 공무원들은 쓸데없는 일만 하는 데 도가 텃다니까.

이외에도 시민 두서넛이 아버지와 노점상 주인을 보며 소곤대고 있다. 아들, 가방을 세계 쥐고 몸을 핵 돌려 다른 길로 지나간다.

#6 집

다른 길로 되돌아간 아들은 그 날 PC방에 들러 게임을 하다 느지막하게 집에 온다. 아들이 집에 들어서자 먼저 퇴근해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반긴다.

아버지 : 창현이 왔니.

아들, 대답하지 않고 제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 가족끼리 저녁밥을 먹으면서도 아들은 내내 말이 없다. 아들의 얼굴을 살피던 엄마도 한마디 한다.

어머니 :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었어?

아들 (통명스럽게) : 별거 아니에요. 가족들은 저녁을 먹은 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다. 사과를 입에 넣으며 아버지가 지나가듯이 말한다.

아버지 : 5층집 세준이 엄마 있잖아, 다리가 많이 편찮으신가 봐.

어머니 : 그래?

아버지 : 응. 오늘 뵈니까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들은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낸다. 낮에 아버지께 빌다시피 했던 시민 1이 세준이 엄마다. 단속한 사람 단속한 사람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아버지 얼굴을 결눈질로 보고는 화를 꼭 눌러 참는 표정.

어머니 : 걱정이네. 안 그래도 마트 일 하느라 하루종일 서 계실 텐데.

아버지 : 뭐 다리에 좋은 거라도 갖다드려야 할까 봐.

아들 대화에 끼어든다.

아들 (반항적인 말투로) : 그렇게 불쌍하면 단속 안 하면 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아들을 본다.

아들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목소리를 키운다) : 사정이 있어서 그랬단 거 알면 안 하시면 되죠. 그 땐 가차없이 단속해놓고선 이제 와서 뭘 걱정해줘요?

아버지 : 걱정이 되는 건 되는 거고 일은 일이야. 내가 걱정된다 해서 일을 놓으면 안 되지.

아들 : 아빠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아들, 완전히 흥분해서 자리에서 일어난다.

아들 (분노에 차서) : 사람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융통성 없다고 막 그래요. 아빠가 막는다고 그 사람들 장사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막아도 막아도 또 나오고 아빠는 실컷 욕만 먹는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아빠는 다른 일 없어요? 남들 보기 쪽팔리다구요!

어머니 : 이창현, 너 아빠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머니의 꾸중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조용히 보고만 있다. 아들 계속해서 악을 쓴다.

아들 : 난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다고요! 내가 많은 걸 바라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만 해달라는 건데, 아빠가 그러지를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나도 다 불편해지기만 하잖아요!

어머니 : 창현아!

아들, 뒤돌아 자기 방으로 빠르게 들어가 문을 잠가버린다. 침대에 폭 엎어져 이불을 파묻고 화면은 그대로 어두워진다.

#7 아들 방

아들, 다음 날 아침까지 침대에 누워 있다. 잠결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니 오늘은 토요일이다. 아들 (혼잣말로) : 학교 안 가도 되는 날이네. 그대로 누워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린다. 잠고 있던 문을 열자 앞치마를 맨 어머니가 서 있다.

어머니 : 아들, 부엌으로 와서 엄마 좀 도와.

아들 : (불멘소리로) 쉬는 날엔 쉬게 해줘요.

어머니 : 너 먹을 아침밥 만드는 거야. 안 도와면 아침밥 없어.

아들, 머리를 뽀뽀 긁고 하품을 찌억 하면서 엄마 뒤를 따라 부엌으로 간다. 부엌 식탁 위에는 콩나물이 담긴 봉지가 놓여있다. 어머니와 아들은 부엌 개수대에 나란히 서서 콩나물을 씻는다. 물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물기 묻은 콩나물을 체에 담고 물기를 털어내려는 때 어머니가 심각하지 않은 투로 말을 건다.

어머니 (평상시와 같은 목소리로) : 어제는 네가 잘못된 거야. 알지?

아들, 대답 대신 싱크대 물을 더 세게 튼다. 어머니가 다시 말한다.

어머니 (차근차근 말하려 들며) : 엄마가 항상 말하잖아. 너희 아빠만큼 바른 사람 없다고.

아들 (양금이 덜 가신 목소리) : 혼자만 바르면 누가 알아줘요.

어머니 : 엄마가 알아주지, 또 우리 아들이 알아주고, 또 사람이 한결같이 꾸준히 하다보면 다른 사람이 알아줄 때도 있어.

아들은 한참 동안 콩나물만 씻는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기색으로 뚝뚝 뜬 눈썹을 들이다 말한다.

아들 (뚝뚝 뜬 눈썹) : 전 잘 모르겠어요. 규칙 잘 지키면 좋아야 하죠. 그래도 사람마다 사정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손자랑 둘만 사는 할아버지도 단속하시던데, 그런 분들 단속하고 돈까지 내게 만드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머니 : 영식이 할아버지 얘기지? 안 그래도 너희 아빠가 고민 많이 하셨어.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른 일자리라도 알아봐드리고 싶어서 노인일자리 지원센터에도 문의해 보셨다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안 되는 거 같더라.

콩나물을 다 씻은 어머니가 허리를 편다.

어머니 : 그래도 아빠가 꾸준히 말한 덕분에 기초생활수급 지원대상이 되셨대. 잘 됐지?

아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8 아들 방

그 날 저녁때까지 아들은 빈둥빈둥 보낸다. 핸드폰 게임을 했다가, 아무 의미 없이 TV를 보다가,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한다.

아들 (나레이션) : 아직도 난 잘 모르겠다. 사람들 사정도 생각 않고 규칙만 지키는 게 잘하는 걸까?

문득 마루로 향하는 아들. 마루에선 어머니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종종거리며 서 있다.

어머니 (걱정스러워하며) : 창현아, 아빠한테 연락 없었지?

아들 : 네, 없었어요.

어머니 : (불안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친구 집에 간다고 하셨는데 소식이 없네. 아빠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한시간 전쯤에 돌아갔다던데...

그 때 누가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난다. 어머니가 화들짝 놀란다.

어머니 : (눈을 커다랗게 뜨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들, 달려가서 문을 연다. 곳곳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불이야! 불이 났어요! 라고 소리치고 있다. 저 멀리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이윽고 소방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도 들린다.

아들 : 어디 불이 났나 봐요.

어머니 : 어느 쪽에?

아들 : 포장마차 있는 데...

아들, 대답을 하다 말고 뭔가가 생각난 듯 말을 멈춘다. 급하게 현관에 놓인 신발을 구겨신고 밖으로 뛰어나온다. 뒤에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

어머니 : 창현아!

아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간다.

#9 포장마차 길목

#3의 포장마차 길목으로 아들이 뛰어온다. 입구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와 있고 사람들이 둥글게 몰려있다. 웅성이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 등 양상은 다양하다. 몰린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안절부절못하며 큰 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4 :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영식이 할아버지! 창현이 아빠!

아들, 그 쪽으로 뛰어간다. 시민 4가 아들을 알아보고 큰 목소리를 낸다.

시민 4 : 아이고 창현아, 창현아 어떡하냐. 너희 아빠가 큰일이 났어!

아들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 무슨 일이에요?

시민 : 글썄, 불이 펄펄 나고 연기가 솟는데 느이 아빠가 영식이 할아버지를 구하겠다고!

아들, 멍한 눈으로 검은 연기가 솟고 있는 화재현장을 본다. 그러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려 달리기 자세를 취한다. 시민 4가 아들

의 행동을 미리 눈치채고 잦싸게 허리를 끌어안는다.

시민 4 : 애가, 애가. 지금 뭐하려고 그래. 죽을라고 이러!

아들 (발버둥치며) : 그래도 아빠가 저기 있잖아요!

시민 4 : 암전히 기다려! 어린 것이 힘도 장사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도와줘봐요!

시민들 여럿이 달려들어 아들의 행동을 막는다. 아들은 있는 힘껏 버둥거리며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애를 쓴다. 그 때 현장에 모인 사람 중 하나가 외친다.

시민 5 : 저기 사람 나온다!

일동 그 쪽을 돌아본다. 소방대원 둘이 영식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한 사람씩 부축하고 있다. 아들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뛰어간다.

아들 : 아빠!

아들은 빠르게 그 쪽으로 뛰어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한다.

아들 : 괜찮으세요?

아빠 : (숨을 몰아쉬며) 그래. 나보단 할아버지가 걱정이다.

할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눈을 감고 있다.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온 구급대원이 아버지에게 물병을 내밀며 통명스레 말한다.

구급대원 : 괜찮아요?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가요 들어가길. 같이 죽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 :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받은 물을 마시지 않고 품 안에서 재가 묻은 손수건을 꺼낸다. 물병 뚜껑을 따 손수건에 물을 묻힌 다음 할아버지의 까만 얼굴을 닦아주는 아버지. 화재현장에서 막 나온 아버지의 얼굴도 재로 얼룩덜룩하다. 아들은 아버지를 지켜보며 아무 말도 못한다. 근처에서 다른 구급대원들이 영식이 할아버지를 들것에 싣고 구급차에 태우려 든다. 바빠 움직이는 구급대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묻는다.

구급대원 : 이 사람 보호자 없어요?

아버지 : (선뜻 나선다) 제가 가겠습니다.

구급대원을 따라 구급차에 올라타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한다.

아버지 : 금방 집에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들 : 저도 같이 가요.

아버지 (타이르는 어조로) : 엄마가 걱정하신다. 암전히 기다리고 있어.

실려가는 영식이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도 댕크 구급차에 올라탄다. 아들 뒤에 선 채 멀어지는 구급차를 보고만 있다.

#10 안방

안방에서 아들 목소리가 들린다. 책을 읽는 소리.

아들 (나레이션) : 청렴은 목민관의 기본 임무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서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화면이 아들의 모습을 비춘다. 안방에서 아들이 손때 묻은 목민심서를 집어 들고 책을 읽고 있다. 처음 읽는 거라 목소리가 어색하다. 아들은 목민심서의 몇 구절을 더 읽다가 책을 조심조심 탁자에 내려놓는다.

목민심서가 놓인 탁자 옆엔 팜플렛도 보인다.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팜플렛. 아버지 글씨체로 이것저것 필기가 되어 있다. 책을 내려놓은 아들, 목민심서와 팜플렛을 번갈아 보며 심란한 얼굴을 한다.

아들 (혼잣말로) 이게 다 뭐라고.

마루에서 엄마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

엄마 : 아들, 시간 됐다. 이제 가야지.

아들 : 가요.

아들, 책을 놓고 일어선다. 목민심서와 팜플렛이 다시 화면에 비친다.

#11 시상식장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들과 어머니가 시상식장에 들어선다. 넓은 홀은 사람들로 북적인다. 아들과 어머니 옆으로 시민 10이 호들갑스럽게 다가온다.

시민 1 : 아이구 이게 누구야. 오늘의 주인공들이 아니여!

어머니 (미소를 지으며) : 세준이 어머니. 와 주셨네요.

시민 1 : 누가 상을 타는디 고렘 와야제.

시민 1, 회장 맨 앞에 놓인 현수막을 바라본다. 아들과 어머니도 나란히 그 방향을 본다. 세련된 꽃장식으로 장식된 현수막엔 '모

범공무원 표창'이라 써여 있다.

시민 1 : 창현이 아빠 덕에 영식이 할아버지가 살았지.

어머니 : 요전번에 다리 아프다고 한 건 괜찮아지셨어요?

시민 1 : 고개 고거지 뭐. 글두 그쪽에서 준 약재 먹으니까 좀 나아.

시민 1, 아들과 어머니가 있는 쪽으로 몸을 굽히고 목소리를 낮춘다. 시민 1 (비밀 이야기를 하듯) : 내가 솔직히, 딱 하루만 일한 걸 가지고 잡도리한다고 창현 아빠 욕 엄청 하고 다녔는데 말여. 웬걸 그런 걸 갖다주면 어떡허? 사람 미워하지도 못하게 한다 니깐. 시민 1, 회장 안에 모인 사람을 휘 둘러보며 말한다.

시민 1 : 이 사람들이 다 창현 아빠 땀시 모인 거지? 사람이 영 부드러운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융통성 없이 군 게 사람을 살렸네그러.

어머니는 말없이 미소만 짓는다.

#12

사람들이 박수치는 가운데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가고 있다. 아들은 선뜻 박수를 치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고만 있다. 마이크를 든 사회자가 내빈들에게 아버지의 공적을 간단하게 알린다.

사회자 : 이춘석 씨께서는 1999년 공무원에 입직해 근 20년의 공직생활 동안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셨습니다. 지난 달 화재가 일어났을 때도 솔선수범해 119에 화재의 진원지를 신고하고 인명 구조에 힘쓰셨으며...

축사가 끝나자 양복을 차려입은 국무총리가 아버지에게 상을 수여한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친다. 아들은 자리에 앉아서 박수치는 사람들 가운데 영식이 할아버지를 발견한다. 아들의 시선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할아버지 :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띠며 박수를 치고 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때 마이크를 든 아버지가 단상에서 수상소감을 발표한다.

아버지 : 공직자로서 맡은 일에 충실히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리 큰 상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지탱해주는 사랑스러운 아내와 자랑스런 아들 현철이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단상에서 아들을 바라본다. 예고도 없이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아들은 썩스러운 표정을 한다. 아버지가 단상에서 내려오자 다시 박수소리가 이어진다. 이번에는 아들도 박수를 친다. 사회자와 국무총리가 아버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아버지는 겸양을 하며 웃는다. 아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아들 : (나레이션) 우리 아버지는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는 공무원이다. 노점상이라면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도 가리지 않고 다 단속하신다. 난 아직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의 행동으로 할아버지 한 분이 사셨다.

박수소리는 그치지 않고 한동안 이어진다. 아들도 아버지를 보며 연신 박수를 보내고 있다.

<끝>

02 시 분야



대상

내 마음의 목소리

최우수상

편하게 봐요, 우리
어느덧 고향의 밤

우수상

길
검은 손
허기가 지난 자리

장려상

쇠뚝구리
그때가 맞다
거울
물가에 내리는 비



내 마음의 목소리 | 강정선

내 마음은
거절하라 하지만
보는 눈빛은 흔들흔들

내 마음은
돌아서라 하지만
내민 발걸음은 머뭇머뭇

내 마음은
물리쳐라 하지만
건넌 손은 주저주저

내 마음은
단단한 바위인데
나의 몸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네

흔들리는 눈빛은 단호하게
머뭇거리는 발걸음은 힘차게
주저하는 두 손은 가볍게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청렴입니다.



편하게 봐요, 우리 | 고현미

괜찮다 말했는데
가져가라 하십니다

또 괜찮다 했는데
마음이니 받아두라 하십니다

마음을 물건으로 표현하면
다음에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마음의 표현은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칭찬 한마디로
모두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덜고
편하게 봐요, 우리



최우수상

어느덧 고향의 밤 | 박태영

노릇노릇 달이 구워지는 밤
한줌이 된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르면
당신은 나긋이 풀으시네

너는 부를 쌓았니?
어머니, 저는 덕을 쌓았습니다
너는 권력을 좇았니?
어머니, 저는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너는 명예를 얻었니?
어머니, 그것은 따라왔습니다
너는 참 잘 살았구나?
어머니, 저는 도리대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구나,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길 | 유연속

고결하다는 것은
물들지 않았다는 것
욕심이 없다는 것은
탐하지 않았다는 것
할 말을 한다는 것은
불의를 눈감지 않았다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
알아주지 않아도
제 할 일 묵묵히 하는 것

영리를 위해 지갑을 열지 않고
승진을 위해 급신거리지 않으며
양심을 버리지 않았기에
당당하게 밟아온 길이
지금 하얀 길로 남은 것
무진장한 제자들과 울고 웃은
삼십육 년 공직생활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한 번도 검은 손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

지름길 대신
굽이진 길 돌아보니
외진 그 자리에 꽃 한 송이 피어
널리 퍼진 청렴의 향기로
누군가의 가슴을 또다시 물들이는 것



검은 손 | 정수영

손아 손아 너 그 검은 손아
무엇을 하기에 손이 검더냐
커피스틱 하나에 빨치던 그 하얀 손이 맞더냐

손아 손아 그 검은 손아
무엇을 하기에 손이 검더냐
복사용지 더미에 빨치던 그 회색 손이 맞더냐

손아 손아 그 검은 손아
무엇을 하기에 손이 검더냐
돈뭉치에 손을 빨던 그 검은 손이 맞더냐

손아 손아 그 검은 손아
작고 고왔던 그 손이
크고 거칠은 손이 되었구나

파란 물에 깨끗이 씻어내 다시 검지 말자꾸나



허기가 지난 자리 | 최지원

길 걸을 때마다
눈 돌릴 때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먹을수록
가질수록

격렬해지는 허기

자극하는 유혹의 손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견딘
푸르른 삶

허기가 지난 자리
가득 채운 푸른 빛

조개가 진주를 키워내듯
당신이 키워낸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장려상

쇠똥구리 | 이정민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별은 제자리에 남는다
은하수 지침 삼아 끄떡끄떡
쉽표도 없이 걷는 쇠똥구리 한 마리

제 몸보다 큰 똥을 데굴데굴
물구나무 자세로 수양하듯
가는 팔로 지구를 밀며 간다

남의 귀한 것 탐하지 않고
유혹되거나 화내지 않으며
묵묵히 별을 따라 걷는
저 기꺼운 직선의 방식!

맨들맨들한 경단 속에서
자장이 울려 퍼진다
어제보다 더 둥글게 밀고 간 요람은
한 가장의 땀이자 내력이 된다



장려상

그때가 맞다 | 김종태

맞다.

그때다.

그때였다.

마우스 잡은 손가락에 가득 힘을 주어 ‘반려’ 클릭을 하던 날.
홍당무처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안 됩니다” 라고 말대답하던 그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1398에 전화걸어 “더는 못 참겠습니다” 하며 털어놓던 날.

그날의 내가

그때의 힘들던 기억들을 딛고

오늘

콧노래를 흥얼대는 내게 놀라는

어깨 퍼진 당당한 걸음을 걷는

딸아이에게 떳떳한

나를

만들어냈다.



장려상

거울 | 서미경

어린 시절 수 없이 보아왔던 거울은
바쁜 세월 속 자리만 차지하고
거울에 비춰어진 내 모습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네

치열한 세월 속 감추었던 내 모습은
어느 샌가 내 아이의 표정에서
내 아이의 말투에서
슬며시 보게 되네

부끄럼 한 가득

단장을 위해 보아왔던 거울대신
정결을 위해 다시 든 거울

부끄럼이 아닌 당당함으로
내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리



장려상

물가에 내리는 비 | 이연재

너는 형태 없이 내리다
소리로 부피를 키운다

가만히 귀 기울이다 문득 내다보면
어느새 한 뼘 웅덩이로 자라
평소엔 알기 어렵던 빈자리를 메운다

비로소 평평해진 땅에서
아무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고요 속에 네가 울려 퍼진다
질은 흙으로 젖은 잎사귀로 맺혀
거기에 있음을 부지런히 알린다

너는 허무의 두려움이 없다
해가 뜨면 그저 잔상으로 남을 일임에도
투명히 내리길 그치지 않는다

부는 바람에도 한걸음 물러서는 일이 없다

너는 물가를 적시는 비다
알아주는 이 하나 없이도
반짝이는 일렁임이다

03 웹툰·포스터·일러스트 분야



대상

지워야 할 청탁문화, 써 내려갈 청렴문화

최우수상

딸에게 배운 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부패 뜯어내세요.

우수상

당신은 지금 on-air

불평등사회는 평등사회가 됩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장려상

갑질, 참고 삼키는 독약입니다.

청렴, 맑은 세상으로 통하는 마스터키

부릉바이크

함께 만드는 청렴의 길



지워야 할 청탁문화,
써 내려갈 청렴문화

| 김성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부패 뜯어내세요.

| 푸를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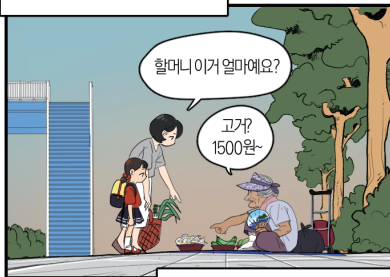


최우수상

딸에게 배운 날 | 장미



딸아이와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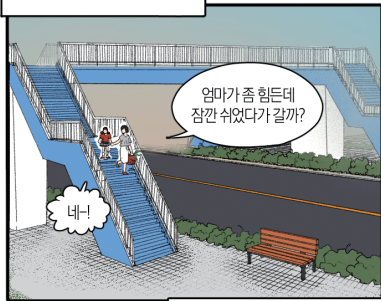
육교 앞에서 할머니가
야채를 팔고 계셨습니다.

저는 콩나물을 사는 걸
깜박 잊어버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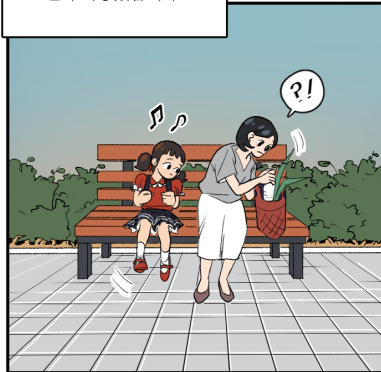
할머니께 콩나물을
구입했습니다.

육교를 건너던 중,
잠이 많아 힘이부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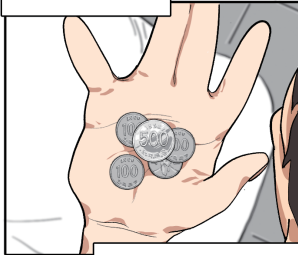


딸아이와 전
육교 앞 벤치에서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쉬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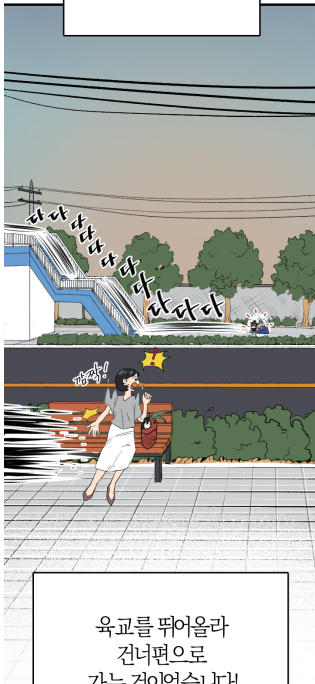
거스름돈 500원을
100원짜리로 받았는데,
동전 한 개가 500원짜리
였던 것입니다.



육교를 건너
다시돌려드려머돌아가가개는
너무 작은 돈이었기에
망설여졌습니다.

‘에이 할머니도 모르실텐데
그냥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때

말아이가 갑자기
제 손의 동전을 들고서는,



육교를 뛰어올라
건너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아이는 다시
뛰어들어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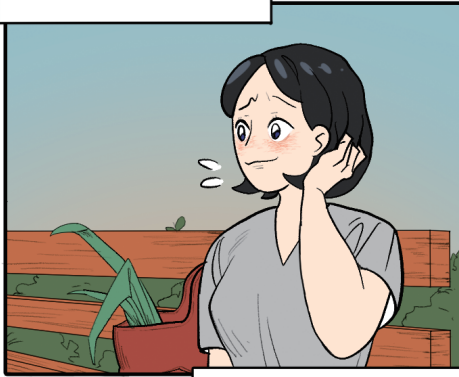
숨을 헐떡이며
말하더군요.



엄마가 힘들까봐
내가 대신 갔다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
아이의 얼굴을
뭇머하게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돌아가는게 힘들다고
평계를 대가며
망설였다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려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늘 딸아이에게
정직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직해야 했던 건
오히려 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돌려주고 와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살아가면서
사소하다는 이유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청렴한 사회는
사소한 '작은 정직'을
실천함으로써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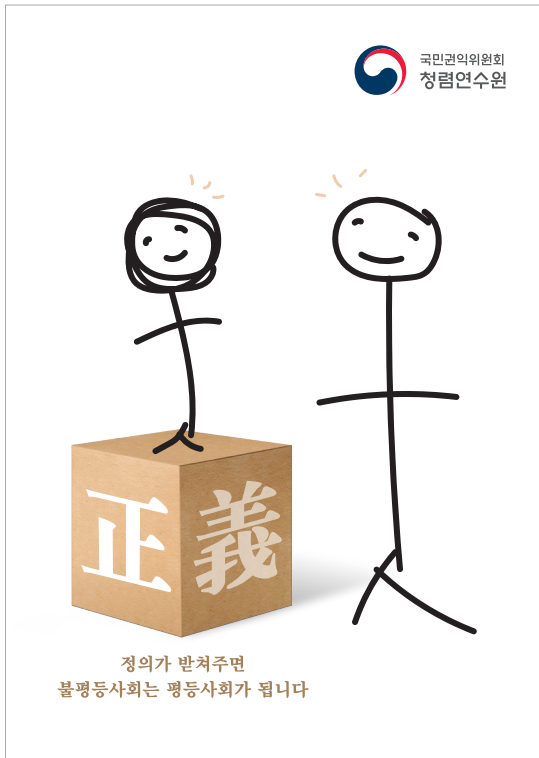
당신은 지금 on-air

| 김동현



당신은 지금
ON-AIR 중입니다.

정협은 국민권(依民權)의
본무(本務)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덕의 바탕이나 정협까지 알고서는
방이 국민권이 될 수 없다. -정약종(裴寅宗)



정의를 받쳐주면
불평등사회는 평등사회가 됩니다



불평등 사회는
평등사회가 됩니다.

| 이동준



우리도 같은 사람입니다.

| 정신적 지주



갑질
참고 삼키는 **독약**입니다.

갑질 대처유형 1위 '그냥 참는다'
참고 삼키지 않게 갑질을 멈춰주세요.



갑질, 참고 삼키는 독약입니다.

| 정민수



청렴, 맑은 세상으로 통하는 마스터키

| 홍금미



함께 만드는 청렴의 길

| 김한슬

장려상

부릉바이크 | 윤지훈



글 / 그림 윤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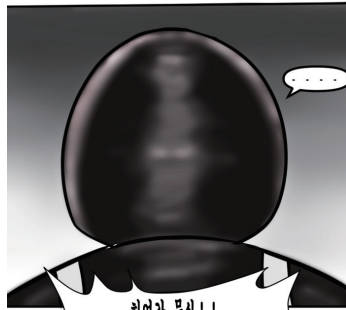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왜 정직하게 일 하는 배달기사들은
매번 이렇게 비난 들으며서 일해야 될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음식을
공장에서
만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늦는데!!



죄..죄송 합니다 . .
퇴근시간에다가
차가 밀리고 저녁시간이라
다른데도 바빠서..



허여간 문신!!
절렁 음악 땡땡 소음공해 일으키고
늘어서 돈빠는사람이 변명을
주저리 주저리! 어휴 진짜!

언제 까지
참아주고 이런대 우
받으며 언제 까지
일 해야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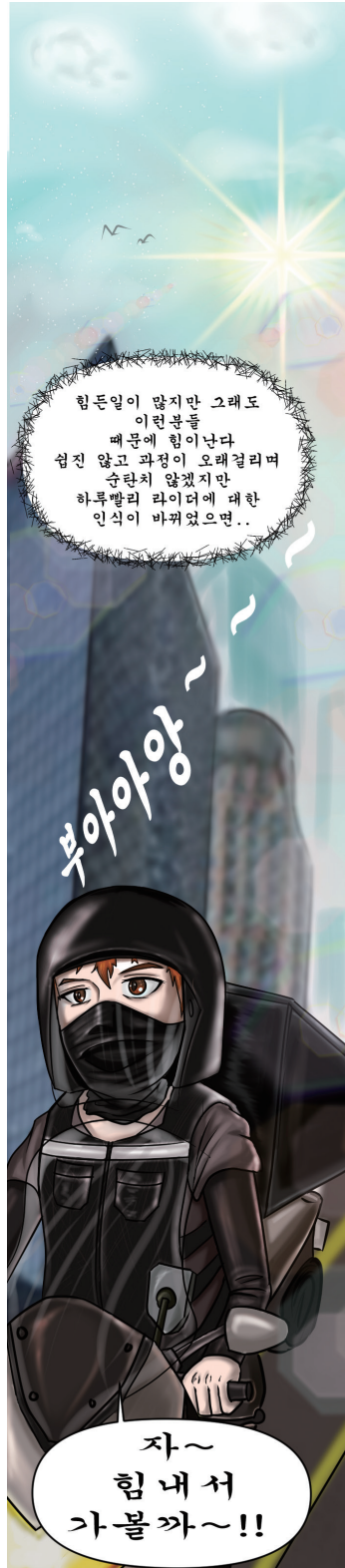


후..힘들었던
하루였다. .
저번에 그랬던거
마저 그러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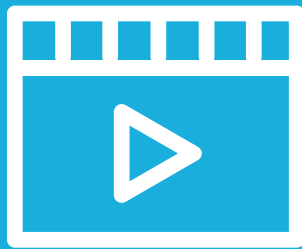


내가 어릴때부터 수없이 듣던말..
어른들은 무작정
공부하라고만 시켰지 공부를 왜
해야되는지는 제대로
설명도 안하고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말만
했었지...

그래도 그런 공부보단
난 내가 하고싶은
일하며 후회없는 인생 살아볼려고
생계를 위해 하기싫은
배달일을하며
집에선 시간이 날때
그림을 그린다..



04 영상 분야



대상

상호존중 있다, 있다

최우수상

무울이와 함께하는 나를 바로 세우는 힘
동네슈퍼의 교훈

우수상

기생춘
은쪽같은 내 친구
따주임의 하루

장려상

청림 오피스(Oh peace)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청림문화와 6대 덕목
청림시물레이션의 명문화



상호존중 있다, 있다

| 경기도교육청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무울이와 함께하는
나를 바로 세우는 힘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윤리경영팀)



동네슈퍼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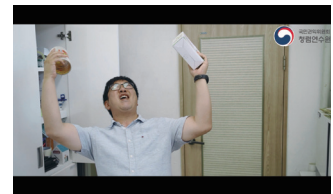
| 달자국



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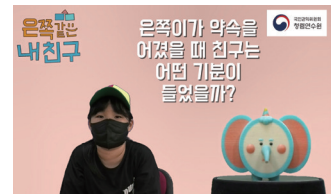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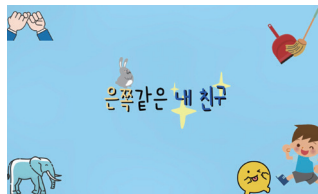
기생촌

| 나라



은쪽같은 내 친구

| 서울장평초등학교(방송부)



따주임의 하루

| 한국지역난방공사(동반성장부)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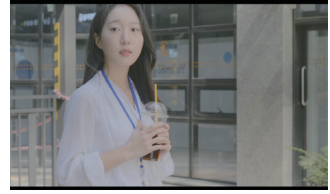
청렴 오피스(Oh peace)

|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실



잘 부탁드립니다!

| 엄태인 외 8인



학교에서도 배우는
청렴문화와 6대 덕목

| 가지 sisters



청렴시뮬레이션의 명문화

| 달로빛청솔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05 노래 분야



대상

사랑도, 미래도, 청렴도

최우수상

우린 알고 있잖아
청렴한 세상 (Mayday)

우수상

Good bye
좋은 세상 만들어요
청춘리더스

장려상

Triangle
마음을 물들이는 약속
포천교육지원청 청렴송(푸른속삭임)
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랑도, 미래도, 청렴도

| 하이원 호콘지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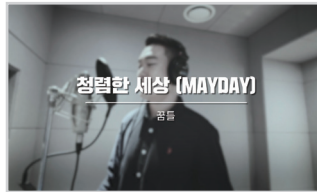
우린 알고 있잖아

| 홍기표



청렴한 세상 (May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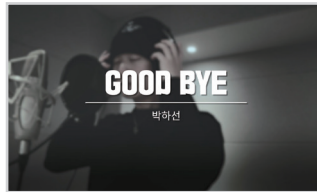
| 꿈들



우수상

Good bye

| 박하선



좋은 세상 만들어요

| 제이탑



청렴리더스

| 청춘리더스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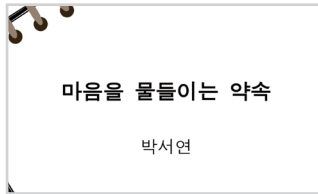
Triangle

| 양지



마음을 물들이는 약속

| 박서연



포천교육지원청 청렴송
(푸른속삭임)

| 청렴메아리



할수있어요.될수있어요.
대한민국

| C.C



※ 수상작 영상 풀버전은 국민권익위원회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2022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집

본 수상작품집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